

최종보고(안)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2018. 1.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계획의 개요	1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1. 계획의 배경	3
2. 계획의 목적	4
제2절 계획의 범위	5
1. 공간적 범위	5
2. 시간적 범위	5
3. 내용적 범위	5
제3절 계획의 위상과 성격	6
1. 성격 및 역할	6
2.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연구 추진현황	8
제4절 계획 수행 체계 및 과정	10
1. 계획 수행 체계	10
2. 계획 수행 과정	11
II. 관광여건 변화와 전망	13
제1절 관광정책 환경분석	15
1. 사회적 환경변화	15
2. 기술적 환경변화	19
3. 경제적 환경변화	22
4. 생태적 환경변화	24
5. 정치적 환경변화	25
6. 종합분석 및 시사점	28

제2절 국내·외 관광시장 현황 분석	29
1. 국제 관광시장	29
2. 국내 관광시장	31
3. 관광산업 현황분석	38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43
제3절 해외 정책 사례 분석	44
1. 일본 :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44
2. 중국 : 13차 5개년 계획	46
3. 영국 : Tourism Action Plan	48
4. 호주 : 중장기 관광산업 발전계획	50
5. 스페인 :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정책	52

III. 관광정책 추진성과 및 사전평가

제1절 관광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55
1. 관광정책 추진현황	59
제2절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 현황	67
1.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70
2. 계획 추진 현황	71
3. 전문가 중간 평가	73
제3절 제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67
1. 조사 개요	76
2. 조사 결과	78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84



IV. 비전과 전략 85

제1절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기조78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87
2. 관광분야 국정과제 91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93

제2절 계획의 기조와 방향 9

1.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기조 95
2.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방향 97

제3절 비전과 목표 98

1. 주요 정책 키워드 98
2. 2022 관광비전 99

제4절 추진전략 100

V. 부문별 정책과제 101

제1절 쉽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의 시작31

1. 국내관광 진흥전략의 필요성 103
2. 국내관광 현황 및 진단 104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09
4. 추진 일정(안) 129

제2절 신성장 역량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61

1. 관광산업정책의 필요성 130
2. 관광산업 현황 및 진단 131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39
4. 추진 일정(안) 162

제3절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 8

1. 지역관광개발 전략의 필요성 163
2. 지역관광 현황 및 진단 164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74
4. 추진 일정(안) 198

제4절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고도화9

1.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의 필요성 199
2. 외래관광객 유치의 현황 및 진단 200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205
4. 추진 일정(안) 223

VI. 법·제도 추진기반 조성 225

제1절 관광 법·제도 정비 227

제2절 관광정책 협력체계 구축 2



표 목차

<표 I-1> 제1차~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개요	8
<표 II-1>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OECD)	3
<표 II-2> 최근 5년 행정구역별 순 이동자 수	8
<표 II-3> 4차 산업혁명 영향도 국가별 평가	9
<표 II-4>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2
<표 II-5> 남북간 주요 성명·선언문 요약	3
<표 II-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
<표 II-7> 관광 정책환경 종합분석	2
<표 II-8> 연도별/지역별 세계관광객 수	9
<표 II-9> 연도별/지역별 세계 관광수입	0
<표 II-10> 국민 국내여행 총량(2012~2016)	3
<표 II-11> 국민 국내여행 1인/1회당 패턴	3
<표 II-12> 국민 국내여행의 주요 행태변화(2012~2016)	3
<표 II-13> 국내 관광 계약 요인(2012~2016)	3
<표 II-14> 국민 해외 관광객 수 (2012~2016)	3
<표 II-15> 주요국으로의 한국인 출국통계(2012~2016)	3
<표 II-16> 연도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2012~2017)	3
<표 II-17> 연도×주요국적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2012~2016)	6
<표 II-18> 외래관광객 방한 목적	7
<표 II-19> 외래관광객 방문 권역	7
<표 II-20> 연도별 세부 업종별 관광사업체 수 추이(2012~2016)	8
<표 II-21>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9
<표 II-22> 연간 총 매출액 추이	4
<표 II-23> 2016년 지역별 관광사업체수	4
<표 II-24> 관광시장 종합분석	4
<표 II-25>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 목표(~2020년)	4
<표 II-26> 일본정부가 향후 추진할 주요 시책 방향	54
<표 II-27> 13차5개년 계획 주요 추진 목표(중국)	4
<표 II-28> Tourism Action Plan 주요 추진 목표(영국)	4
<표 II-29> 중장기 관광산업 발전계획 주요 추진 목표(호주)	15

<표 III-1>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전략 및 추진과제	95
<표 III-2>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전략 및 추진과제	16
<표 III-3> 관광산업 육성 대책 전략 및 추진과제	3
<표 III-4> 문화체육관광부 경쟁력 강화 회의 전략 및 추진과제	46
<표 III-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예산 구성	8
<표 III-6> 관광정책 영역별 예산 구성	9
<표 III-7> 계량적 목표 달성 현황	7
<표 III-8>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전략	7
<표 III-9>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성과 평가 항목	37
<표 III-10> 국민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47
<표 III-11> 국제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47
<표 III-12> 관광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57
<표 III-13>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57
<표 III-14> 융복합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57
<표 III-15>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항목	7
<표 III-16> 환경변화의 관광분야 영향 정도	8
<표 III-17>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정책 중요도	9
<표 III-18> 국민 국내관광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08
<표 III-19> 외래관광객 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18
<표 III-20> 관광산업 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18
<표 III-21> 지역관광 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28
<표 III-22>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핵심가치	3
<표 V-1> 국내관광부문 예산 현황	106
<표 V-2> 실버여행학교 운영방향	120
<표 V-3> 최근 5개년 관광사업체 수	132
<표 V-4> 관광산업 시장규모와 관광사업체 매출액 비교	133
<표 V-5> 관광사업체 개소당 종사원 1인당 매출액	3
<표 V-6>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현황	134
<표 V-7> 국내기업의 해외관광사업 진출사례	5
<표 V-8>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 추이	136



<표 V-9>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내역	15
<표 V-10>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17
<표 V-11> 관광종사원 교육실적	137
<표 V-12> UNWTO의 관광산업분류와 관광사업업종 비교	15
<표 V-13> 관광사업 업종개편(안)	146
<표 V-14> 외국의 혁신바우처 사례	148
<표 V-15> 동반성장우수사례	150
<표 V-16>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사례	11
<표 V-17> 인력수급분석을 통한 인력수급전망 사례	12
<표 V-1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급분석체계 구축 추진사례	3
<표 V-19> NCS기반 관광분야 취업지원 사례	14
<표 V-20> 인력양성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구축 사례	11
<표 V-21>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사례	15
<표 V-22> 관광두레 사업	156
<표 V-2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산업 창업지원	5
<표 V-24> 관광벤처기업 육성 제1호 펀드 실적	18
<표 V-25> 연도별 관광단지 지정개소 추이(최초 지정)	6
<표 V-26> 연도별 관광특구 지정개소 추이(최초 지정)	6
<표 V-27> 외래관광객의 방문 시·도 비율	16
<표 V-28> 국내여행 방문지	167
<표 V-29> 관광부문 예산편성(2013년~2017년)	168
<표 V-30> 지역관광관련 사업 예산(2013년~2017년)	170
<표 V-31> 타부처 관광 관련 주요 사업 현황	172
<표 V-32> 지역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육성 사업 개요	8
<표 V-33> 지역관광 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특징, 역할	9
<표 V-34> 문화공간의 관광자원화 지원	15
<표 V-35> 한국과 일본의 Top 1-3위 시장 집중도 비교(2012-2016) ..	20
<표 V-36> 주요 방한국가별 1인 평균 지출 경비(2014-2016)	21
<표 V-37> 중국관광객 여행형태별 1인 평균 지출 경비(2014-2016)	21
<표 V-38> 주요 국가별 입국 동향	202
<표 V-39> 크루즈 외래객 입국통계(2016-2017)	202

<표 V-40> 한국여행 중 방문권역(2012-2016)	203
<표 V-41> 한국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211
<표 V-42> 관광마케팅 관련 한중일 관광경쟁력 지수순위 비교	21
<표 V-43> 주요 방한시장 세분화 및 유치 마케팅 전략	22
<표 V-44> 관광 및 항공부문 입장 격차	22
<표 V-45> 일본 쇼케이시 도시 지정 사례	26
<표 VI-1> 관광법제 개편(안)	228



그림 목차

[그림 I-1] 계획의 수행방안	4
[그림 I-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7
[그림 I-3] 역대 정부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	8
[그림 I-4] 계획의 수행 체계	10
[그림 I-5] 계획의 수행 과정	11
[그림 II-1] 휴가 경험을	15
[그림 II-2] 총인구와 인구 성장률	17
[그림 II-3] 인공지능(AI) 국내 시장 규모 추산	20
[그림 II-4] 전국 고속철도 운행노선	21
[그림 II-5] 세계 경제 성장률 및 무역 증가율	22
[그림 II-6]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추이	23
[그림 II-7] 2030년 국제관광객 수 전망	29
[그림 II-8]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2012-2016)	43
[그림 II-9] 스페인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정책	55
[그림 IV-1] 신정부 비전 체계도	87
[그림 IV-2] 문화비전 2030 8대 정책의제	92
[그림 IV-3] 주요 정책 키워드	96
[그림 IV-4]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비전 및 정책대상	79
[그림 V-1]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15
[그림 V-2] 가족원 변화 및 1인 가구원 수 규모	15
[그림 V-3] 삶의 질 만족도, 일과 생활의 균형, 평균근로시간	0
[그림 V-4] 주요국 연차휴가 사용, 미사용 실태와 연차휴가 미사용 사유	71
[그림 V-5]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적용 추이와 및 규모별 연차사용실태	71
[그림 V-6] 국내관광 제약요인(2006-2015)	107
[그림 V-7]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여행 제약요인	8
[그림 V-8] 관광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11
[그림 V-9] 관광부문 예산·기금 지자체 지원계획(2017)	22
[그림 V-10] 지역관광자원 개발 지원규모와 사업내용	16
[그림 V-11] 단일시장 집중도	207
[그림 V-12] 방한 외래관광객 1인 평균 지출 경비(2012-2016)	28
[그림 V-13] 동남아 5개국 관광목적 방한객 수(2016-2017)	20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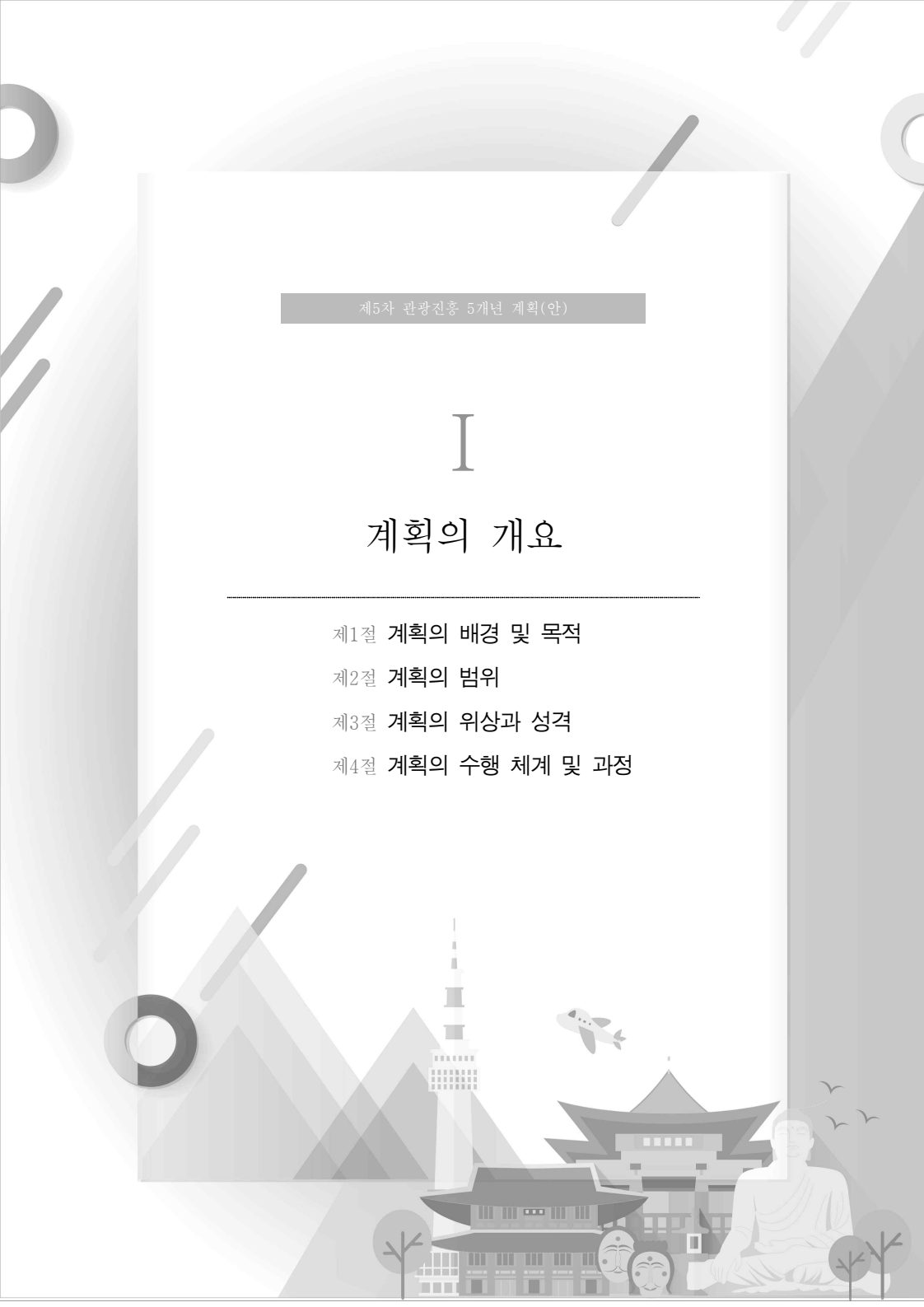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계획의 범위

제3절 계획의 위상과 성격

제4절 계획의 수행 체계 및 과정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관광부문의 정책발굴과 추진방안 요구
 -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07)과 국정가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광발전의 패러다임 필요
 -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법·제도, 예산 및 조직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과제 추진방안 도출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지난 정부의 관광정책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실효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 ☑ 관광을 통한 국민 모두의 행복 실현과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 정부는 관광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 마련
 - 관광은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수단으로 중요성 강조
 - 관광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 요구
- ☑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관광정책과제 발굴 필요
 - 관광복지의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진흥 정책수립 요구
 - 관광정책의 정책목표를 국민행복 실현, 외래관광객 만족도 제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 등 선도적인 관광정책의 기틀 마련

2 계획의 목적

- ☑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신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설정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인구·기술·사회문화적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관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의 기반 마련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는 국정목표를 관광영역에서 연계하며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
- ☑ 효과적인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관광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장기 관광정책 비전과 정성·정량적 목표 설정
 -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전반의 관광산업 및 균형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영역별 제시
- ☑ 관광발전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참여형 추진과제 발굴
 - 전략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관광정책과제 도출
 -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달성 로드맵 제시



[그림 I-1] 계획의 수행방안

제2절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 전국

2 시간적 범위

- ☒ 계획기간 : 2018 ~ 2022년(5년)
- ☒ 연구수행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1월
- ☒ 기준년도 : 2016년

3 내용적 범위

계획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범위 • 계획의 위상과 성격 • 계획의 수행 체계 및 과정
관광여건 변화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책 환경분석 •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와 전망 •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관광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 현황 • 제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비전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기조 • 계획의 기조와 방향 • 비전과 목표 •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풍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의 시작 • 신성장 역량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실현 •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고도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책 추진기반 구축 • 투자계획

제3절

계획의 위상과 성격

1 성격 및 역할

- ☒ 관광기본법에 근거한 실효적 법정계획

- 관광진흥법 제1조에 따라서 정부는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의 목적으로 함
- 관광진흥 기본계획(2018~2022)은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를 근거로 수립되며, 향후 5년 간(2018~2022) 관광진흥 기반조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가관광 전략회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최하고 관광진흥 정책의 방향 및 주요시책의 수립과 조정, 부처간 쟁점사항 논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 국가관광 전략회의는 연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개최 전 차관급 조정회의를 통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협의를 실시함

☑ 국내관광 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 문제인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정방향과 목표에 부합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함
- 관광진흥 기본계획에는 정책비전,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략과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함
- 정책의 대상을 국민 국내관광객, 외래관광객, 지역과 지역사회, 관광기업과 종사자로 분류하여 정책 고객의 범주를 구분하였음

☑ 정부, 국민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이 수렴된 실천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국민, 업계의견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과 시책을 마련함

[관광진흥 기본계획] 추진경과

- 미래관광발전포럼 「관광정책의 확장과 전환」('16.11~'17.6)
- 분야별 열린관광토론회(4회): 관광복지 실현(7.29),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8.15),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8.29),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9.8)
- 신 정부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포럼('17.4)
- 관광관련 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 의견수렴('17.6 ~ '17.7)
- 주요 이슈별 간담회 개최('17.6 ~ '17.12)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17.11 ~ '17.12)

실효적 국민복지 증진,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종합적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참여적 국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천계획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그림 I-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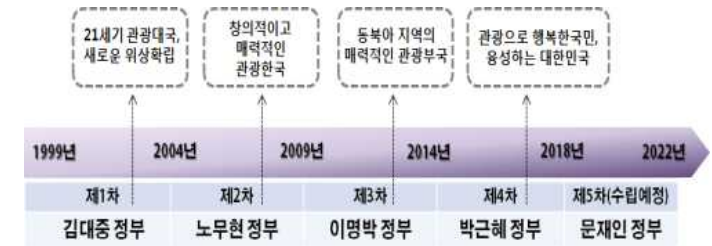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2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연구 추진현황

☑ 「제1~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후속 계획

-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은 1999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당시 국내외 관광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림 I-3] 역대 정부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

- 지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간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지난 4회에서 제시되었던 정책목표에서는 외래관광객, 고용창출, 관광수입이 고정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관광일수, 횡수 등 국내관광을 대표하는 정책지표들이 교차되어 활용되어졌음

<표 I-1> 제1차~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개요

구분	추진배경	정책목표																								
제1차(1999~2003)	○ 기존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의 하위 실천계획 ○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목표기간 : ~2003																								
		<table><tr><th>구분</th><th>목표</th><th>성과</th></tr><tr><td>외래관광객</td><td>700만명</td><td>475만명</td></tr><tr><td>고용창출</td><td>11.6만명</td><td>—</td></tr><tr><td>관광수입</td><td>120억\$</td><td>53.4억\$</td></tr><tr><td>해외관광객</td><td>450만명</td><td>709만명</td></tr><tr><td>관광GDP</td><td>8%</td><td>—</td></tr><tr><td>관광지출</td><td>50억\$</td><td>82.4억\$</td></tr><tr><td>관광수지</td><td>+70억\$</td><td>-29억\$</td></tr></table>	구분	목표	성과	외래관광객	700만명	475만명	고용창출	11.6만명	—	관광수입	120억\$	53.4억\$	해외관광객	450만명	709만명	관광GDP	8%	—	관광지출	50억\$	82.4억\$	관광수지	+70억\$	-29억\$
		구분	목표	성과																						
		외래관광객	700만명	475만명																						
		고용창출	11.6만명	—																						
		관광수입	120억\$	53.4억\$																						
		해외관광객	450만명	709만명																						
		관광GDP	8%	—																						
		관광지출	50억\$	82.4억\$																						
		관광수지	+70억\$	-29억\$																						

제2차(2004~2008)	○ 관광의 중요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점차 증대 ○ 유인력·경쟁력 저하, 관광인프라부실, 지역관광 자율적 성장역량 개선	○ 목표기간 : ~2008		
		구분	목표	성과
		외래관광객	1,000만명	689만명
		고용창출	330만명	-
		관광수입	100억\$	90억\$
		관광GDP	8%	-
		관광총량	6.5억일	4.1억일
		관광횟수	12회	6.1회
제3차(2009~2013)	○ 외래관광객 700만 명이 초과되고 지역별 관광개발사업 추진 ○ 외래관광객 증대, 관광수지 개선,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요구	○ 목표기간 : ~2013		
		구분	목표	성과
		외래관광객	1,100만명	475만명
		고용창출	170만명	-
		관광수입	150억\$	53.4억\$
		관광일수	16일	8.9일
		관광소비액	24조원	23조원
		경쟁력(WEF)	21위	25위
관광브랜드	29위	27위		
제4차(2014~2018)	○ 국정기조 수립(문화융성) ○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선순환구조의 확립, 관광산업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재정비	○ 목표기간 : ~2018		
		구분	목표	성과
		외래관광객	2,200만명	1724만명
		고용창출	150만개	-
		관광수입	330억\$	170억\$
		관광일수	15일	9.4일
		관광소비액	32조원	25조원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차별성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계획수립의 범위를 확장하여 타부처간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국민과 업계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형 정책계획으로써 기존 계획과 차별적으로 정책범위의 확장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추구함
- 새 정부의 국정가치를 반영하고 관광의 사회적 순기능을 최대한 모색하고자 함

제4절

계획 수행 체계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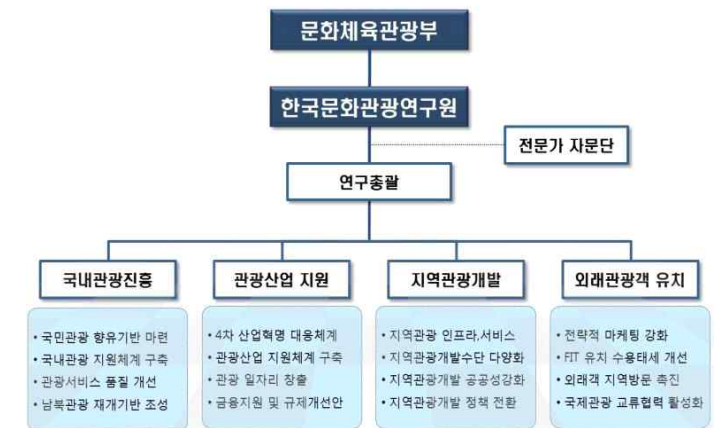
1 계획 수행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 및 세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실행력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분부는 관광정책의 방향 설정,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4개의 실무 분과와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국내관광진흥, 관광산업지원, 지역관광개발, 외래관광객 유치로 각각 구분하여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는 분과장을 비롯하여 분과위원, 분과간사로 각각 구성하여 해당분야의 정책을 개발함



[그림 I-4] 계획의 수행 체계

2

계획 수행 과정

-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료분석 및 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
- 본 계획은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정책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연구추진



[그림 I-5] 계획의 수행 과정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II

관광여건 변화와 전망

제1절 관광정책 환경분석

제2절 국내외 관광시장 현황 분석

제3절 해외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관광정책 환경분석

1 사회적 환경변화

☑ 높은 근로시간과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로 인한 일과 생활의 불균형 지속

-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실 근로시간이 약 2,080시간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근로시간인 1,760시간대보다 약 300시간이 높음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2,069시간으로 꾸준히 OECD 평균(1,763시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과 생활의 균형 지표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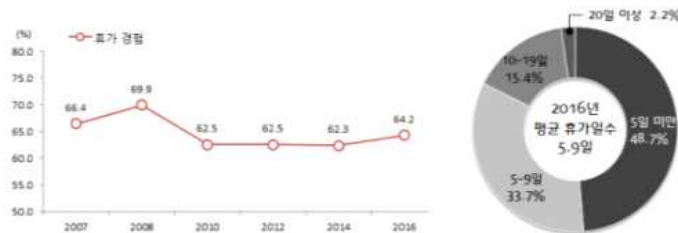
<표 II-1>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OECD)

(단위 : 시간)

한국	2012	2013	2014	2015	2016
순위	36위	36위	35위	35위	35위
시간	2,109	2,100	2,075	2,082	2,069
평균	1,770	1,765	1,764	1,766	1,763

자료: OECD(2016).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 통계청 일·가정양립지표('17)에 따르면 2016년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4.2%로 2014년(62.3%)보다 1.9%p 증가하였고, 평균 휴가일수는 5.9일로 나타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 II-1] 휴가 경향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07.19)에서는 국민의 '휴식 있는 삶'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 단축진행,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등 확산
 - 2022년까지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800시간대 (OECD기준) 근로시간 실현을 목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여가친화기업을 선정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을 장려하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이미지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여가의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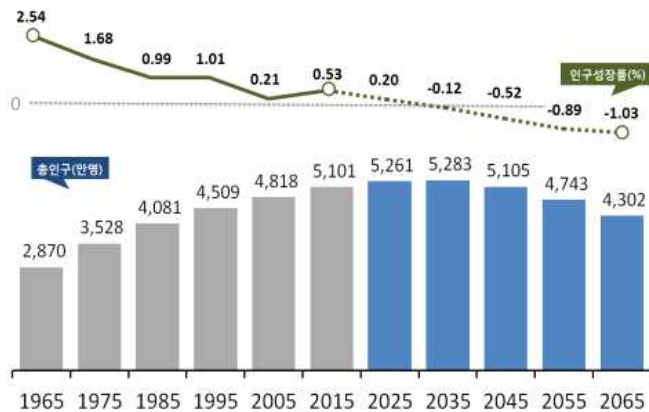
☑ 문화향유 인식변화와 여가활동 요구 증대로 '쉽'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문화·여가 활동이 보편화된 생활의 일부로 정착하면서 일과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국민여가활동조사('16)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빈도'질문에 대해서 매일 (64.5%)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활동 목적'으로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7.1%),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16.9%),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4.0%) 순으로 나타남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15)에서도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서 1위는 관광활동(38.3%), 2위는 문화예술 관람과 스포츠활동(12.2%)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의 삶에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조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국내 관광 수요창출 방안으로 하계휴가 분산, 가족여행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주간'을 신설하고 각종 할인 및 체험프로그램 추진
 -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 영화 공연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또한, 국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계층 간 체감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 문체부는 법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



☑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 저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 증가율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증가로 인해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로의 본격적 진입
 - * 인구 오너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6년 5,124만 명에서 2031년 5,296만 명까지 증가하나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 기록
 - 2016년 65세 이상 인구는 13.2%로, 2018년(14.3%) 고령사회, 2026년(20.8%) 초고령사회 도달 전망
 - * 65세 이상 인구비율 7%이상(고령화 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
- 2010~2015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5%로 한국이 세계의 절반이하 수준이며, 2030~2035년에 세계는 0.7%, 한국은 -0.1%수준이 될 전망(통계청, 2015)
- 국내 총인구는 203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진입, 본격적인 인구절벽시대에 돌입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2] 총인구와 인구 성장률

☑ 기초 단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과소화 현상 가속화

- 인구 과소화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 * (인구과소화) 지역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의 사회 시스템이 종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상태
- 최근 5년간 행정구역별 순 이동자 수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지속적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인구유입은 증가되는 상황
 - 특히 25~39세의 청년층 인구에서 집중적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발생하여 지역인구의 불균형 초래

<표 II-2> 최근 5년 행정구역별 순 이동자 수

(단위 : 명)

행정구역	2012	2013	2014	2015	2016
경기도	82,753	74,131	57,396	94,768	133,617
강원도	712	2,986	2,085	4,773	1,892
충청북도	4,641	3,113	2,367	1,438	5,011
충청남도	9,849	13,375	9,810	10,272	15,318
전라북도	-3,291	-2,197	-2,563	-2,830	-4,419
전라남도	-5,054	-2,306	-596	3,936	-3,205
경상북도	-4,860	-1,865	-988	-577	-3,151
경상남도	-2,772	3,794	6,075	5,105	1,772
제주특별자치도	4,876	7,823	11,112	14,257	14,632

자료: KOSIS(2016), 국내인구이동통계

- 국토교통부('16년)의 도시쇠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2,300개(65.9%)가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으로 확인됨
 -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지역사업',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된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등이 있음
- 인구과소화 지역은 청장년층의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재정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소득수준도 낮아질 우려
- 지역 인구과소 현상은 신규개발 감소, 지역 활력저하, 주거·교육·보건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유지의 어려움, 지방중소도시들의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2 기술적 환경변화

☑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인한 노동 사회 구조/구성의 변화

-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4차 산업혁명은 미래사회에 예견되고 있는 기술변화(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빅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등)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최근 나타나는 글로벌 저성장 경제기조 속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빠른 상업화가 진행 중
- 스위스 유니언뱅크(UBS)가 발표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적응 준비'순위에서 139개국 중 한국은 체코, 말레이시아 보다 낮은 25위 기록

<표 II-3> 4차 산업혁명 영향도 국가별 평가

구분		노동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SOC	법적보호	영향도
이용지표	순위	노동시장 효율성	고등교육 훈련	혁신	국가기반 시설기술 수용성	재산권 저작권 사법독립성	순위의 가중평균
스위스	1	1	4	1	4.0	6.75	3.4
싱가포르	2	2	1	9	3.5	9.00	4.9
미국	5	4	6	4	14.0	23.00	10.2
일본	12	21	21	5	12.0	18.00	15.4
한국	25	83	23	19	20.0	62.25	41.5
중국	28	37	68	31	56.5	64.25	51.4

자료: Union Bank of Switzerland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개별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인력 양성과 상용화를 위한 R&D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필요
- 또한, 단순직·인공지능 노동 등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공유경제와 같은 다양한 시장들이 등장하면서 신사업모델을 창출과 일자리 생성 등 노동구조의 다양한 변동이 예상됨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발전을 통한 서비스 산업구조의 변화

- 전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로 급속한 시장의 성장과 확대가 진행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6년 5조4000억 원에서 2020년 11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6).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그림 II-3] 인공지능(AI) 국내 시장 규모 추산

-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양성,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을 통해 다양한 가치 창출 필요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기업 해당 진출 및 투자 성과를 반영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재선정 작업과 지원필요
- 4차 산업혁명 R&D에 지원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효과로 인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4차 산업혁명 R&D 지원 부가가치 유발효과(0.64)로 1원을 투자했을 때 0.43원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며 기존 제조업(0.55)보다 크게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 2017)
- 문재인 정부는 지능화인프라·스마트이동체·융합서비스·산업기반의 4개 분야에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에 신재생에너지를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

☑ 교통수단 발전과 이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개편

- SRT 개통과 KTX 노선확장,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 연계 추진 예정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 네트워크/이동환경 개선
 - SRT 개통 이후 2017년 10월까지 총 1천만 명 이용하였으며 KTX의 노선 확대(평창올림픽 기간 서울-강릉)



자료 : 국토교통부(201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그림 II-4] 전국 고속철도 운행노선

- 고속철도 영향권 외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주변연계교통시스템 구축과 통일 대비를 위한 경기북부 노선연장확장에 대한 고려 필요
- 서울, 수도권, 각종 혁신도시 등이 갖고 있던 다양한 기능을 지방으로의 이전이 쉬워지면서 인적·물적 교류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지역 간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인구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트렌드가 전환됨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의 발달은 지역의 관광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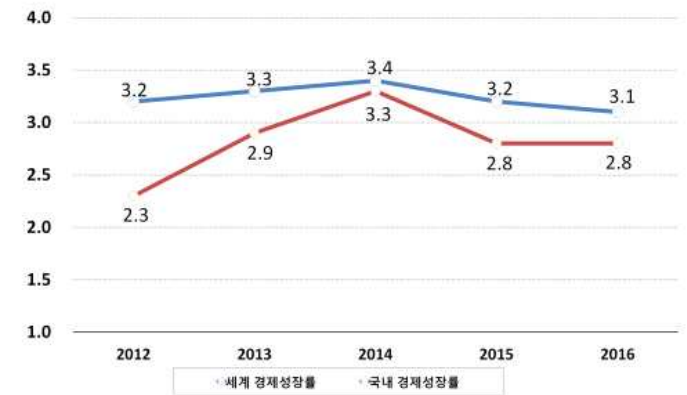


3

경제적 환경변화

☑ 저성장경제 지속에 따른 국민 경제활동의 축소

- 글로벌 금융위기(2008)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브렉시트, 트럼프 노믹스의 등장 등 세계 경제 변동성 확대
-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경기침체로, 제조업·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요구
 - 최근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0년 5.1%에서 2016년 3.1%로 하락



자료 : IMF(2016),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한국은행(2016), 경제성장률

[그림 II-5] 세계 경제 성장률 및 무역 증가율

- 국내경제는 2012년 이후 2%대 경제성장률에 머무르며 성장률이 둔화되고 2015년 이후 시작된 국내 경기의 투자주도 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낮아진 투자활력으로 경제성장세의 저하 지속 전망
- 또한, 급진적 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가계 기대소득이 감소하고 위축된 소비심리에 따른 내수부진 우려



☑ 높은 청년실업률 유지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시대 돌입

- 전 세계적으로 완만하게 낮아진 경제성장속도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청년고용 사정의 악화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제시
 - 국내 15-29세의 생산가능 인구 중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18.9%로 OECD 가입국 중 7위를 나타내고 있음
- 2016년 소득분배지표(통계청, 2017)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일제히 악화되며 소득양극화 심화
-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에 더욱 집중됨
 - '16년 국내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 상승하였으며, 특히 실업률은 25-29세(17.4%)와 60세 이상(10.8%)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 폭을 보이며 전년대비 3만 6천명 증가한 101만 2천명 기록

<표 II-4>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만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업자(만 명)	82.0	80.7	93.7	97.6	101.2
전년대비증감	(-3.5)	(-1.3)	(13.0)	(4.0)	(3.6)
실업률(%)	3.2	3.1	3.5	3.6	3.7
15-29세	(7.5)	(8.0)	(9.0)	(9.2)	(9.8)
25-29세	(6.6)	(7.1)	(8.3)	(8.1)	(9.2)

자료: 통계청(2016), 고용동향

- 청년고용의 문제는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등 청년 일자리의 질적 악화는 청년 고용의 문제의 핵심 문제



자료: 통계청(2017), 소득분배지표

[그림 II-6]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추이

4

생태적 환경변화

☑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악화에 따른 국제적 환경대응 전개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 및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 및 피해 발생
- UNWTO에서는 UN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수립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략을 관광개발 기조로 활용
 - 세계경제포럼('17)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발생을 주요 이슈로 제시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큰 사인은 대기오염으로 초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임
 -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축소, 탄소저감 등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결의
 - * 한국: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 제시
-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써 파리협정에 따라 신규로 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상쇄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의 확대 시행 전망
-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스모그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 대두
 - OECD('16)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 환경부문에 따르면 한국 평균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29.1\mu\text{g}/\text{m}^3$ 로 OECD평균($14.05\mu\text{g}/\text{m}^3$)의 두 배 이상으로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경쟁력평가('17) 종합 19위에 비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분야에서 130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수준을 기록
 -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17.09)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미세먼지 오염배출량의 30% 감소를 목표
-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오염의 경우 국지적·소극적 대응으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갈수록 악화되는 오염수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5

정치적 환경변화

☑ 북한 핵실험 및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 지속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실험 등 한반도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표 II-5> 남북간 주요 성명·선언문 요약

일시	사건	UN 결의안	주요 내용
1993.03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825호	북한의 NPT 탈퇴선언 제고 촉구
2006.07	ICBM(대포동2호) 발사	1695호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
2006.10	제1차 핵실험	1718호	북한 핵, 대량살상 무기, 미사일 개발 금지, 북한 지원자금 금융, 경제적 지원 동결
2009.05	제2차 핵실험	1874호	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검색, 금융 및 경제체제
2012.12	ICBM(은하3호) 발사	2087호	제재 대상의 확대, 금융기관 감시, 공해상 의심선박 검색강화, 대량현금 이용수법 환기, 대북수출 통제 강화
2013.02	제3차 핵실험	2094호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 개발, 수출에 관여하는 기관 추가, 항공기 운항 및 금융거래 강화
2016.01	제4차 핵실험	2270호	달러화, 물품유입 등 차단, 무기거래, 항공 해상 운송제한,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금융거래 제한
2016.09	제5차 핵실험	2321호	석탄 수출액이나 규모에 상한선 등 수출 규제
2017.05	ICBM급 발사	2356호	거래제한 블랙리스트 추가(기관4, 개인14)
	계속된 ICBM급 발사 대응	2371호	ICBM강력규탄/중단, 핵포기, 수출 전면금지, 수산물 수출금지, 노동자 송출동결, 블랙리스트 추가, 회원국항공입항금지, 신규합작투자금지

-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16. 7) 후 중국은 방한금지 조치를 실행하는 등 한중관계 악화, 한·일 외교 갈등 등과 같은 국가적 제재와 갈등이 지속
 -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방한금지에 따른 관광분야 피해액은 약 13조 원으로 예상
 -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의교장관 회담취소('13.4),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한일관계에 대한 우호적 관계는 불투명한 상황 전개
- 국가 간 갈등은 군사적 긴장을 넘어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는 위기 상황으로 이에 즉각적인 대응시나리오를 통한 상황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중국인 관광객 중심의 외국인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민 국내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단계적 남북관광 활성화 접근 모색 필요

☑ 글로벌 테러 및 질병 위협으로 인한 국가 안전 대책 준비 요구

- 2012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글로벌 테러와 각종 사고로 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IEP, 2016)
 - 중동 및 유럽지역부터 최근 아시아지역까지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테러 위험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관광객의 테러 위험 노출 확대
- 테러발생이 주로 방문객이 많은 유명 지역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일어나면서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며 국민 해외관광객들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파리테러('15.11), 자카르타 테러('16.01), 이집트 항공여객기 추락사고('16.05), 이스탄불 공항테러('16.06), 니스테러('16.07), 푸켓 폭발테러('16.08) 등
- 경제적·심리적 파급효과가 큰 전염병의 위협은 세계적으로 관광수요가 위축되고 국내 내수경제 침체, 국민 불안 고조 등을 야기
 - 최근 세계적 전염병 위협 :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09), 에볼라 바이러스('14), 메르스('15), 지카바이러스('16) 등

☑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비중 증대

-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고자 함
- 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립성장을 지원하며 관광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관광정책 및 개발의 활성화, 관광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예산, 순계)는 193조 1,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8조 5,707억 원)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
 -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전년대비 1.2%p 향상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83.3%)와 세종특별자치시(70.5%)를 제외하고, 울산이 64.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1.2%로 가장 낮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안산시가 72.2%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전남 신안군이 8.6%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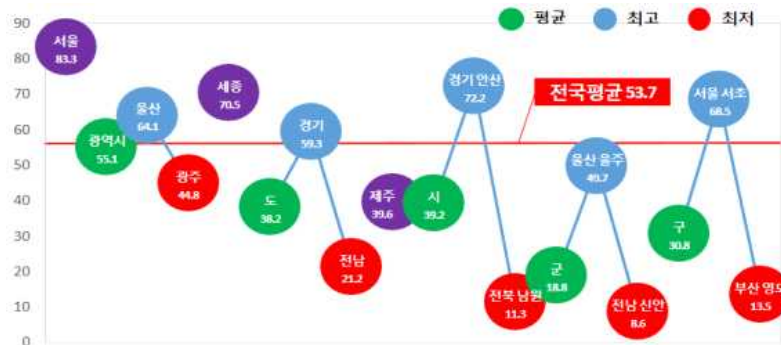
- 재정집행 자율권의 측정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4.9%로 전년대비 0.7%p 향상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84.0%)와 세종특별자치시(80.1%)을 제외하고, 인천이 70.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5.4%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7.0%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8.8%로 가장 낮음

<표 II-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평균	전국평균 53.7							
	광역자치단체 51.7				기초자치단체 32.0			
	83.3	55.1	70.5	38.2	39.6	39.2	18.8	30.8
최고	서울 83.3	울산 64.1	세종 70.5	경기 59.3	제주 39.6	경기 안산 72.2	울산 울주 49.7	서울 서초 68.5
최저		광주 44.8		전남 21.2		전북 남원 11.3	전남 신안 8.6	부산 영도 13.5

출처 : 행정자치부(2017). 2017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p.271

※ 작성기준 : 일반회계를 대상, 전국평균 및 사·도별 평균은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총계예산 규모로 기준



6

종합분석 및 시사점

- ☑ 관광진흥을 위한 전략수립에 앞서 거시적 환경분석(STEEP)체계를 따라 향후 전망되는 트렌드를 분석하며 관광분야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표 II-7> 관광 정책환경 종합분석

구분	환경변화	대응방안
사회적 요인 (S)	• 높은 근로시간과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로 인한 일과 생활의 불균형 지속	• 관광을 통한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문화향유 인식변화와 여가활동 요구 증대로 '섬'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개인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일상에서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 청년층의 관광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년층 여가활동 발굴
	• 기초 단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과소화 현상 가속화	•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 소득향상, 인구유입 등을 촉진, 유흥공간 활용방안 마련
기술적 요인 (T)	•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인한 노동 사회 구조/구성의 변화	• 새로운 관광산업 모델을 발굴 · 확산시키며 관광 산업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발전을 통한 서비스 산업구조의 변화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비스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산업 발전 유도
	• 교통수단 발전과 이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토 공간구조의 개편	• 이동시간 감소에 따른 지역관광 방문횟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경제적 요인 (E)	• 저성장경제 지속에 따른 국민 경제활동의 축소	• 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방안 모색
	• 높은 청년실업률 유지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시대 돌입	•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소득격차 완화 유도
환경적 요인 (E)	•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악화에 따른 국제적 환경 대응 전개	• 대기환경 악화에 따른 관광행태 변화를 예측하여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노력
정치적 요인 (P)	• 북한 핵실험 및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 지속	• 국가간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관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노력 필요
	• 글로벌 테러 및 질병 위협으로 인한 국가 안전 대책 준비 요구	• 질병 ·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한국관광 이미지 구축 및 관광객 안전확보 방안 마련
	•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비중 증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제2절

국내·외 관광시장 현황 분석

1

국제 관광시장

☑ 신종경제국 여행객 증가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관광시장의 강세

-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 관광객 수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2억 35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2016년 동안 연평균 약 4.5% 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관광객 수는 2020년 14억, 2030년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국제관광시장은 아시아·태평양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전 세계 관광객 중 57%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됨
- 대륙별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유럽지역은 6억 1,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년 대비 2.1%의 성장세를 보이며 1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3억 860만 명, 미주는 2억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관광객 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7.2% 성장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륙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표 II-8> 연도별/지역별 세계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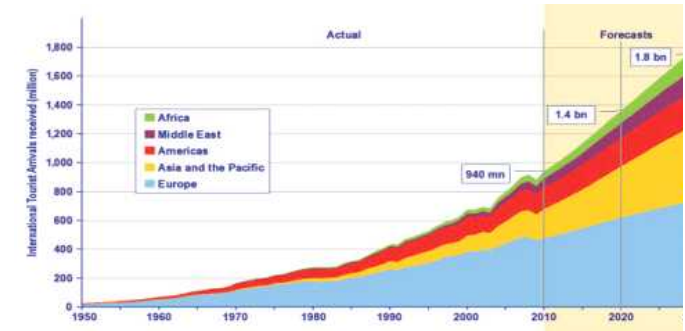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

구분	관광객 수					성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연평균
전세계	1,035	1,087	1,137	1,189	1,235	3.9	4.5
유럽	534.4	563.4	575.6	602.6	615.0	2.1	3.6
아시아·태평양	233.5	248.1	269.5	284.1	308.6	8.6	7.2
미주	162.7	167.9	181.9	192.7	200.2	3.9	5.3
아프리카	52.9	55.8	55	53.4	57.8	8.2	2.2
중동	51.7	51.6	55.4	55.9	53.6	-4.0	0.9

자료 : UNWTO 각 년도, UNWTO Tourism Highlights

* 2016은 잠정치임.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자료: UNWTO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p.14

[그림 II-7] 2030년 국제관광객 수 전망

☑ 전 세계 관광수입의 지속적인 성장/증가 추세

- 세계관광시장의 관광수입 규모는 2012년 이후 1조 780억 달러에서 2016년 1조 2,200억 달러로 연평균 3.1%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 관광객 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함
- 미주 지역의 경우 관광수입이 5년간 10.1%의 빠른 성장을 보이며 관광객 수 성장률의 약 두 배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관광수입은 관광객 수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기준 세계 관광수입의 30.1%를 차지하며 주요 관광시장으로 부상

<표 II-9> 연도별/지역별 세계 관광수입

(단위: 십억 달러(US\$), %)

구분	관광수입					성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16*/15	연평균
전세계	1,110	1,197	1,252	1,196	1,220	2.0	2.4
유럽	454.0	489.3	513.7	449.6	447.3	-0.5	-0.4
아시아·태평양	329.1	358.9	359.0	349.4	366.7	5	2.7
미주	212.9	229.2	288.9	305.6	313.2	2.5	10.1
아프리카	34.3	34.2	36.5	32.8	34.8	6.1	0.4
중동	47.5	47.3	53.6	58.2	57.6	-1.0	4.9

자료 : UNWTO 각 년도, UNWTO Tourism Highlights

* 2016은 잠정치임.



2 국내 관광시장

가. 국민 국내관광

☑ 지속적이지만 완만해지는 국민 국내여행 증가율

- 지난 5년간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참가횟수, 총비용, 이동총량은 모두 소폭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성장률은 완만해지는 경향
 - 2016년 국내 관광 참가자 수는 3,929만 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 국내여행 전국민 참가횟수는 2억 4,175만 회로써 전년대비 1.4% 증가 하였으며 2012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 총비용은 25조 7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6%의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7.5%가 증가함
 - 2016년 우리나라 전 국민은 4억 1,200만 일 동안 국내여행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대비 12.9%가 증가하여 참여횟수와 유사한 성장추세
- 국민여행 총량은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반적으로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내여행의 참가횟수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13.2%가 증가하였으며 이동총량도 12.9%의 유사한 성장률이 나타남

<표 II-10> 국민 국내여행 총량(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참가자수	만 명	3,691	3,780	3,805	3,830	3,929
	성장률	-	2.4	0.7	0.7	2.6
참가횟수	천 회	213,468	231,034	227,815	238,300	241,750
	성장률	-	8.2	-1.4	4.6	1.4
총비용	조 원	23.9	23.2	24.9	25.3	25.7
	성장률	-	-2.9	7.3	1.6	1.6
이동총량	억 일	3.65	3.89	3.98	4.06	4.12
	성장률	-	6.6	2.3	2.1	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 국민 국내여행 1인당 여행규모의 성장과 1회당 지출비용의 하락

- 국민여행 1인당 평균 여행일수와 비용에서도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에는 9.39회 동안 58만 6,495원을 지출함
 - 국민 1인당 여행일수는 지난 5년간 약 1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비용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회 평균 여행 지출액은 2016년 10만 6,509원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1만 7천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우리나라 총 여행 지출액은 25.7조원 규모로 참가횟수, 이동총량과 함께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1회당 여행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여행 총 지출액의 증가는 그간 참가횟수와 이동총량이 동반성장으로 인한 효과지만 회당 지출액이 감소하여 더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함

<표 II-11> 국민 국내여행 1인/1회당 패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인당 평균 여행일 수	8.43	8.90	9.03	9.34	9.39
1인당 평균 여행비용	551,457	531,576	563,735	582,770	586,495
1회 평균 지출액	123,725	109,751	110,255	106,571	106,5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 여행목적 및 시기 등 국내관광 패턴 지속

- 국민여행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까지 가족/친척/친구 방문이 주된 국내 숙박여행의 목적이었지만 2015년부터 여가/위락/휴가를 목적으로 한 국내여행이 1위로 나타나 국내여행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숙박 여행시 관광지 활동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자연/풍경감상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국민 국내여행객들의 여행목적이 음식관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중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여행 시기에 있어서 주말의 비중이 66.6%에서 55.3%로 1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공휴일의 여행비중이 2016년에는 12.1%로 나타남
 - 2014년에는 공휴일을 이용한 여행시기가 8.7%의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간 1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2> 국민 국내여행의 주요 행태변화(2012~2016)

(단위: %, 일,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숙박여행 목적	가족/친지/친구 방문 48.8	가족/친척/친구 방문 47.9	가족/친척/친구 방문 47.0	여가/위탁/휴가 48.4	여가/위탁/휴가 48.9
	여가/위탁/휴가 45.0	여가/위탁/휴가 46.8	여가/위탁/휴가 46.8	가족/친척/친구 방문 45.8	가족/친척/친구 방문 45.5
숙박 관광지활동 (상위2위)	자연/풍경감상 29.6	자연/풍경감상 30.1	자연/풍경감상 29.6	자연/풍경감상 28.6	자연/풍경감상 28.7
	휴식/휴양 19.3	휴식/휴양 16.4 음식관광 16.4	음식관광 19.0	음식관광 18.5	음식관광 18.6
여행시기	주말 66.6	주말 70.9	주말 61.6	주말 62.4	주말 55.3
	주중 51.5	주중 65.9	주중 58.5	주중 55.6	주중 43.2
	명절 13.4	명절 12.9	설날/추석 12.1	설날/추석 11.8	공휴일 12.1
	휴가/방학 4.3	휴가/방학 5.2	공휴일 8.7	공휴일 8.9	설날/추석 1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 부족한 여가 시간과 비용문제가 제약받는 국민국내관광

- 국내여행을 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지난 5년간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이 고정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 ‘경제적 여유 부족’, 3위 ‘건강상의 이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족한 여가시간과 비용문제가 국내관광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상의 이유 또한 주요 제약요인으로 나타남

<표 II-13> 국내 관광 제약 요인(2012~2016)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1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7.1)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7.4)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2.1)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8.5)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6.5)
2	경제적 여유 부족(33.8)	경제적 여유 부족(34.9)	경제적 여유 부족(21.6)	경제적 여유 부족(20.1)	경제적 여유 부족(27.0)
3	건강상의 이유(6.9)	건강상의 이유(7.6)	건강상의 이유(21.1)	건강상의 이유(17.6)	건강상의 이유(15.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나. 국민 해외관광

☒ 꾸준히 높아지는 국민 해외여행 증가율

- 국민 해외관광객은 2012년 1,373만 명에서 2016년 2,238만 명으로 늘어나며 연평균 13%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특히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20.1%가 증가하며 국민 해외여행의 수가 집중적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에도 전년대비 15.9% 증가

<표 II-14> 국민 해외 관광객 수 (2012~2016)

(단위: 천명)

년도	국민 해외 관광객수	증감율(%)
2012	13,736	8.2
2013	14,846	8.1
2014	16,080	8.3
2015	19,310	20.1
2016	22,383	15.9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각 년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국관광통계

- 주요국으로의 한국인 출국통계를 살펴보면, 일본으로의 출국이 2016년 509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그 뒤로 중국, 태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5> 주요국으로의 한국인 출국통계(2012~2016)

(단위: 명, %)

구분	연도별 출국인수					증감율 연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	4,069,900	3,969,000	4,181,800	4,444,400	4,762,200	3.0%
일본	2,042,775	2,456,165	2,755,313	4,002,095	5,090,382	25.6%
태국	1,163,619	1,295,342	1,116,493	1,372,989	1,464,218	5.9%
미국	1,251,432	1,359,924	1,449,538	1,764,871	1,973,882	12.1%
홍콩	1,078,458	1,083,543	1,251,047	1,243,293	1,392,367	6.6%
필리핀	1,031,155	1,165,789	1,175,472	1,339,678	1,475,081	9.4%
싱가포르	445,157	471,768	536,975	577,082	566,503	6.2%
베트남	700,917	748,727	832,969	1,152,349	1,543,883	21.8%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7), 주요국 한국인 출국통계(2017.09.18. 기준)



다. 외래관광객의 국내관광

☑ 질병·국가간 분쟁 등에 따른 관광시장의 안정 도모

- 2016년까지 방한 외래관광객은 1,72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일시적 감소와 2017년 사드배치에 따른 방한 중국관광객 급감
- 2016년에는 메르스에 대한 기저효과로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드분쟁으로 인한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라 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22.7% 감소한 1,336만 명으로 나타남

<표 II-16> 연도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2012~2017)

(단위: 명, %)

구분	방한 외래관광객 수	증감율(%)
2012	11,140,028	13.7
2013	12,175,550	9.3
2014	14,201,516	16.6
2015	13,231,651	-6.8
2016	17,241,823	30.3
2017	13,335,758	-22.7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각 년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은 2010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광객수 증가와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는 약 17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MERS의 영향으로 약 15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약 171억 달러를 기록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각 년도, 방한 외래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그림 II-8]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2012~2016)

☑ 아시아권 국제 여행객에 대한 인바운드 시장의 높은 의존도

-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2016년 기준 아시아권 국가 비중이 83.89%로 아시아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음
 -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수요의 1위인 중국과 2위인 일본의 관광객 수는 전체 인바운드 수요의 60.1%를 인접국에서 충당하고 있음
- 20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서 일본 방한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중국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짐
-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관광산업의 특성상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외부충격 발생 시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관광 경쟁력 확보 필요/ 인바운드 유치 시장의 다변화 필요

<표 II-17> 연도×주요국적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2012~2016)

(단위: 명, %)

국적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성비('16)
아시아주	8,887,132	9,848,070	11,708,565	10,799,355	14,464,300	83.89
중국	2,836,892	4,326,869	6,126,865	5,984,170	8,067,722	46.79
일본	3,518,792	2,747,750	2,280,434	1,837,782	2,297,893	13.33
대만	548,233	544,662	643,683	518,190	833,465	4.83
홍콩	360,027	400,435	558,377	523,427	650,676	3.77
필리핀	331,346	400,686	434,951	403,622	556,745	3.23
태국	387,441	372,878	466,783	371,769	470,107	2.73
중동	122,191	130,517	155,219	168,384	193,593	1.12
미주	876,149	915,622	974,021	974,153	1,116,157	6.47
미국	697,866	722,315	770,305	767,613	866,186	5.02
구주	717,315	768,185	848,530	806,438	942,673	5.47
대양주	166,304	160,047	177,934	168,064	190,547	1.11
아프리카주	41,236	43,414	44,053	44,525	57,326	0.33
기타	329,701	309,695	293,194	270,732	277,227	1.61
전 체	11,140,028	12,175,550	14,201,516	13,231,651	17,241,823	100



☑ 쇼핑, 음식관광에 집중된 외래관광객 관광 활동

- 방한 외래 관광객의 방문목적은 여가/위락/휴가 목적(5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업/전문활동(15.0%), 쇼핑(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주요 활동 순위는 쇼핑(75.7%), 식도락 관광(51.0%), 자연경관 감상(28.6%),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8> 외래관광객 방문 목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여가/위락/휴가	43.9	48.2	58.1	56.6	59.8
사업/전문활동	24.5	23.4	19.9	18.7	15.0
쇼핑	11.8	10.6	10.0	10.0	12.7
친구/친지방문	11.1	9.7	6.5	9.1	7.4
교육	6.5	5.9	3.6	3.6	4.0
뷰티/건강/치료	1.1	1.0	1.0	1.1	0.6
종교/순례	1.1	1.0	0.9	0.7	0.4
기타	0.1	0.1	0.1	0.0	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고착화되는 서울, 제주지역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방문 편중 현상

-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문 권역은 서울권이 78.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제주권(20.2%), 경기권(13.1%), 경상권(12.5%) 등의 순임
- 방문지역의 편중으로 인해 인바운드 시장의 성장이 우리나라의 지역관광활성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며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산 방안 마련 필요

<표 II-19> 외래관광객 방문 권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권	82.5	80.9	80.4	78.7	78.0
제주권	12.0	15.6	18.0	18.3	20.2
경기권	21.3	17.9	13.0	13.3	13.1
경상권	16.1	16.7	10.8	13.0	12.5
강원권	9.7	9.2	7.1	6.4	6.4
인천권	7.7	7.8	5.0	6.8	6.2
충청권	4.1	3.8	2.4	3.0	2.5
전라권	4.1	4.0	2.8	3.4	2.2
기타	0.3	0.6	0.2	0.1	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3

관광산업 현황분석

☑ 관광사업체 수,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증가

- 2016년 관광사업체 수는 27,696개로 2012년과 대비하여 46.3%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관광사업체 통계는 관광진흥법상 허가·등록·지정·신고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통계를 생산하여 매년 보고되고 있음
 -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총 7개의 대분류를 나누고 세부업종들을 규정함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업종의 추가, 업종삭제 및 관광진흥법 내에서의 업종변동이 야기되고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2014년 폐지되어 업종이 삭제되었으며, 일반야영장업('15), 관광면세점업('16)은 신규업종으로 추가되었음

<표 II-20> 연도별 세부 업종별 관광사업체 수 추이(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여행업	일반여행업	2,136	2,291	2,865	3,330	16,605
	국외여행업	3,891	3,485	3,587	4,067	4,265
	국내여행업	1,915	1,691	1,936	2,876	4,572
	국내·외 여행업	4,496	4,255	4,466	4,334	3,000
	소계	12,438	11,722	12,854	14,607	4,768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777	719	831	915	1,038
	기타호텔업	107	158	243	373	428
	휴양 콘도미니엄업	189	197	204	215	250
	소계	1,073	1,074	1,278	1,503	1,716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 및 종합휴양업	77	84	93	74	85
	일반야영장업	-	-	-	872	1,302
	자동차야영장업	20	54	189	228	297
	관광유람선업	42	39	43	35	30
	관광공연장업	10	6	11	4	3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204	202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28	589	890	1,334	1,451
	소계	353	385	336	1,213	3,168



국 제 회의업	국제 회의 시설업	11	13	16	11	10
	국제 회의 기획업	474	495	661	608	690
	소계	485	508	677	619	700
유 원 시설업	카지노업	17	16	17	17	17
	종합 유원시설업	38	38	49	39	39
	일반 유원시설업	236	259	284	325	360
	기타 유원시설업	115	61	260	696	1,383
관 광 편의 시설업	소계	389	358	593	1,060	1,782
	관광 유흥 음식점업	108	75	34	6	10
	관광 극장 유흥업	155	147	152	106	94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369	339	415	454	440
	관광식당업	2,194	2,012	2,119	1,386	1,476
	시내 순환관광업	30	33	42	48	52
	관광사진업	18	17	14	12	13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20	18	17	1	2
	관광펜션업	333	366	386	391	406
	관광캐도업	14	15	18	9	9
	한옥체험업	602	767	927	1,108	1,188
	관광면세업	-	-	-	-	18
	소계	4,171	4,378	5,014	4,855	3,708
	합계	18,926	18,441	20,769	23,874	27,69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7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조사하여 26만 명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표 II-21>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백 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여행업	69,990	70,574	69,400	84,558	98,421
관광숙박업	70,803	63,899	67,465	70,305	73,631
관광객 이용시설업	11,882	13,528	10,671	11,065	17,421
국제회의업	13,599	14,092	17,330	15,131	12,596
카지노업	7,422	8,452	8,931	9,418	9,115
유원시설업	14,386	14,441	17,031	17,224	23,683
관광 편의시설업	41,576	42,150	39,506	27,902	27,110
합계	229,658	227,135	230,334	235,604	261,97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 낮은 종사자·업종별 매출액으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영세성 지속

- 최근 5개년간 관광사업체 전체 매출액의 매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은 감소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은 증가하였음

<표 II-22> 연간 총 매출액 추이

(단위: 백 만원, %)

구분	연간 총 매출액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여행업	5,909,063	5,798,802	5,321,988	6,472,575	7,642,672	6.6
관광숙박업	7,056,942	7,085,528	7,930,628	7,859,586	8,268,323	4.0
관광객 이용시설업	1,901,977	2,166,797	814,120	789,116	885,160	-17.4
국제회의업	2,297,493	2,408,318	2,442,369	1,760,254	1,837,698	-5.4
카지노업	2,460,353	2,631,044	2,799,221	2,804,413	2,903,309	4.2
유원시설업	1,181,948	1,324,103	1,498,173	1,538,658	1,929,240	13.0
관광 편의시설업	2,747,202	1,874,445	1,760,749	1,133,617	1,569,612	-13.1
합계	23,554,978	23,289,037	22,567,247	22,358,220	25,036,015	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우리나라 관광사업체는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 및 종사자당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 관광사업체 1개소 평균 매출액은 9억 4백만원 수준이며 업종별로 카지노업(1,708억 원), 관광숙박업(48억 18백만원)에서 여행업(4억 60백만원), 관광편의시설업(4억 23백만원), 관광객 이용시설업(2억 79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관광사업체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에 있어서도 1인당 94백만원 수준으로 업종별로는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여행업, 관광숙박업이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은 2천~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도시 중심의 관광사업체 편중현상

- 지역별 관광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8,406개로 전체 관광사업체의 35.2%가 분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3,174개, 13.3%), 제주(1,439개, 6.0%), 부산(1,400개, 5.9%)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23> 2016년 지역별 관광사업체수

(단위 : 개)

구 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여행업	일반여행업	4,265	2,678	152	92	97	80	74	18	2
	국외여행업	4,572	2,763	320	88	102	64	69	24	9
	국내여행업	3,000	644	201	107	80	72	63	32	8
	국내·외여행업	4,768	911	440	343	126	219	194	114	10
관광 숙박업	관광호텔업	1,038	302	80	19	76	17	22	12	0
	기타호텔업	428	52	29	2	37	1	1	2	0
	휴양콘도미니엄업	250	0	5	0	2	0	0	0	0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 및 종합휴양업	85	3	2	1	1	0	2	0	0
	일반야영장업	1,302	4	10	6	28	1	2	5	2
	자동차야영장업	297	1	1	3	6	1	4	6	1
	관광유람선업	30	2	3	0	5	0	0	0	0
	관광공연장업	3	2	1	0	0	0	0	0	0
국제 회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1,451	872	124	29	68	28	4	4	2
	국제회의시설업	10	1	1	1	0	1	0	0	0
국제 회의업	국제회의기획업	690	464	48	26	7	16	30	3	2
카지노업		17	3	2	1	1	0	0	0	0
유원 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39	4	0	2	0	1	1	0	0
	일반유원시설업	360	18	16	14	15	4	3	8	0
	기타유원시설업	1,383	108	158	48	48	20	54	45	12
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10	3	0	1	0	0	1	0	0
	관광극장유희업	94	23	5	2	2	1	3	2	0
	외국인 유희음식점업	440	7	17	42	2	4	2	29	0
	관광식당업	1,476	449	114	65	136	42	65	40	0
	관광순환버스업	52	4	2	5	2	2	0	1	0
	관광사진업	13	8	1	0	0	0	0	0	0
	여객자동차 시설업	2	0	0	0	0	0	0	0	0
	관광펜션업	406	0	1	0	8	0	0	4	0
	관광캐도업	9	0	0	2	0	0	0	0	0
	한옥체험업	1,188	129	1	17	9	9	1	2	0
	관광면세업	18	2	7	1	1	0	1	1	0
	관광면세업	18	2	7	1	1	0	1	1	0

<표 II-22> 2016년 지역별 관광사업체수 (표계속)

(단위 : 개)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여행업	일반여행업	366	61	37	26	89	56	45	69	323
	국외여행업	607	60	40	73	104	60	62	82	45
	국내여행업	317	102	63	65	90	139	147	113	757
	국내·외여행업	603	157	194	200	273	229	273	374	108
관광 숙박업	관광호텔업	139	45	22	19	32	56	44	46	107
	기타호텔업	6	16	3	3	8	78	15	25	150
	휴양콘도미니엄업	18	87	7	16	8	9	16	19	63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 및 종합휴양업	15	7	7	10	4	3	10	5	15
	일반야영장업	316	300	95	105	73	78	130	106	41
	자동차야영장업	42	58	21	28	18	24	32	50	1
	관광유람선업	0	3	0	2	4	2	1	8	0
	관광공연장업	0	0	0	0	0	0	0	0	0
국제 회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102	20	5	3	115	20	28	27	0
	국제회의시설업	1	2	0	0	1	0	1	1	0
국제 회의업	국제회의기획업	39	11	4	2	6	1	11	17	3
카지노업		0	2	0	0	0	0	0	0	8
유원 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9	6	0	5	0	2	3	5	1
	일반유원시설업	77	38	18	32	20	38	20	21	18
	기타유원시설업	385	39	45	63	32	61	89	164	12
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2	1	0	0	1	0	0	1	0
	관광극장유희업	21	5	1	4	4	5	4	9	3
	외국인 유희음식점업	187	9	3	7	18	2	35	54	22
	관광식당업	297	28	12	20	54	6	10	35	103
	관광순환버스업	4	13	0	0	1	4	5	8	1
	관광사진업	1	0	0	0	0	0	0	0	3
	여객자동차 시설업	0	0	1	0	0	0	1	0	0
	관광펜션업	37	73	12	69	29	47	62	64	0
	관광캐도업	1	2	0	0	1	2	1	0	0
	한옥체험업	28	31	26	29	216	297	333	60	0
	관광면세업	1	1	1	0	0	1	0	1	0

- ☒ 국제 및 국내 관광시장(국민 국내관광, 국민 해외관광, 외래객 국내관광), 관광산업의 현황을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표 II-24> 관광시장 종합분석

구분	환경변화	대응방안
국제 관광시장	• 신종경제국 여행객 증가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관광시장의 강세	• 국제관광객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대응방안 및 제3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전 세계 관광수입의 지속적인 성장/증가 추세	• 외래 관광객들의 국내 지출유도를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어트렉션 및 상품개발 촉진
국내 관광시장	• 지속적이지만 완만해지는 국민 국내여행 증가율	• 국민들의 국내 여행 일수 및 횟수 증가를 위한 휴가문화 조성 및 지역관광상품 개발
	• 국민 국내여행 1인당 여행규모의 성장과 1회당 지출비용의 하락	•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여행객 지출규모 확대
	• 여행 목적 및 시기 등 국내관광 패턴 지속	• 휴가사용문화 개선을 통한 여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패턴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 강구
	• 부족한 여가 시간과 비용문제로 제약받는 국민 국내관광	• 대체공휴일 도입 및 휴가문화 개선을 통해 여가 시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지원
	• 꾸준히 높아지는 국민 해외여행 증가율	• 국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여행 유도 및 관광객 안전확보 방안 마련
	• 질병 및 국가간 분쟁 등에 따른 관광시장의 안정 도모	• 질병안전대책을 통한 외래관광객 불안감 해소 및 시장다변화 정책 모색
	• 아시아권 국제 여행객에 대한 인바운드 시장의 높은 의존도	• 아시아권 이외 중동, 미주 등 시장확장 전략을 통한 다변화 정책 모색
	• 쇼핑, 음식관광에 집중된 외래관광객 관광 활동	• 외래관광객을 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 고착화되는 서울, 제주지역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방문 편중 현상	• 지역관광 자원개발, 교통편의 향상 등을 통한 지역분산정책 도모
	• 관광사업체 수,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증가	•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시장안정화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관광산업	• 낮은 종사자-업종별 매출액으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영세성 지속	• 특정 업종의 영세성으로 인한 산업내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주요도시 중심의 관광사업체 편중현상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사업체 창업 유도방안 마련

제3절

해외 정책 사례 분석

가.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개요

- ☒ 일본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07)을 근거로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제1차 계획('07~'11), 제2차 계획('12~'16)에 이어 2017년에 4개년 계획('17~'20)을 수립함
-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개정안은 2016년 10월 교통정책심의회 관광분과회에서 논의된 후, 2017년 2~3월에 개정기본계획안이 완성되었으며 3월에 확정됨

<표 II-25>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 목표(~2020년)

구분	지표	기본계획 목표 (목표연도: 2020년)*	구 기본계획 목표 (목표연도: 2016년)
국내 관광	① 국내여행 소비액	21조엔 20.4조엔(15) → 20.9조엔(16)	숙박 18조엔, 당일여행 6.5조엔
	② 방일 외국인관광객 수	4,000만명 1,974만명(15) → 2,404만명(16)	1,800만명
	③ 방일 외국인관광객 소비액	8조엔 3.5조엔(15) → 3.7조엔(16)	3조엔
국제 관광	④ 방일 외국인 재방문 수	2,400만명 20.4조엔(15) → 20.9조엔(16)	1,000만명 정도
	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부** 숙박객 수	7,000만명 2,514만명(15) → 2,845만명(16)	(골든루트 이외 지역) 2,400만명
	⑥ 아시아 주요국에서 국제회의 개최 건수 점유 비율	30%이상/아시아 최대 개최국 2015년:26.1%/아시아최대	(국제회의 개최건수) 50%이상 증가 (1,111건 이상) 아시아최대 개최국
국제 교류	⑦ 일본인 해외관광객 수	2,000만명 1,621만명(15) → 1,712만명(16)	2,000만명

주: * 과란세(2015년 실적)/빨간색(2016년 실적), 인바운드 소비확대 및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③~⑤를 새롭게 기본 목표로 설정

** 지방부는 3대 도시권(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이외의 지역 / 구계획 목표의 골든루트 이외의 지역은 도쿄, 치바, 오사카, 교토 이외의 지역을 지칭함

자료: 일본관광청 자료(観光庁(2017.4.25.),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の改定)



- 개정된 기본계획은 관광산업을 일본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인식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바운드 관광확대와 관광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로서 국내여행 소비액, 방일 외국인관광객 수, 방일 외국인관광객 소비액, 방일 외국인재방문객 수, 방일 외국인관광객 지방 숙박자 수, 아시아 국제회의 개최건수 비중, 일본인 해외관광객 수를 정하고 있음
-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은 일본정부가 향후 추진할 주요시책을 1)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지역 형성, 2)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인재육성, 3) 국제관광 진흥, 4)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시책을 정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표 II-26> 일본정부가 향후 추진할 주요 시책 방향

구분	주요내용
1)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 지역 형성	• 세계적수준의 DMO 형성, 도호쿠 관광진흥, 문화제/역사자 원/자연 등의 관광자원 활용, 경관보전, 국제거점공항 정비, 크루즈선 확충, 지역창생 완비 등
2)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인재육성	• 여행업법 개정을 통한 지역독자 여행상품 창출, 민박서비스 대응, 관광지 재생/활성화 펀드 전개, 관광경제인재 육성, 숙박업 생산성 향상 등
3) 국제관광 진흥	• 율제팬 체계로 방일 프로모션 실시, 비자의 전략적 완화, 최첨단기술 활용 출입국심사, 통역가이드 확충, 렌드오퍼레이터 등록제도 도입, 통신환경정비 등
4)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외국인관광여행 등 재해피해 축소 등

자료 : 일본관광청 자료 (観光庁(2017.4.25.)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の改定』)

2

중국 : 13차 5개년 계획

가. 13차 5개년 계획의 개요

- ☑ 관광산업을 관광선진국으로서 새로운 중심산업의 위치로 격상
 - 창신, 조화, 녹색, 개방, 발전 이념 공유 관철 시행을 공고화
 - 질적 향상으로 효율 증대를 주제로 전국 관광발전을 주요 노선으로 전환
 -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개혁 가속화로 중진국 수준의 관광대국으로 발전
 - 관광업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생태문명건설의 핵심 산업 및 국가 종합적 실력의 중요 축매체로 육성함으로써 빈곤퇴치 전략의 주력군으로 육성
 - 중화민족의 위대부흥의 “China Dream”을 실현하는데 공헌
 - 여행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터넷산업과의 융합을 도모하는 한편 여행 산업을 도시화, 스마트 제조 산업, 농업현대화, 서비스업등과 융합시켜서 새로운 발전을 하려 함

<표 II-27> 13차 5개년 계획 주요 추진 목표(중국)

구분	주요내용
1) 관광경제의 점진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농촌 거주민의 관광횟수 연 평균 10% 증가 • 관광 연평균 총수입 11% 증가 • 관광 연평균 직접투자액 14% 증가 • 2020년 관광시장 전체규모는 관광객 67억명, 관광투자 총액 2조위안, 총 시장규모는 7조 위안(한화 1200조원)에 달함
2) 종합적 효익 대폭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에 대한 관광업의 종합적 공헌도 12% 도달 • 식음료, 숙박, 항공, 교통 업계 종합 공헌율 85% 이상 도달 • 연평균 관광취업인수 100만명 이상 증가
3) 인민군중의 만족 유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교통 편리화 및 관광공공서비스 완전화 • 유급휴가제도 실행 • 관광시장질서 안정화 및 문명관광 사회적 풍토 수립 • 관광환경 미화
4) 국제적 영향력 대폭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아웃 바운드 관광 활성화 • 국제적 영향력 향상 및 선진국과의 차이 최소화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2016.12.26.) 『十三五旅游业发展规划』



나. 주요 내용

- ☑ 관광업 발전 계획은 2020년까지의 경제시장의 규모 및 관광시장경제의 국제적 영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 2020년까지 관광시장 전체규모 67억명, 관광투자 총액 2조 위안, 관광업총수입 7조 위안 도달 등 관광 경제수익 증대
 - 국민소득에 대한 관광업의 종합적 공헌도 12% 도달, 명확한 종합적 효과 창출
 - 관광교통 편리화 및 관광공공서비스 완전화, 유급휴가제도 실행 및 시장질서 안정화
 - 인·아웃 바운드 관광활성화로 국제적 영향력 향상 및 선진국과의 차이 최소화
- ☑ 관광업 발전 계획의 6대 경영전략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전반적인 산업과 맞물려 녹색 개발과 개방협력, 공유를 통한 혁신관광을 구현하고 파급효과 창출 증진에 있음
 - 첫째, 첨단기술과 관광상품을 복합화하여 상품을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함
 - 둘째, 25개국 8종류의 기능을 발전시켜 관광 경관 셋길을 육성, 우주여행 인프라 구축, 5개의 주요 지역 간 관광 도시 클러스터 강화, 20지역 간 관광 기능 영역을 육성, 고품질 관광 벨트 10개국 구축하는 관광지의 건설을 추진함
 - 셋째, 교통인프라 및 컨설팅 등 관광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 넷째, 공급 측면에서 녹색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절약 강조, 소비자 측면으로부터 녹색관광 소비를 촉진함
 - 다섯째, 주변 국가 간의 협력 및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 개방형 깊이와 폭을 향상한 관광 산업 발전을 추진함
 - 여섯째, 관광산업의 고용 및 적극적인 관광문화 촉진,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관광의 빈곤 퇴치 프로젝트 등 안정적인 관광 산업 발전 환경 제공을 추진함

3

영국 : Tourism Action Plan

가. 계획의 개요

- ☑ 관광분야의 균형 재조정, 고용 및 성장 촉진 등이 목표
 - 2016년 영국 정부는 기존 관광 계획인 'Backing the Tourism Sector ; A Five Point Plan'을 기반으로 '관광 행동 계획(Tourism Action Plan)'을 발표함
 - 관광 행동 계획은 수도 런던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관광 균형을 재조정하고, 관광 고용과 성장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함
 - 관광 행동 계획의 5대 핵심 정책은 관광 환경 조성(Tourism landscape), 견습 제도 및 관광 고용 육성 (Skill), 규제 완화(common sense regulation), 교통(Transport), 비자 서비스 개선(A GREAT welcome) 등임
 - 영국이 다른 주요 관광지와 탈경쟁(Out-compete)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과 조치를 포함하며, 영국이 인바운드 방문객을 맞이하고 영국 국민들이 영국에서의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

<표 II-28> Tourism Action Plan 주요 추진 목표(영국)

구분	주요내용
1) 관광 환경조성 (Tourism Landscape)	• 부처간 협력, 연방 정부 간 협력 등을 반영한 관광산업 전략 수립, 관광 산업 협의회(Tourism Industry Council) 참여, 관광관련 행사에 대한 공조, VisitEngland와 VisitBritain의 책임성과 역할 규명, 4천만 파운드 규모의 Discover England 기금 조성 등 추진
2) 견습 제도 및 관광 고용 육성(Skill)	• 견습 제도 확대, 견습 교육생 허가기간 확장, 견습 기간 중 휴지기간 가능 등의 유연한 견습 제도 구축
3) 규제 완화 (Commonsense Regulation)	• 시설 차량 허가 규제 완화, 소규모 숙박 시설의 주류 판매 허가 완화,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청구 제도 개선, 환전 서비스 개선 등 추진
4) 교통(Transport)	• 5개 철도 상품 개발 및 예약 용이성 증대, 교외 지역 교통 현대화, 지역 공항 활용, 항공 이용객에 부여되는 소비세 재검토 등 추진
5) 비자 서비스 개선 (A GREAT Welcome)	• 걸프 지역 및 중국 비자 시스템 개선, 비자 사이트 연계 관광 정보 제공 등 추진

자료 : 'The Tourism Action Plan' (2016.08.26.)



나. 주요 내용

- ☑ 2016년 8월 26일 영국 연방 정부는 5개년 계획(A Five-Point Plan)에 대한 업데이트인 관광 행동 계획(The Tourism Action Plan)을 수립함
- ☑ 관광 측면에서 해외 방문객들 50%이상이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머물고 있고 지출 증가율도 가장 많음. 이를 위해 자본, 분야를 재조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5가지 행동지침을 제시함
 - 관광 환경 조성(Tourism Landscape): 4천만 파운드 규모의 Discover England 기금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지역 성장 및 해안지역 사회 기금, 영국을 위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 영국 문화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및 복권 기금을 지원
 - 지역사회 지방정부(DCLG), 환경, 식품농촌부(DEFRA)는 여러 정부 부서의 운송에서 본사까지 영국의 관광산업의 성공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적 활동 까지 연결되는 것으로서 포괄적인 산업 전략 수립
 - 관광산업 협의회에서는 영국정부의 비즈니스 방문 및 행사실시에 관한 정부 전략과 이벤트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벤트 고용과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
- 견습 제도 및 관광 고용 육성(Skill): 관광산업에서 고용이 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가 관광 고용 육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mytourism 캠페인 실시.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 산업이 학생들에게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및 경력 개발에 도움을 줌
 - 관광부문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취업을 통해 성장을 장려함
 -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곳에 광대역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정부는 95%의 주택 및 영국의 기업들은 2017년 말 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규제 완화(Commonsense Regulation): 관광산업 협의회와 4가지 규제 영역 제시
 - 사설차량의 허가 규제 완화로서 PHV면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소량의 알코올을 소량 판매할 수 있으며 숙박 시설 제공 업체, 커뮤니티 및 지역 단체 행사에서 소량의 알코올은 허용함

-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HMT의 협의의 일환으로 앞으로 호텔 및 여행사에서 환전서비스를 제공
- 교통(Transport): 5개의 철도 상품 개발 및 교외지역 교통 현대화, 지역공항 활용, 항공 이용객에 부과되는 소비세 재검토 추진
 - 더 넓은 수송제안의 접근 가능성은 영국을 체류한 관광객들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에서도 영향을 줌
 - 영국 방문의 73%가 공중에서 이뤄진 만큼 지역공항을 활용하여 관광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지원함
- 비자 서비스 개선(A GREAT Welcome): 걸프 지역 및 중국 비자 시스템 개선
 - 영국 정부는 방문자 비자 수수료 상상을 연 2%로 제한하였음. 걸프 및 중국지역의 비자 시스템을 개선 추진
 - 관광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영국 관광지 웹사이트 안내 및 Visa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자 정보를 확인
 - 관광 산업 협의회 및 이벤트 산업 위원회를 통해 비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비자 사이트 연계 관광 정보를 제공함
 - "GREAT China Welcome" : 중국 방문객을 위한 것으로 영국인들이 유럽 에서 가장 환영하는 나라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4

호주 : 중장기 관광산업 발전계획(2018~2020)

가. 계획의 개요

- ☑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잠재력 획득을 목적으로 함
 - 관광 산업체와 정부소속의 관광산업 관련 하부 기관들이 협력하여 관광산업으로부터 수익 창출을 증대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발전
 - 정부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질 높은 관광인프라와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2020년까지 관광산업 잠재력을 확보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이 끌기 위해서는 경제부문·숙박공급·항공수용력·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상한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II-29> 중장기 관광산업 발전계획 주요 추진 목표(호주)

구분	상세계획	창출목표
경제	국내관광객과 해외관광객의 지출비용 비율	2020년까지 국내관광객 55% 해외관광객 45% (2009년 기준 국내관광객 62%, 해외관광객 38%)
	1일 이상 체류 관광객의 지출비용	2020년까지 약 1400억 달러 (2009년 기준 700억 달러)
	관광세수	2020년까지 145억 달러 (2009년 기준 93억달러)
	GDP 기여 비율	2020년까지 3.0% (2009년 기준 2.6%)
	순수출 증가액	2020년까지 67억 달러
숙박공급	숙박시설 수용력	40,000 ~ 70,000 추가적인 객실 확보 (객실 이용률 75%까지 증가)
항공	항공 수용력	국제항공수용력 40 ~ 50% 증가 국내항공수용력 23 ~ 30% 증가 (1,900,000개의 추가적인 항공좌석 확보)
공급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증가율 12 ~ 32 % (56,000 ~ 152,000 추가적인 고용)

나. 주요 내용

- ☑ 공급측면의 전략은 국가 장기적인 관광전략의 기초를 따르며 미시경제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함
- ☑ 국가 장기적인 관광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광부 의회는 9개의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미시경제적인 개선을 실행함으로써 국가의 생산능력 향상
- 관광시장 점유율 증대
 - 관광산업의 총수익량 증대
 - 항공수용력 증대
 - 투자 유치 증대
 - 자본효율 향상
 - 노동생산성과 기술력 향상



- ☑ 수요측면 전략은 관광산업에 대한 상한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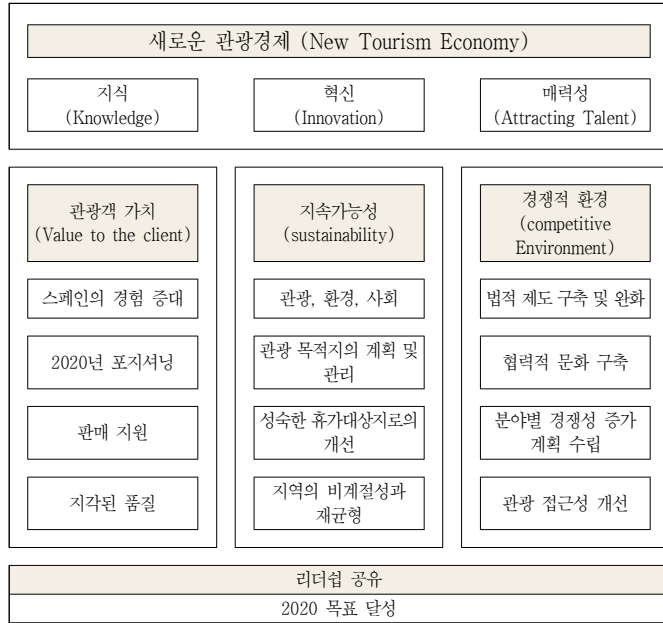
- 고객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 호주를 여행할 잠재적인 외래관광객 장기체류를 이끌고, 소비지출 유도
- 산업육성 전략
 - 관광투자를 이끌고 관광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을 고려한 산업육성 (국가 관광 인증 체계)
 - 파트너십을 가진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관광상품 마케팅과 유통을 통하여 수익창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관광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필요한 곳에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항공업 파트너십:
 - 항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항공수용력을 증대시켜 수익성 창출
- 세계시장 전략: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단계의 호주 정부와 다른 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5

스페인 :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정책(Turismo horizonte 2020)

가. 계획의 개요

- ☑ 관광의 사회·경제적 이익의 최적화,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이 목표
- 2007년 스페인은 스페인 관광 협의회와 관광 회의를 통해 스페인 관광계획 08-12(Plan del Turismo Español 08-12)인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정책 (Turismo horizonte 2020)'을 발표함
 - 스페인 관광정책은 사회적 혜택 증가 및 고용 창출, 관광 활동의 경제적 이익 증가, 관광의 사회적 균형 달성, 자연·문화 환경의 품질 향상,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스페인 주요 관광정책의 원칙은 자원집중, 전시효과, 상호협력, 효율성임



[그림 II-9] 스페인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정책

나. 주요 내용

- ☑ 새로운 관광 경제는 관광객 만족과 관광사업체의 성장을 위해 지식, 혁신, 주요 전략 자산의 개발 및 확보가 필요함
- 시장과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 스페인 관광 위한 벤치마킹 정보시스템 개발
-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 모델을 홍보하고 과학 및 기술 역량을 향상 시키며 효율성을 보장
- 2020년에는 관계 및 고객 지향 관광으로서 사람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로 충분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음. 능력 및 지식과 기술의 개선이 요구됨
- 관광 분야에서 인재를 유치, 개발 및 유지하여 경력 구조를 제공하고 지도력 및 인력 관리 관행을 개선

- ☑ 관광객 가치는 스페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위를 강조하면서 다른 곳에서 모방 할 수없는 관광 경험을 통해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객 관계 관리 및 고객만족은 제품개발, 마케팅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야 함
- 스페인은 2020년 포지셔닝으로 기존 제품 개발 및 신제품의 적응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상품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여행의 전반적인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킴
- 고객은 지각된 가치를 중요시 하여 시간·돈 등을 투자하여 얻은 결과물(만족스러운 경험)을 중요시 함. 따라서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차별화와 스페인 고유의 체험거리를 발굴
-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의 세분화 모델에 기반 하여 전략적인 경제우위의 모델을 창출해야 함
- ☑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발굴은 스페인관광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적재 능력 및 투자 단위 당 이익을 최적화하여 각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환경의 질, 사회적 복지 및 통합을 보장하고 지역 전체에 관광 활동을 확산 함
-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경제, 사회, 환경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 조성
- 관광지는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지속가능성 모델에 기반하여 기존 관광지를 개선해야 함
- 관광·도시환경 모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필요
- 관광지역의 비계절성과 재균형을 이루기 위해 차별화 속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관광객의 요구수준에 따른 경쟁 환경에서 독특한 경험이나 국제적 수준에서 전문화를 필요로 함
- ☑ 경쟁적 환경은 최상의 관광환경 제공으로서 경쟁력 있고 획기적인 관광 사업을 창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정부와 기업 부분간의 새로운 협력문화는 동맹,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부문별 경쟁력 있는 계획 추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최적의 성능을 제공함

- 2020년의 주요 측면 또는 관광환경 중 하나인 각종 규제와 관리를 단순화해야 하고 비용절감과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혁신을 통해 고용안정과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스페인의 관광 산업은 부문별 차별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장려시켜야 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물 제휴, 협업 환경 및 기업관리를 통해 관광의 하위부분의 각 협력영역을 구축해야 함
 -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 목적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통인프라와 서비스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 리더쉽 공유란 스페인 관광 시스템의 리더십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 행동 개발 부문 및 사회를 위한 관광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사회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임
- 스페인 관광 시스템의 새로운 공유 리더십을 홍보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부문과 사회를 위한 관광활동이 있음
 - 스페인 관광 산업 육성 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 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 민간, 그리고 다양한 관광 산업 이해 관계자 간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함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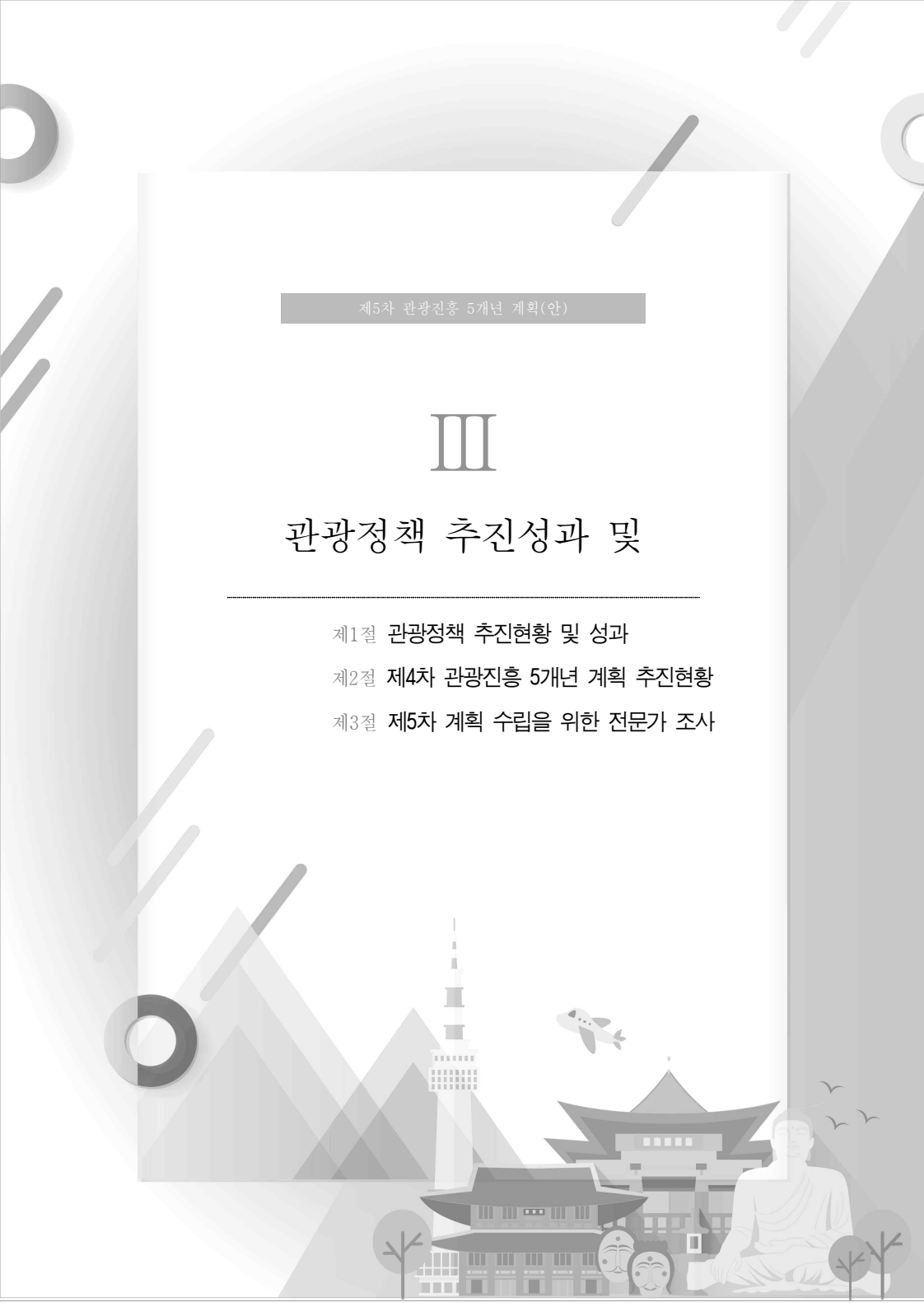
III

관광정책 추진성과 및

제1절 관광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2절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제3절 제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제1절

관광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1 관광정책 추진현황

가. 주요 정책 회의

1) 관광진흥 확대회의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2회)

- 지난 정부에서는 2013년 7월과 2014년 2월, 2차례에 걸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관광진흥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광산업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함

☑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전략 관광산업 육성 전략 수립

- 1차 관광 진흥 확대회의에서는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관광업계 현장으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한국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육성,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활성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표 III-1>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의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목표	추진과제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중국 관광객 대상 사증제도 완화
		동남아 국가 사증제도 완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여행상품 인증 확대 및 여행피해 구제 강화
		호텔업 등급제 의무화 및 평가제도 개선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
		가이드화층 및 처우개선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가이드 자질 향상
		사후면세환급창구확대
		관광경찰제도 도입·운영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전략	목표	추진과제
	관광업계 현장으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관광 인센티브로 호텔 부가세 사후 환급제도 도입
		관광호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관광지·관광단지 분양규정 인원 제한 완화
		문화시설 및 관광단지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지침 녹지비율완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 완화
		'호텔학교 인증제' 추진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학점인정확대
		관광분야 자격제도 개선
전략 관광산업 육성	한국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육성	'관광산업 취업지원 센터' 설치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음식관광 상품화
		음식관광 안내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개선
		한류 공연관광 활성화
		신 한류 콘텐츠 개발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활성화	궁궐과 도성 활용 관광 명품화
		주민주도 '문화재형 행복마을 모델 개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생태관광 거점 조성 및 인증제 실시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한국형 B&B모델화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저렴하고 대중적인 승마관광 육성
		캠핑관광 활성화
		지역관광 기획평가센터 설치
		사군별 관광두레 조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적 개선
		'국제회의의 복합지구'제도 도입
		마이스 업종에 대한 '수출금융제도' 도입
		토착형 글로벌 마이스 육성
		크루즈 항만시설 및 배후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크루즈 유치 마케팅 강화
		크루즈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
		크루즈 운항관련 규제완화 및 선사 경영여건 개선
		병원진출지원전문펀드 조성
		중국 전담여행사중 유치업체 비중확대
		공항 등 의료광고 허용
		통합 플랫폼 구축
		온라인 전자비자 발급
		국제진료비 조사, 공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웰스케어 인재양성센터 건립



☑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 비전 수립

-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는 국내관광 시장규모 확대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조관광 기반구축, 국민관광 여건개선, 관광자원 다양화, 전략적 시장대응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실시함

<표 III-2>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목표	추진과제
창조관광 기반 구축	창조관광 지원체계 대폭 개선	창조관광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
	스마트 관광 육성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기능 제고
		차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코리아 모빌리티) 구축
	관광개발 제도 개선	다국어지도 서비스 추진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운영
		관광개발지수(TDI: Tourism Development Index) 도입
		친환경 관광자원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시행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유희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관광특성화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국민관광 여건 개선	국내관광 수요 창출	관광주간 설정
		관광주거단지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청소년 관광 확대를 통한 장기적 여행수요 창출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철도 5대 관광벨트 구축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유휴자원 활용	관광테마형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철도 유희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편의공간 조성
	국민관광 편의성 제고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등 쇼펍, 문화 시설 설치
		여수박람회장의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특례 제공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지원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 개선
		관광경찰 지역 확대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전략	목표	추진과제
관광자원의 다양화	생태관광 육성	생태관광 자원개발 및 저변 확대
		생태관광 협력네트워크 구축
		야생화 관광자원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농어촌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두레 운동 전개 및 조직화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판매 허용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스포츠관광 육성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용 촉진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 개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개발
		무주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인천아시아게임 활용 관광객 유치
		승마관광 육성
	한국적 콘텐츠 확충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음식관광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전통한옥 체험인프라 지원 '한 스테이' 구축
전략적 시장 대응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강화	산업관광활성화
		한국관광 슬로건 개발 및 홍보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러시아·동남아 등 신흥시장 유치 확대
	중국 시장 고부가가치화 및 질적 개선	환승관광 지방공항 확대
		글로벌 관광협력 강화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방한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지속 개선
	전략 분야 집중 육성	한중 정부간 협력 강화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조성 기반 마련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전시회 연계 융·복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신한류 융합관광 확대



2) 관광산업 육성 대책 발표

- ☑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함
- 매년 외래관광객의 유치성과가 갱신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메르스의 부정적 여파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육성대책 발표
 - 민관협력 사업, 홍보 마케팅,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
- 당시 대책으로 타겟그룹을 설정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류문화, 고부가 관광콘텐츠, 체험형 관광 선호그룹 등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방안 마련
 -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광상품 발굴체계 확보, 통합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단체관광 품질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관광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표 III-3> 관광산업 육성 대책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분야	추진과제
민간·정부·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선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민관협력을 통한 방한심리 회복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및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타겟그룹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관광업계 지원
		한류문화 선호그룹(K-pop 공연, 한류문화거점 조성, 쇼핑 관광, K-푸드, K-뷰티)
		고부가 관광콘텐츠 선호그룹(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마이스, 마리나, 크루즈)
		체험형 관광 선호그룹(산악 관광, 연안해양 관광, 레저 관광, 야생화 관광자원화, 평창 올림픽 연계관광)
	관광경쟁력 기반구축	지속적 관광상품 발굴체계 구축
		통합 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관광인프라 개선(통신 접근성, 지역관광 접근성, 교통 편의성, 지방공항 활성화, 숙박시설 확충 및 개선, 친수공간 관광편의시설)
		단체관광 품질관리(단체관광 품질관리 위원회, 쇼핑업체 수수료 가이드라인, 조처가상품 여행사 제제)

3)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 ☑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문체부는 한국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7대 질적 지표 중점 관리 등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6.6)을 수립함
- 추진전략으로 질적 개선, 콘텐츠 다양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 관광내수 활성화 및 기업체질개선, 협업 강화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한류·문화콘텐츠 기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한국 고유의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관광자원 다변화, 친절하고 안전한 불만제로 대한민국, 수요자 중심 관광인프라 확충, 고품격 관광상품/서비스 통한 관광산업 질적성장, 규제개혁을 통한 관광기업 체질 개선, 창조관광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산업간 융합 및 부처협업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표 III-4>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목표	추진과제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코리아 둘레길 콘텐츠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브랜드로 육성
		코리아 둘레길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트레일러닝 등 연계 스포츠이벤트 활성화
		코리아 둘레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한류·문화콘텐츠 기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한류 관광콘텐츠 확충	K컬처존 지정, 한류체험 거점화
		한류 체험 공간 조성
	K컬처콘텐츠 육성	한류 관광상품화 네트워크 구축
		K문화관광센터 구축·운영
한국 고유의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관광자원 다변화	지역 관광거점 다변화	한국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선정
		궁중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내실화
		지역 관광의 전략 거점 집중 육성
	특색 있는 지역콘텐츠 육성	지역의 관광 역량 강화 지원
		노후화된 관광(단)지 시설 및 콘텐츠 재생 및 정비 사업 추진
		DMZ 접경지역 안보관광 확대
		농촌관광을 통한 관광객 1천만명 유치 추진
		우수한 생태자원 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자원 활용 글로벌 명품 축제 육성



전략	목표	추진과제
친절하고 안전한 불만제로 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 관광자원화	지역문화관광자원 활용 글로컬콘텐츠 육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평창올림픽 관련 관광상품 개발
		평창올림픽 국민 관심 제고
		올림픽 후 사후 활용 및 마이스복합도시 육성
	기타 복합콘텐츠 육성	관광기념품 유통 활성화
		10대 명품 산업관광 상품화
		예술관광 상품 개발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크루즈관광 활성화
		스포츠 관광 활성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존 관광자원 매력도 제고
		매력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선택형 환승관광 패키지상품 다양화
		IT기술 활용 융합 관광상품 개발
		체험형 환경에너지 관광
	외래관광객 불편사항 실질적 해소	입국자 대상 관광정보 제공 확대
		불편신고 원스톱서비스 통합시스템 마련
		바가지요금 차단 전방위적 단속 실시
	K스마일 캠페인 전면 시행	K스마일 캠페인 전방위적 전개
		K스마일 캠페인 홍보 확대
	외래관광객 안전지원센터 설치	안전 및 사고처리 지원 전담센터(안전지원센터) 설치·운영
	클라우드 기반 통합 정보제공 환경 조성	LOD 기반 문화콘텐츠 통합형 DB 구축 추진
		IoT(사물 인터넷), ICT(비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수요자 중심 관광인프라 확충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	관광지 교통혼잡 문제 개선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개별관광객(FIT) 교통편의성 제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 구축
		지역관광 패스 도입 유도
		K트래블 버스 자유여행상품 운영
		개별 관광객 대상 레일시티투어 확대

전략	목표	추진과제
고품격 관광상품 / 서비스 통한 관광산업 질적 성장	항공노선 및 크루즈 인프라 확충	인바운드 항공노선 확충 및 조정으로 외래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
		인천공항 심야운항 활성화 및 관광편의시설 대폭 확충
		크루즈 전용부두와 여객 터미널 확충
		잠재력 있는 크루즈 기항지 추가 개발
	관광숙박시설 다양화	증거가 및 지역특화 숙박시설 확충
	여행객 관리체계 개선	전통가옥 기반 종합적 전통문화교육·체험공간 활성화
		인천공항 보안시설 확충 등 여행객 관리체계 개선
	관광시설 안전 강화	제주무비자 입국허가 개선 및 신속한 크루즈 관광출입국 시스템 구축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면세점 경쟁력 강화 및 수용태세 개선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내 면세점의 중견·중소기업 판매 지원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여
	가이드 서비스 고품격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편의 제공
		고궁전담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및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MICE 관광 고도화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불법가이드 제재 및 무자격가이드 고용 여행사 퇴출
	저가 단체관광 근절	주요 의사결정권자 관리강화 및 유니크메뉴 활용
		합동대응팀 구성 상시 운영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 전수조사 및 실질적 감독체계 구축 운영
	의료관광 연계 활성화	중국 단체관광객 중점 이용 업소 점검 단속
		한중 양국 관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강화
	프리미엄 상품개발 및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 체계	의료관광에서 웰니스관광으로 외연확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글로벌	고소득층 대상 고품격 VIP상품 개발 판촉 확대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일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중화권	글로벌
		중화권
	일본	일본
		아시아 / 중동



전략	목표	추진과제
		구미주
규제개혁을 통한 관광기업 체질 개선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관광사업체 대상 체질개선 위한 컨설팅 제공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인	입지규제 개선으로 관광단지 및 산지 관련 규제 완화 진입규제 완화로 공유민박업, 호텔리스 등 신규 관광사업 창출
	관광진흥법 체계 전면 개편	‘숙박업법’ 제정
		관광진흥법 분법 등 관광법제도 개선
	관광기업 유자사업 제도개선	관광기금 상시 유자체계 확립
		관광시설 특화자금 신설
		관광기금 유자대상 확대
창조관광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창조관광기업 플랫폼 구축	창조관광 전문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 문화창조벤처단지 연계 창조관광 스타트업 플랫폼 확충
		융·복합 콘텐츠 및 ICT기반 연계 강화
	창조관광 생태계 조성	창조관광핀드조성·운용을 통한 창조관광의 산업화
		창조관광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및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
		창조관광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
		관광전문 채용박람회 및 인력포털 운영 등 관광산업 취업 확대
		관광분야 예비인력 양성 및 맞춤형 교육
	국내여행 활성화	자격제도 개편 및 인력양성 체제 구축
민간협력을 통한 대대적인 여행주간 캠페인 실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생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투어데이)		
산업간 융합 및 부처협업 시스템 구축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불거리 육성	타겟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관광, 예술, 스포츠, 콘텐츠 등 문화섹터와의 융합 강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
		문제부 콘텐츠타워 기능 강화
		국가관광전략회의체 신설

나. 예산 운용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예산

☑ 문제부 전체예산의 비중은 감소되나 관광분야 예산 소폭 증가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예산은 5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관광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25.6%인 1조 4천 억원을 투입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연평균 7.5% 증가하고 관광부문 예산은 연평균 4.6%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예산 대비 관광분야의 예산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특별회계·관광기금 예산 증가에 따른 관광부문 총예산의 증가

- 관광부문의 총 예산은 1조 4천억 원이며 이중 세출예산은 4천 6백억 원, 기금이 9천 5백억으로 기금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세출예산에 비해 2배 차이가 남
- 일반회계의 예산은 감소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증가함에 따라 총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예산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전체예산은 증가되고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세출예산 구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집행은 관광기반 구축 및 자원개발에 대한 예산 소요가 집중되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증가됨에 따라 4천 6백억원의 세출예산 이 활용되고 이는 세출예산의 98.1%를 차지함
- 한시적으로 메르스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사업체 지원 및 외래관 광객 유치사업에 투자하면서 일반회계의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일시적임

<표 III-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예산 구성

단위: 억 원, %

구 분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금액	비중	
문제부 계	44,224	49,959	54,948	100.0	7.5
관광부문 계	12,288	13,692	14,081	25.6	4.6
세출예산	3,738	4,618	4,620	8.4	7.3
일반회계	26	233	40	0.1	15.4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3,711	4,384	4,580	8.3	7.3
기금	8,550	9,074	9,461	17.2	3.4

2) 관광 정책 영역별 예산

- ☒ 관광진흥기반확충에 관광예산의 약 40% 투입
 - 1조 4천억 원의 관광예산 중 관광진흥기반확충에 소요된 예산은 세출예산 4천 3백억 원, 기금 천 2백억 원으로 약 40% 차지
 - 관광진흥기반확충 소요예산은 세출예산 연평균 6.0%, 기금 연평균 10.4% 증가하며 관광예산의 연평균 증가율(4.6%)보다 높아 관광기반 및 자원개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해 소요된 예산은 관광예산 중 17.1%
 - 외래관광객유치 예산은 주로 기금(98.3%)에서 소요되고 있으며 연평균 4.1%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함
- ☒ 관광산업 지원예산은 8.5% 수준
 - 관광산업 지원예산은 9백억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나 2015년(926억)대비 감소하였음
- ☒ 관광기금을 통한 융자는 5천 억 원대
 - 관광기금융자는 5천 억원 수준으로 전체예산의 3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1.4%)로 봤을 때 규모가 커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관광정책 영역별 예산 구성

단위: 억 원, %

구 분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금액	비중	
관광진흥기반확충	3,624	4,085	4,314	30.6	6.0
외래관광객유치	26	233	40	0.3	15.4
관광테저도시육성	87	299	265	1.9	45.0
관광진흥기반확충(기금)	885	1017	1,192	8.5	10.4
관광산업육성(기금)	767	926	903	6.4	5.6
외래관광객유치(기금)	2,098	2,631	2,367	16.8	4.1
관광기금융자(기금)	4,800	4,000	5,000	35.5	1.4
합계	12,288	13,692	14,081	100.0	4.6

제2절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 현황

1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 ☒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융성하는 대한민국
 -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관광산업 발전을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확대를 기대
 - 국제적인 매력을 보유한 관광자원과 상품 개발, 고품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내외국인 관광객에 최고의 경험으로 만족을 높이고 동북아 관광시장을 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2) 주요 키워드

- ☒ 창조관광, 국민행복, 국제강국, 융합 등 키워드 설정
 - 정책환경과 관광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창조 관광', '국민행복증진', '국제강국', '융합', '지역관광'등을 키워드로 설정

3) 목표

- ☒ 2018년까지 관광산업 200% 성장 목표
 - 외래관광객 수를 2018년 2,200만 명 유치 목표
 -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을 1,500불로 확대하여 관광수입액 330억불 목표
 - 국민관광 참여여건 개선 및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를 통해 2018년까지 연간 15일의 참여를 유도, 총 670백만 일의 국민국내관광총량 목표



- 국민관광총량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국민 국내관광 소비액 33조원 목표
- 관광산업 성장률을 반영하여 관광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규모 150만개 목표

2

계획 추진 현황

1) 계량적 목표의 추진현황

- ☒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추진현황
- 동 계획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외래관광객 수, 관광수입,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국민 국내관광 참여일수, 국민 국내관광 소비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략과 세부과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외래관광객 수, 관광수입, 관광산업 일자리는 지난 3회에 걸친 계획에서 사용되었던 성과지표로서 성장증심의 정책방향을 대변하였던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국민 국내관광 참여일수와 소비액을 통해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 제4차 계획이 2018년까지 연속적이지 못하고 종료된 상황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수입은 52%, 국민 국내관광 참여일수는 62.7%, 외래관광객 수는 78.3%까지 달성하였음

<표 III-7> 계량적 목표 달성 현황

항 목	기준치('12)	목표치('18)	현재('16)	달성율*(%)
외래관광객 수(명)	11,140,028	22,000,000	17,241,823	78.3
관광수입(1,000US\$)	13,356,700	33,000,000	17,199,700	52.1
국민 국내관광 참여일수(일)	8.4일	15일	9.4일	62.7
국민 국내관광 소비액(백만원)	23,891,080	33,000,000	25,748,487	78.8
관광산업일자리창출(명)	85만 개	150만 개	97만 개	64.7

* 달성율은 목표치('18) 대비 현재치('16)에 대한 달성비율을 계산하여 나타냄

2) 정책 추진 현황

- ☒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는 주요 관광 진흥 회의 안전,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으로 제시되어 관광정책으로 추진됨

<표 III-8>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전략 회의 안전 지정 및 정책 추진 현황

제4차 관광진흥5개년계획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시장친화적 관광투자 활성화	●	●	●	
관광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
지식서비스형 관광기업 육성 기반 마련		●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창의적 관광인재 육성	●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로 한국관광의 위상 강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		●	●	
방한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로 관광객 유치 확대	●	●	●	
관광수용태세 완비로 한국관광 편의 제고	●	●	●	●
한국관광 품질 제고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 향상	●	●		●
국제관광 협력 확대로 관광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한국관광의 매력도 제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 육성	●	●	●	
창조적 문화관광 활성화	●	●	●	●
고품질 관광자원 확충	●	●	●	●
고부가 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의 국제 경쟁력 강화	●	●	●	
글로벌 MICE 관광산업 육성	●	●	●	
크루즈 관광 활성화	●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	●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국민관광 향유 여건 개선		●	●	●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		●		
지역관광 활성화 주체 및 협력체계 육성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b), 제4차 관광진흥5개년계획, 관광 관련 회의(제1차~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문화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바탕으로 작성



3

전문가 중간 평가*

1) 조사 개요

- ☑ 조사대상은 관광정책 환경 및 제4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으로 전차 계획에 대한 평가는 계획 기간(2013년~2018년)을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기간(2013년~2016년)을 대상으로 함
- ☑ 조사내용은 제4차 관광진흥5개년계획 평가로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 실행

<표 III-9>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성과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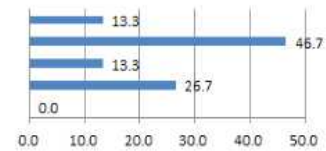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전반적 평가	국민관광 진흥정책, 국제관광 진흥정책, 관광자원 개발정책, 관광산업 육성 정책, 융복합관광 산업정책 인지도 등	
부문별 관광정책 평가	국민관광 진흥정책	국민관광 향유 여건 개선,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주제 및 협력체계 육성, 관광안전 및 위기관리 강화 등
	국제관광 진흥정책	과학적 분석에 기반 한 유치 마케팅 추진 방안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관광수용태세 완비로 편의 제공, 한국관광 품질 제고, 국제관광 협력 확대 등
	관광자원 개발정책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 개발, 창조적 문화관광 활성화,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산업 육성정책	시장친화적 관광투자 활성화, 관광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지식서비스형 관광기업 육성 기반 마련,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창의적 관광인재 육성 등
	융복합형 전략 관광산업 육성정책	의료관광의 국제경쟁력 강화, 글로벌 MICE 관광산업 육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등
한국 관광정책 전반적 평가	관광정책 기본 철학의 명확성, 정책추진의 일관성, 관광정책 관리추진의 체계성, 타 분야와의 연계성,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지속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성, 정책추진을 통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의 실효성 등	

2) 조사 결과

- ☑ 국민관광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26.7%로 나타남
-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13.3%로 나타났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국민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구분	비율(%)
(1) 매우 긍정적	13.3
(2) 긍정적	46.7
(3) 보통	13.3
(4) 부정적	26.7
(5) 매우 부정적	-
전체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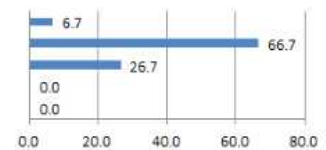


주) n=15, 1점(매우 부정적) ↔ 5점(매우 긍정적)

- ☑ 국제관광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26.7%)', '매우 긍정적(6.7%)'이라는 의견 순
-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관광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11> 국제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구분	비율(%)
(1) 매우 긍정적	6.7
(2) 긍정적	66.7
(3) 보통	26.7
(4) 부정적	-
(5) 매우 부정적	-
전체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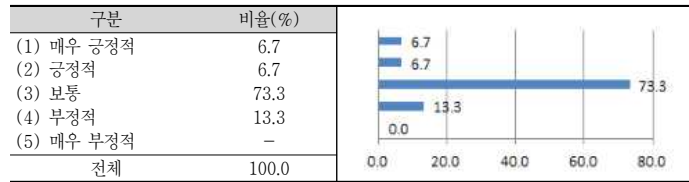


주) n=15, 1점(매우 부정적) ↔ 5점(매우 긍정적)

- ☑ 관광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13.3%로 나타남
-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각각 6.7%로 나타났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진흥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2016)에서 진행한 전문가 조사 결과 인용

<표 III-12> 관광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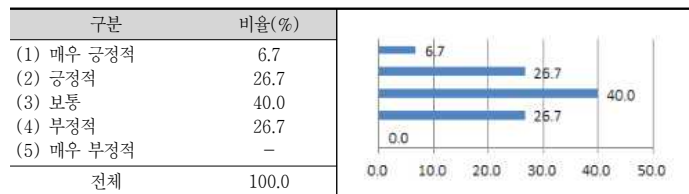


주) n=15, 1점(매우 부정적) ↔ 5점(매우 긍정적)

- ☑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긍정적'과 '부정적'이라는 의견으로 제시됨

- 한편,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6.7%로 나타났고,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3>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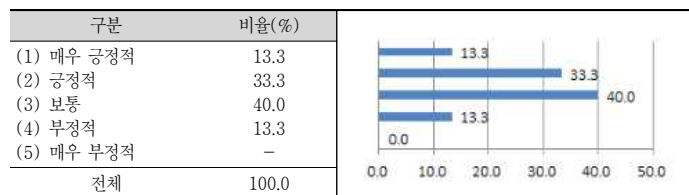


주) n=15, 1점(매우 부정적) ↔ 5점(매우 긍정적)

- ☑ 융복합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긍정적(33.3%)'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각각 1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4> 융복합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주) n=15, 1점(매우 부정적) ↔ 5점(매우 긍정적)

제3절

제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 향후 5년간 국민경제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환경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2) 조사 대상 및 방법

- ☑ 관광·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E-mail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에 대한 5점 척도의 정량적 점수 기입, 우선순위, 비중평가에 대한 비율 척도를 기입하도록 하고 기타의견을 제시하도록 설계

3) 조사 항목

- ☑ 환경변화 분석결과에 따른 관광영향 및 시급성 평가
- STEE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관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향후 5년 내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할 변화들에 대한 평가
- ☑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정책 중요도(비중) 평가
- 관광영역별 제4차 계획에서의 정책 비중과 제5차 계획에서 추진해야할 비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방향 및 전략제시

☑ 정책 분야별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응 시급성 조사

- 국민 국내관광, 외래관광객, 관광산업, 지역관광(개발)로 분야를 나누어 지난 5년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 및 시급대응성 평가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핵심가치 우선순위 조사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 추구해야할 관광진흥 정책방향의 핵심가치에 대해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 가치 평가

<표 III-15>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항목

구분	주요 내용	
환경변화 분석에 따른 관광 영향 및 시급성 평가	사회	일 중심의 근로문화와 경직된 휴가문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여가·문화의 수요증대, 개인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
	인구	저출산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지역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과소화 현상의 가속화, 가구 구성의 변화(1인 가구 증가 및 나노가족화 등)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미래 기술변화, AI 및 IOT 등 발전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변화, 교통수단 발전에 따른 이동환경의 변화
	환경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 전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확산 등 대기오염 심화, 전 세계적인 전염병(SARS, MERS 등)에 따른 위협
	경제	저성장 경제의 지속에 따른 내수활력 저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성장
	정치	신정부의 '휴식권 보장' 등 국민 복지 정책, 사드배치 및 북한의 전쟁위협 등 동북아 위기 고조, 글로벌 테러위협으로 관광안전의 필요성 증가
정책 중요도 (비중)평가	국민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발전·육성, 지역관광개발, 정책추진체계	
부문별 관광정책 평가	국민 국내 관광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본질적 접근 부족, 세월호 등 위기상황 발생시 대책 마련 중심의 정책적 접근, 국민체감도가 낮은 정책 추진, 열악한 근로자 휴가 환경 및 여건, 국내관광 향유에서 시간·경제적 제약요인 고착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부족
	외래 관광객	단일시장(중국시장)의 의존도 심화, 방한외래객 1인 평균 소비지출액 감소, 방한 단체덤핑 관광 등 질적 문제 지속, 관광 수용태세의 체계적 정비 미흡, 외래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 미흡, 관광수용태세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관광 유치마케팅 낮은 효과성, 남북관광 장기 중단
	관광 산업	관광산업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부족, 진흥법상 관광사업 범위의 협소함, 신규 관광사업의 발굴 및 육성체계 부족, 관광사업체의 혁신역량 부족(해외 진출 포함), 관광사업체의 시장화 대 노력 부족, 관광산업 기술 R&D 기반 및 역량 부족, 관광산업 금융지원과 관광산업으로의 투자 미흡, 관광산업에 대한 행정·재정·조세 등 지원체계 부족, 관광인력에 대한 양성체계 미흡
	지역 관광 (개발)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단의 법적인 틀 미흡, 관광자원 개발정책의 추진근거 미약(관련법 미비), 관광객의 지역방문지 편중,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주체 부족, 지역관광을 시설 개발 및 지역경제 성장 정책으로 인식,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자(관광)행태 변화대응 미흡,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미흡,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계획적 추진체계 미흡, 범부처적 지역관광사업 추진 및 타부처와의 유사 중복사업 증가
핵심가치 우선조사	국민회향, 국가발전, 모두를 위한 관광, 관광복지, 사회통합, 소통, 관광친화사회, 삶의 질 개선, 국민행복 추구, 관광경쟁력 강화, 일자리, 성장과 균형, 산업 융·복합, 지방재정분권, 지역관광 균형발전,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 지속가능한 관광, 외래관광객 양적성장, 외래객 시장다변화, 관광객 안전	



가. 환경변화 분석에 따른 관광영향 및 시급성 평가

- STEE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항목 중 사회분야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여가·문화의 수요증대'(4.48)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인구분야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4.37), 기술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한 미래기술 변화'(4.37)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환경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따른 위협'(4.37), 경제분야에서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성장'(4.00)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정치분야에서는 '사드배치 및 북한의 전쟁위협 등 동북아 위기 고조'(4.37)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표 III-16> 환경변화의 관광분야 영향 정도

(단위: 점)

항 목		관광분야 영향정도	순위	대응시급성
사회	일 중심의 근로문화와 경직된 휴가문화	3.81	14	10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여가·문화의 수요증대	4.48	1	1
	개인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	4.19	7	8
인구	저출산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4.37	2	5
	지역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과소화 현상의 가속화	3.59	16	17
	가구구성변화(1인가구 증가 및 나노가족화 등)	3.96	12	10
기술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한 미래기술 변화	4.37	2	3
	AI 및 IOT 등 발전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변화	4.19	7	6
	교통수단 발전에 따른 이동환경의 변화	4.22	6	8
환경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 전개	3.46	18	15
	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확산 등 대기오염 심화	3.74	15	15
	전세계적인 전염병(SARS, MERS 등)에 따른 위협	4.37	2	6
경제	저성장 경제의 지속에 따른 내수활력 저하	3.96	12	10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3.52	17	18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성장	4.00	11	13
정치	신정부의 '휴식권보장' 등 국민복지정책	4.19	7	1
	사드배치 및 북한의 전쟁위협 등 동북아 위기 고조	4.37	2	3
	글로벌 테러위협으로 관광안전의 필요성 증가	4.04	10	13



나.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정책 중요도(비중) 평가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 주요 분야로 선정한 ‘국민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발전 및 육성’, ‘지역관광개발’, ‘정책추진체계’에 대해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과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의 정책 비중평가에 대한 비교 조사를 실시함
-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31.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나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국민관광 활성화’(25.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또한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대비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7.6% 감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국민관광 활성화’(5.2% 상승), ‘관광산업 발전·육성’(3.9% 상승)등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며 전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대비 이번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른 정책 비중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함
- 이외로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이벤트, 쇼핑 등 특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며,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관광의 국민 복지 정책화’에 대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III-17>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정책 중요도

단위: %

항 목	관광정책 중요도(비중 평가)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14~2016)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17~2022)
국민관광 활성화	20.4	25.6
외래관광객 유치	31.3	23.7
관광산업 발전·육성	18.0	21.9
지역관광개발	18.5	18.5
정책추진체계	10.9	10.1
기타	0.9	0.2
합계	100.0	100.0

다. 분야별 진단에 대한 평가 및 대응 시급성 조사

1) 국민 국내관광 분야

- 국민 국내 관광분야 진단 내용 중 가장 높게 동의하는 항목은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본질적 접근부족(3.96)’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부족(3.93)’, ‘국민체감도가 낮은 정책 추진(3.81)’ 순으로 나타남
- 대응 시급성에 있어서도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본질적 접근부족(4.04)’으로 나타났으며, ‘세월호 등 위기상황 발생시 대책 마련 중심의 정책적 접근(4.04)’, ‘열악한 근로자 휴가 환경 및 여건(4.00)’ 순으로 나타남

<표 III-18> 국민 국내관광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단위: 점

항 목	동의정도	대응 시급성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본질적 접근 부족	3.96	4.04
세월호 등 위기상황 발생시 대책 마련 중심의 정책적 접근	3.44	4.04
국민체감도가 낮은 정책 추진	3.81	3.96
열악한 근로자 휴가 환경 및 여건	3.74	4.00
국내관광 향유에서 시간·경제적 제약요인 고착화	3.63	3.96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부족	3.93	3.96

2) 외래관광객 분야

- 외래관광객분야 진단 내용 중 가장 높게 동의하는 항목은 ‘단일시장(중국시장)의 의존도 심화(4.89)’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방한 단체 덤핑 관광 등 질적 문제 지속(4.44)’, ‘외래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 미흡(4.00)’ 순으로 나타남
- 대응 시급성에 있어서도 ‘단일시장(중국시장)의 의존도 심화(4.93)’로 나타났으며, ‘방한 단체 덤핑 관광 등 질적 문제 지속(4.33)’, ‘외래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 미흡(4.33)’ 순으로 나타남



<표 III-19> 외래관광객 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단위: 점		
항 목	동의정도	대응 시급성
단일시장(중국시장)의 의존도 심화	4.89	4.93
방한외래객 1인 평균 소비지출액 감소	3.89	3.96
방한 단체 덤핑 관광 등 질적 문제 지속	4.44	4.33
관광 수용태세의 체계적 정비 미흡	3.85	4.15
외래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마케팅 추진 미흡	4.00	4.33
관광수용태세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3.96	4.22
관광 유치마케팅 낮은 효과성	3.78	4.04
남북관광 장기 중단	3.33	3.19

3) 관광산업 분야

- 관광산업분야 진단 내용 중 가장 높게 동의하는 항목은 ‘관광사업체의 혁신역량 부족(해의 진출 포함)(4.35)’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관광산업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진흥법상 관광사업 범위의 협소함’, ‘신규 관광사업의 발굴 및 육성체계 부족’(각각 4.27) 순으로 나타남
- 대응 시급성에 있어서도 ‘관광산업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부족(4.54)’로 나타났으며, ‘신규 관광사업의 발굴 및 육성체계 부족(4.42)’, ‘관광산업 금융지원과 관광산업으로의 투자 미흡’, ‘관광인력에 대한 양성체계 미흡’(각각 4.35) 순으로 나타남

<표 III-20> 관광산업 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단위: 점		
항 목	동의정도	대응 시급성
관광산업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부족	4.27	4.54
진흥법상 관광사업 범위의 협소함	4.27	4.31
신규 관광사업의 발굴 및 육성체계 부족	4.27	4.42
관광사업체의 혁신역량 부족(해의 진출 포함)	4.35	4.08
관광사업체의 시장확대 노력 부족	3.69	3.92
관광산업 기술 R&D 기반 및 역량 부족	4.00	4.04
관광산업 금융지원과 관광산업으로의 투자 미흡	4.08	4.35
관광산업에 대한 행정·재정·조세 등 지원체계 부족	3.88	4.23
관광인력에 대한 양성체계 미흡	4.19	4.35

4) 지역관광(개발) 분야

- 지역관광분야 진단 내용 중 가장 높게 동의하는 항목은 ‘범부처적 지역관광사업 추진 및 타부처와의 유사 중복사업 증가(4.30)’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지역관광을 시설 개발 및 지역경제 성장 정책으로 인식’(4.27),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단의 법적인 틀 미흡’,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미흡’(각각 4.26) 순으로 나타남
- 대응 시급성에 있어서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미흡(4.56)’이 가장 높게 분석 되었으며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단의 법적인 틀 미흡(4.41)’,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계획적 추진체계 미흡(4.26)’ 순으로 나타남

<표 III-21> 지역관광 분야 진단 동의 및 대응 시급성

단위: 점		
항 목	동의정도	대응 시급성
시대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단의 법적인 틀 미흡	4.26	4.41
관광자원 개발정책의 추진근거 미약(관련법 미비)	4.07	4.07
관광객의 지역방문지 편중	4.15	4.22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주체 부족	4.19	4.23
지역관광을 시설 개발 및 지역경제 성장 정책으로 인식	4.27	4.00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자(관광)행태 변화대응 미흡	4.15	4.22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미흡	4.26	4.56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계획적 추진체계 미흡	4.19	4.35
범부처적 지역관광사업 추진 및 타부처와의 유사 중복사업 증가	4.30	4.26

라.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핵심가치 선정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정책 대상(국민, 외래관광객, 관광산업정책, 지역관광정책) 및 정책 추진체계에서 가져야할 핵심가치에 대한 조사를 실행함
- 국민을 대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국민행복 추구’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로 ‘삶의 질 개선’, 3순위로 ‘관광복지’를 선정함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외래객 시장다변화’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로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 3순위로 ‘관광객 안전’을 선정함



-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관광 경쟁력 강화’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로 ‘산업 융·복합’, 3순위로 ‘일자리’를 선정함
- 지역관광정책을 대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로 ‘지역관광 균형발전’, 3순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정함
- 정책추진체계의 정비에 대해 추구해야할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국가발전’을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로 ‘성장과 균형’, 3순위로 ‘관광 친화사회’를 선정함
- 신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에서 가져야할 핵심가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1순위로 ‘모두를 위한 관광’을 선택 하였으며 2순위로는 ‘성장과 균형’, 3순위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선정함

<표 III-22>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핵심가치

단위: 점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국민대상 추구 핵심가치	국민행복 추구	삶의 질 개선	관광복지
외래관광객 대상 핵심가치	외래객 시장다변화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	관광객 안전
관광산업정책 핵심가치	관광경쟁력 강화	산업 융·복합	일자리
지역관광정책 핵심가치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	지역관광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추진체계 정비 핵심가치	국가발전	산업 융·복합	관광친화사회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연계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 핵심가치	모두를 위한 관광	성장과 균형	지속가능한 관광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 ☑ 공익적 가치추구의 국민 관광 전략 수립 필요
 - 관광소비자의 여가·문화 수요 요구의 증대 및 가치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소비행태의 변화는 관광 환경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모두를 위한 관광을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내포한 국민 대상 관광 전략 수립 필요
- ☑ 외래 관광 시장 다변화 전략과 지속적인 질적 관리 필요
 -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으로 편중된 방한 관광시장구조는 국제이해관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극대화 되는 것으로 평가
 -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 다변화 전략과 방한 단체 텃밭 관광 제한 등 질적 관리 체계 필요
- ☑ 융합 관광 지원, 벤처기업 활성화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마련 필요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투자, 관광창업,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 생태계 선순환 구축 정책 등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
 - 기술과 결합된 융합 관광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마련 필요
- ☑ 관광 예산활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 문체부 예산 중 관광 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관광기반 구축 및 자원 개발에 집중된 예산 소요 집중으로 편중된 예산 활용 대책 요구
 - 관광 예산 규모를 증가시켜 정부예산 비중을 확보하고 편중된 세출예산 구조의 균형과 예산 소요 부문 다양화를 위해 예산활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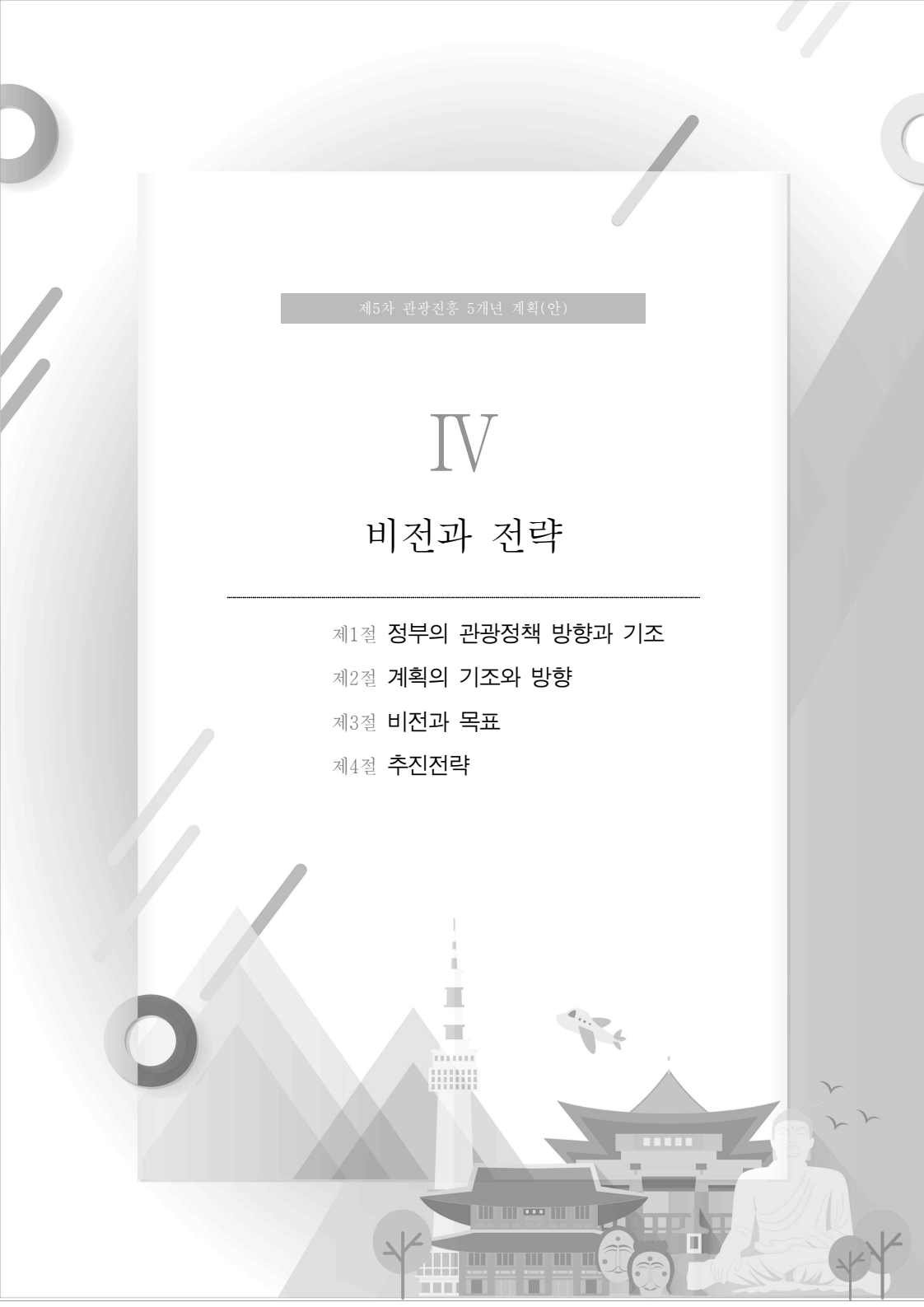
비전과 전략

제1절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기조

제2절 계획의 기조와 방향

제3절 비전과 목표

제4절 추진전략



제1 절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기초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초

가.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국민의 나라」를 통해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 의지
- ☑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나. 국정운영 5대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현하고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 모색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구현함
- ☑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를 지향함
-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의 적극적 지원,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
-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
- ☑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
- ☑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대 지방, 지방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강한 안보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임
- ☑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
- ☑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
- ☑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하도록 함



나. 추진전략

1)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 ☒ 국정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전략별로 100대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
- 국민주권 실현(4), 경제활성화(5), 국민복지 향상(5), 지방분권(3),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3) 등을 달성키 위한 20대 국정전략을 제시함
- 전략별 100대 핵심과제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487개의 부처별 실천과제로 세분류
-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국민주권의 꽃을 민주주의 실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불평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소통으로 통합하는 평화문 대통령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제협력에 주도하는 열광한 외교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자유와 창위가 넘치는 문화국가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8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그림 IV-1] 신정부 비전 체계도

- ☒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이행목표·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방안을 마련
- 혁신기('17년 5월~'18년) :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
- 도약기('19년~'20년) : 국민 지지를 통한 과제별 체감성과 본격 창출
- 안정기('21년~'22년 5월) : 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

2) 국정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4대 복합·혁신과제 선정

- ☒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일자리위원회(신설)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4차 산업혁명 위원회(신설)
- 교육, 복지, 노동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저출산·고령화위원회(기존)
-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신설)

3)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역공약 추진

- ☒ 문재인 정부의 17개 시도별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
- 지역공약은 130개의 17개 시도공약과 시도간 상생공약 13개로 구성
- 공약유형은 크게 지역산업 혁신, SOC(교통·지역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제도 혁신, 기관설치의 유형으로 제시
- ☒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공약TF를 운영



2

관광분야 국정과제

가. 개요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 국민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영위하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
- 목표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나. 주요 추진계획

- ☑ 관광여가 사회실현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 제도설계 추진 등), 열린 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부터 적용)
-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20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개선 지속,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
- ☑ 관광산업 육성
 -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
-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벌'관광지 육성
- ☑ 외래관광 다변화
 - 20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시장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다. 타분야 연계 관광과제

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실현 (고용부)

- ☑ 휴식 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향 마련
 - － 목표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2)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자부)

- ☑ 산업단지 혁신
 -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아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 목표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과제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3)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 ☑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 목표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과제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 어촌 조성

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남북경협 재개
 -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재개 추진하며 여진조성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 － 목표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전략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 문화비전 2030은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분야를 포괄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정책방향 제시

☑ 가치와 방향

-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설정하고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3대 방향과 함께 아래와 같은 구체적 방향성 제시
-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권리 실현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누리도록 할 의무
-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선 공존과 공생의 가치 실현
- 분쟁과 갈등을 넘어, 문화협력과 교류를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실현
- 교육, 노동, 복지 주거, 도시 등의 분야에 문화적 상상력과 역량 확산
-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창의적 일자리, 사회적 경제 실현

☑ 문화비전 2030 8대 정책의제

-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 문화 분권 실현
-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

-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을 위해
-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 모두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

☑ 문화비전 도출의 원리

-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
- 예술인들을 편 가르고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예술가의 자율성 보장”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술과 자본에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의 문화적 삶을 활성화
- 미래의 청년세대들에 희망을 주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

☑ 문화정책의 전환

- 효율과 경쟁 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 중앙집권적 문화에서 문화자치와 분권으로
- 노동 파잉 사회에서 여가가 있는 사회로
- 경제와 기술 주도의 사회에서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그림 IV-2] 문화비전 2030 8대 정책의제

제2절

계획의 기초와 방향

1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기초

- ☑ 국정과제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국정목표 달성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되는 비전, 목표, 전략 및 세부과제 등이 국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과제발굴 추진단 조직
- ☑ 국가재정과 연동하여 세부과제의 실현가능성 제고
 - 본 계획에서 제시되는 모든 과제들은 국가 재정과 연동되어 추진 기반을 확보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담보
 - 국정계획 및 문체부 집행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
- ☑ 내외부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관광분야의 미래대응력 강화
 - 내부적 관광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정치·사회·경제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 하여 제안된 계획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
- ☑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속에서의 관광정책 위기대응력 강화
 -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테러, 분쟁사태 등 예측불가능한 외부 환경변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 ☑ 국·내외 관광통계 및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추진의 과학적 근거 마련
 - 내외부적 환경분석 및 추진과제의 배정 등에서 제시되는 계획의 근거가 관광 통계 및 분석을 통해 제시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시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현장중심의 계획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제시되는 계획은 국민행복을 지향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연결
- ☑ 국민·산업관계자 및 전문가에 의한 참여형 관광진흥계획
 - 국민을 통해 접수된 정책아이디어, 업계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와 국민의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국민참여형 관광진흥계획 수립
 - 문체부 정책담당자,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진흥 중장기TF 및 5개년계획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종합하고 발전시킨 관광종합계획 제시
- ☑ 국민행복 실현·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부처협력형 관광진흥계획
 - 문체부 이외 농림부, 해수부, 통일부 등의 부처에서는 주요 정책이외에 관광 관련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각 정책대상들에게 효용증대를 목적으로 개별 추진
 - 관광객들의 행동패턴에 따라 연계되어 있는 부처간 대상사업들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정책완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협력과제가 필수적임
- ☑ 관광진흥 중장기 정책을 경제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의 전환 요구
 -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문체부 정책비전의 저변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며 국민행복, 복지측면에서의 정부역할이 확대
 - 제1차 관광진흥 5개년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관광은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되었으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삶에 대한 태도변화 등 정치·사회적으로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관광정책을 경제관 점에서 사람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

2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방향

- ☑ 국민 모두가 관광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사회 실현
 - 국민들에게는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고 관광사업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도모되어 관광을 통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 마련
 - 관광을 통한 한국경제 및 관광산업발전 기반 마련
 - 국내 경제적 현안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비위축 등 저성장 경제구조의 극복과 함께 고령사회, 1인가구 증가 등에 대응한 정책제안
 - 높은 고용창출 능력과 관광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제시
- ☑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전반의 동반성장 기회 마련
 -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에서는 공정한 예산 및 기회를 배분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의 방향제시
- ☑ 국민행복 추구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현 정부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에서는 관광분야 고용의 양적 확대와 고용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
- ☑ 4차 산업혁명의 안정적인 대응과 혁신적인 활용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환경변화를 관광객, 관광사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으로 행복한 사회의 실현
- ☑ 인바운드 전략적 마케팅 강화 및 수용태세 개선
 - 중국 및 일본과 같은 기존의 주요 인바운드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주, 유럽 등과 같이 주요국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강화하여 매력도 증진
 -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불편해소, 편의증진을 위해 전반적인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각인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제3절

비전과 목표

1

주요 정책 키워드

- ☑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는 국민, 정의(justice), 복지, 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체부도 이러한 기조아래 사람이 있는 정책의 비전을 수립중에 있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체부 문화비전 2030, 문체부 관광정책국 미래관광발전포럼 등에서 제시된 정책 비전, 방향 등의 키워드를 정리
- ☑ 전문가 조사를 통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우선적인 핵심가치는 국민행복 추구, 외래객 시장다변화, 관광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매력도 제고 등으로 나타났으며 모두를 위한 관광정책을 비전의 핵심가치 키워드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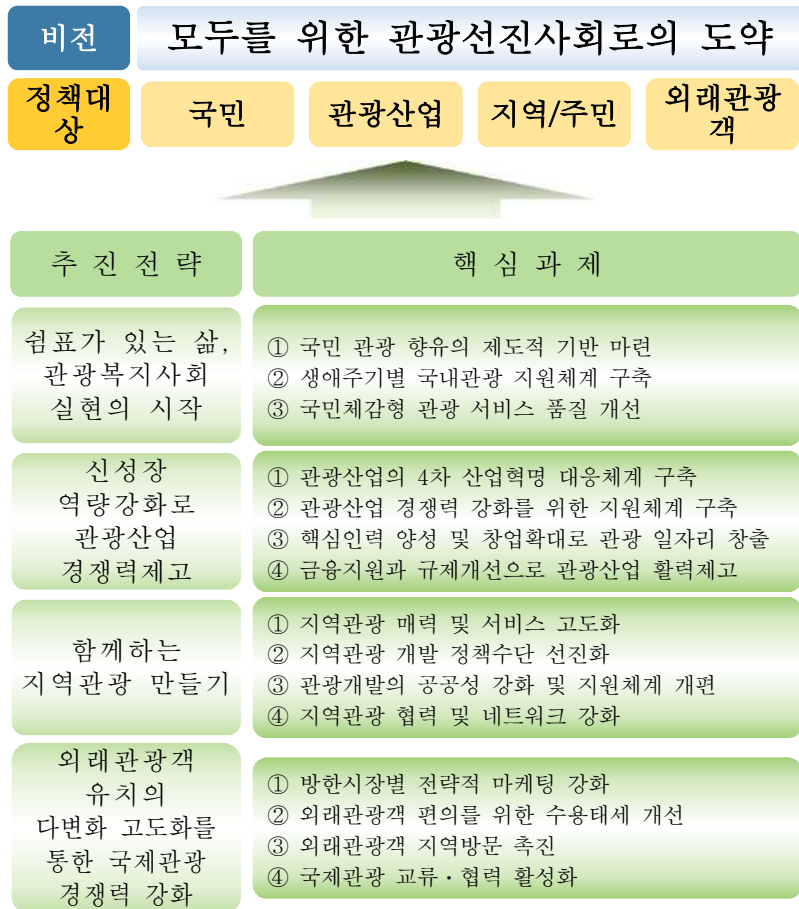
[그림 IV-3] 주요 정책 키워드

☑ 모두를 위한 관광선진사회로의 도약

- 관광정책의 대상이 관광객, 사업체 등 뿐만 아니라 관광약자(노인, 장애인 등), 종사원까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로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함
- 관광을 통해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육성해나감
- 국민·사업체·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광을 통해 심리적·금전적인 만족을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 모든 조건속에서 관광으로 선진화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앞으로 한국관광의 미래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을 제안하여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하며 신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제시된 국정과제를 관광분야에서도 방향과 목적을 향후 5년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를 완성함
- 본 계획은 질적 측면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관광으로 선진화된 한국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넘어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그림 IV-4]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비전 및 정책대상



법·제도 추진기반 조성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V

부문별 정책과제

제1절 **쉽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의 시작**

제2절 **신성장 역량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제3절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

제4절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고도화**

제 1 절

쉽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의 시작

1

국내관광 진흥전략의 필요성

가. 정책목적

☒ 관광 향유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 국민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관광향유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제약요인 완화
- *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 1위 관광활동(38.3%), 2위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각 12.2%)

☒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참여 여건 개선

- 관광 향유 주체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제약요인, 선호도 및 관광패턴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
- 코레일에서 시행하는 ‘내일로’ 등 계층별 관광 참여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필요

☒ 국민체감형 국내관광 편의성 제고

- 교통, 숙박, 관광정보, 안내 등 국민 국내관광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 체감도 및 관광 편의성 제고

☒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 국내관광에 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서 탈피하여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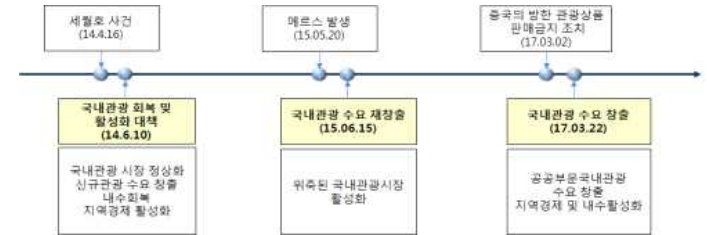


나. 정책대상의 범위

- ☑ 국내관광 정책은 국내여행을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청소년, 근로자,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관광참여 여건과 특성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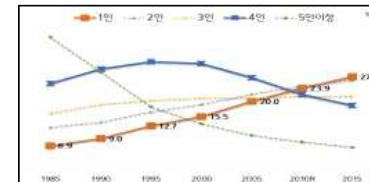
다. 정책방향

- ☑ 국내관광진흥은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인식 전환을 토대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는 관광, 관광복지 실현”을 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
- ☑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관광향유, 생애주기, 품질”로 관광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행복을 실현함
- ☑ 국내관광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은 ①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관광 참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③ 국민들의 관광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④ 스마트 기술 기반의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설정함



[그림 V-1]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 ☑ 이슈 중심의 대책 마련에 따른 정책 추진의 체계화 미흡
 - 세월호 사건 이후, 청소년 관광 안전대책 마련 등 대책 마련 중심의 접근 방식의 한계
 - 사회구성원의 인구구조 및 삶의 패턴 변화, 생애주기 등 계층별 특성을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한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단위: %)

시기	1인 가구 비중
1985	6.9
1990	9.0
1995	12.7
2000	15.5
2005	20.0
2010	23.9
2015	27.2

[그림 V-2] 가족원 변화(좌) 및 1인 가구원 수 규모(우)

- ☑ 관광의 가치에 관한 인식 전환 필요
 - 국내관광에 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
 - 국내관광 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관광수요 창출,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에 집중
 - 세월호, 메르스, 사드 이슈 등으로 관광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반복
 - 국민 관광복지 측면에서 국내관광 향유에 관한 본질적 접근 필요

- ☑ 관광자원 개발, 홍보 중심의 예산 투입에 따른 국민체감도 제고의 한계
 - 국내관광 활성화 분야의 예산은 광고 및 홍보, 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중심으로 운용
 - * 국내 관광진흥예산(43,107백만 원)의 81.5% 활용
 -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분야에 편중된 국내관광 관련 예산 운용 방식으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미흡, 국민체감도 제고의 한계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광 예산 비중은 0.08% 수준으로 전년대비 감소('17년 기준, 13억 원)



<표 V-1> 국내관광부문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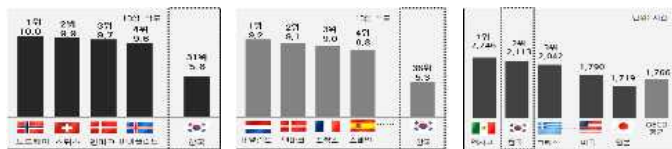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내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관광부문 전체 지출제정 (A)		1,092,250	1,228,777	1,369,194	1,408,085	1,550,948
국내 관광진흥 관련 예산 합계 (B)		31,862	40,645	47,372	32,560	43,107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관광활성화 광고 및 홍보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지역별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정보화 관광두레 조성 등 	12,737	16,520	20,545	24,020	35,119*
취약계층 복지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취약계층 여행 경비 지원 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7,125	10,625	12,127	1,500	1,300*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민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개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정비 	12,000	13,500	14,700	7,040	6,688
예산 비중 (B/A, %)		2.9	3.3	3.5	2.3	2.8

자료: 연도별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은 17년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 예산을 분리하여 제시

☑ 열악한 근로자 휴가 환경 및 여건

-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회원국(38개) 중 31위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 부문에서 한국은 36위
- * 연간 근로시간: 한국 2,113시간, OECD 회원국 평균 1,766시간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16)

[그림 V-3] 삶의 질 만족도(좌), 일과 생활의 균형(중), 평균근로시간(우)

- 한국의 연차휴가는 15일로 부여일수가 가장 짧은 국가군에 속하며,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유급휴가 적용 및 휴가 부여의 차이 발생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V-4] 주요국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 실태(좌)와 연차휴가 미사용 사유(우)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6)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그림 V-5] 고용형태별 유급휴가 적용 추이(좌)와 사업장 규모 연차 휴가 사용 실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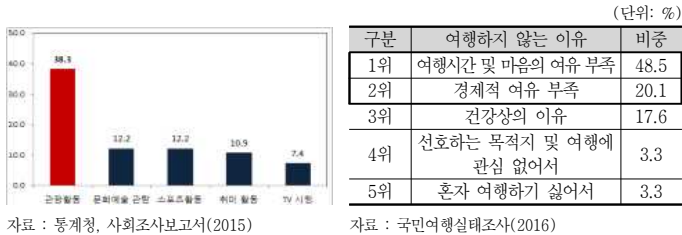
☑ 국내관광 향유의 시간적·경제적 제약요인 고착화

- 관광 향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높은 반면, 시간 및 심리적(48.5%), 경제적(20.1%), 신체적(17.6%) 제약 요인 고착화
- * 3대 제약요인 비중: 79.0%('06) → 86.2%('15)
- 시간적 제약은 완화된 반면, 경제적, 신체적 제약요인 증가



[그림 V-6] 국내관광 제약요인(2006~2015)

- 20~30대는 시간심리적 제약요인, 40대 이후부터 경제적 요인, 60대 이후는 신체적 제약요인 작용



[그림 V-7]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좌)과 여행 제약요인(우)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관광여건 개선 필요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규모는 2,726,910명으로 인구의 5% 차지
- 일반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는 혼자 여행 및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지체, 시각, 청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등록 장애인 중 혼자 여행이 가능한 장애인 규모는 1,817,77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2.6%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쉽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핵심과제 1 국민 관광 향유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1-1] 관광기본권의 법제화를 통한 위상 제고
- [1-1-2] 대체휴일제 등 합리적 휴가제도 개선
- [1-1-3] '여행이 있는 주말' 등 단기휴가제 확산
- [1-1-4] 국내관광 세제 혜택 확대
- [1-1-5]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정보제공 강화

핵심과제 2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지원체계 구축

- [1-2-1] 체험기반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 발굴
- [1-2-2] 청년 희망여행 패키지 도입
- [1-2-3] 쉽표가 있는 삶 실현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도입
- [1-2-4] 노년층 대상 '실버여행학교' 도입
- [1-2-5] 취약계층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핵심과제 3 국민체감형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 [1-3-1] 휴양소 시설 공유를 위한 나눔관광 플랫폼 구축
- [1-3-2] 국내관광 교통 환경 개선
- [1-3-3] 가족 휴가마을 조성 등 숙박 환경 개선
- [1-3-4] 국민 관광 안전 체계 구축
- [1-3-5] 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보 서비스 도입
- [1-3-6]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공유경제 통합 모델 도입



(1) 국민 관광 향유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1-1] 관광기본권의 법제화를 통한 위상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세계관광윤리강령(1999) 및 마닐라 선언(1980)에 따르면 관광을 인권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 관광향유 기본권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접근 필요
 - * 마닐라 선언(1980) : 휴일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여행의 자유는 각 국가의 실정법의 보장에 의해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함
 - * 세계관광윤리강령(1999) : 관광활동은 인권을 증진해야 하며,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개별적 권익을 증진해야 함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에 따르면 여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의 여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여가의 중요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식 제고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추진방안

- 관광기본법에 관광 향유를 위한 개인의 권리 등 관광기본권 관련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써 관광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관광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00조(국민관광 참여여건의 개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관광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휴가·휴일제도의 개선
 2. 관광비용의 부담 완화
 3. 관광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4. 그 밖에 국민의 관광 참여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국민의 관광 참여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00조(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국내여행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노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1-2] 대체휴일제 등 합리적 휴가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가시간 확충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 및 학교기관에만 적용되며, 매년 총 공휴일 수가 일정하지 않은 불확실성 문제 발생
-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휴일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부처 및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로 인해 다양한 한계 작용
 - * 4년간의 논의를 통해 2013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했으나, 당시 안전행정부는 설날·추석 명절 연휴 및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형태로 시행
- OECD 주요국에 비해서 한국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연차휴가 부여일 수가 짧으며, 사용률도 낮은 수준
 - OECD 주요국 연차휴가: 15~30일, 한국은 15일(연차휴가 소진률 : 60.6%)

추진방안

- 1)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휴가 적치제 도입
- 연차 휴가의 낮은 소진률,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가지 못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도입 확산을 위한 휴가환경 개선 캠페인 추진
 -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차 휴가의 자율적 시행을 위한 '열린 휴가' 캠페인 실시
 - 휴가문화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서 근로자 휴가 환경 개선 유도
 - * 진에어 '바른 휴가 운동' 캠페인 :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 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 진에어는 사내에서부터 전 직원 대상 휴가 사용을 독려, 휴가 사용률이 높은 팀에게 분기별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휴가 사진 공모전, 추첨을 통한 휴가 지원금 전달 프로그램 운영



■ 영국의 휴가적치제 운영 사례

- 영국에서는 노사가 서면으로 고용계약에 합의하면, 일부 유형의 연차휴가(1.6주)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병가나 모성(부성) 휴가 사용에 따라 연차휴가의 일부 혹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로 이월 사용 가능

■ 호주 연차휴가의 적립 및 현금보상 금지

- 호주는 기본적으로 연간 4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Fair Work Act 2009 제87조), 연차유급 휴가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음
- 발생한 휴가는 당해 연도에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기한 없이 적립될 수 있음

2) 대체휴일제 도입 등 휴가제도 개선

- 국가 공휴일체계의 불확실성 문제 해소와 국민에 대한 공휴일 혜택 적용, 연휴 생성 등을 통하여 현행 공휴일체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일반 법제화를 통해 국민 전체에 적용
 - 대체공휴일 제도(현재 명절, 어린이날 대상)를 전체 공휴일에 대해 확대 적용
 - 역사적 의미가 미흡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요일지정 공휴일제도 도입
 - 두 개의 공휴일 사이에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샌드위치데이 제도 도입

□ [1-1-3] '여행이 있는 주말' 등 단기휴가제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회원국(38개) 중 31위,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에서 한국은 36위
 -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 1,766시간, 한국은 2,113시간
 - 성장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 근로자 초과근무 실태

- 일생활균형재단 산하 WLB 연구소가 발표한 '2017 직장인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가운데 27.5%가 일주일에 1~2회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 달에 1~2회 초과 근무비율은 27.3%, 매일 초과 근무비율은 15%에 달함

-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중국의 2.5 단기 휴가제 등 주변국에서도 금요일 조기 퇴근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

추진방안

-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를 통한 2.5 휴가제 확산
 - (여행이 있는 주말) 매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를 통한 2.5 단기휴가제 확산
 - (2.5 단기휴가제)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한(5시간 기준) 경우, 금요일에 조기 퇴근하여 국내여행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
 - * 여행이 있는 주말은 연 단위로 추가 근무시간을 산정, 금요일 조기퇴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초기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과 연계해 참여를 확대하며, 민간 기업 중 참여 실적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여가친화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검토
 - '여행이 있는 주말'과 연계하여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 할인혜택 등 국내관광 수요 창출 및 관광 편의성 제고

■ 중국 2.5 단기휴가제

- 중국은 관광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휴식할 수 있는 2.5일 휴가제를 도입(2015. 8)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관광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과 기관에서 **여름철에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휴식할 수 있는 '2.5 단기휴가제'를 제정할 것을 권장**

■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 일본 정부가 근무방식 개선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3시간 조기 퇴근하는 제도 도입(2017. 2. 24 시행)
- 일본 상용 근로자의 야근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163곳이 월 80시간 초과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과로사 제로 긴급대책'**을 발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 이 대책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고, 상사의 일방적인 야근 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베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과로사 라인을 초과한 기업명을 공개하고, 시정조치 등을 강행함
-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시 희망하는 활동으로 **1위 여행(31.5%)**, 2위 휴식(30.3%)로 조사



□ [1-1-4] 국내관광 세제 혜택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세계경기 침체, 수출 부진 등 외부환경의 악화에 따라 국내 내수시장의 확보 및 관광수요 촉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여행 참가자수, 참여횟수, 이동총량 등 국내관광 시장은 정체상태로써 관광시장 확대에 한계로 작용
 - 정부에서는 여행주간,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다양한 정책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국내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캠페인, 판촉 행사만으로는 효과를 거두는데 다양한 한계 작용
- 관광활동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활동의 비용 인하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필요
 - 관광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문제는 여행비용 인하 문제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광복지 향상 차원에서 필요

■ 태국의 여행비용 소득공제

- 태국은 2015년부터 여행 관련 증빙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THB 15,000(원화 약 50만)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
 - 국내여행비용, 숙박비 중 영수증 제출이 가능한 비용에 대해 인정
-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침체되자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여행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
 - 2015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년 연장 적용

추진방안

- 숙박비와 국내 단체여행비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도입
 - 공제방법은 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세액공제로 하는 방안이 적절하며, 공제대상은 숙박비와 국내 단체여행비로 한정
 - * 여행비용은 교통비, 숙박비, 쇼핑비, 외식비, 유흥비, 입장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숙박비와 단체여행비를 제외하고는 여행지에서의 사용 입증에 불가능
 - 공제대상금액은 소득구간별 숙박비, 국내 단체여행비 지출액이 연평균 소득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지출 총액 전액을 공제적용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
 - 공제한도는 1백만원, 공제율 15%로 설정 가능
 - * 소득구간별 숙박비, 국내 단체여행비에 대해 한도액 100만원 설정
 - * 공제율 15%는 의료비, 교육비 등과 동일하게 설정

□ [1-1-5]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정보제공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향유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인 도서, 영화, 공연 등 소액단위 지출이 가능하나 여행 분야는 지출 규모가 크므로 소비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한 접근 필요
 - * 문화누리카드 여행분야 지출 비중: 7.8%('14) → 8.6%('15) → 12.3%('16)
 - 관광취약계층의 경우, 국내여행에 관한 정보의 제약이 작용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정보제공 강화

■ 현 문화누리카드 사업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 1인당 연간 7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 수혜대상 : 6세(201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누리집 접속

추진방안

-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여행 정보제공 기능 강화
 - 문화누리카드 맞춤형 여행상품 발굴(전국 철도 이용권(패스) 가격할인, KTX 좌석 지정할인, 시티투어 무료 등), 여행사 연계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현 수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여행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국내여행 향유 촉진

■ 문화누리카드 확대(안)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문화누리 맞춤형 여행상품 제공
- 수혜대상 : 6세(201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등
- 신청방법 : 주민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누리집 접속



[2]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지원체계 구축

□ [1-2-1] 체험기반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 발굴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수학여행이 소규모 테마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 일본에서는 명소나 고적 답사보다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숙박하는 '체험형' 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80% 이상이 체험형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이후, 토요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일회성 행사 과다, 학교예의 지나친 의존, 프로그램 수에 비해 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 최근 학생들의 학습스트레스 과다, 진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진로체험 교육,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
- 또한 재량휴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맞벌이 부모 자녀의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학교,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대체학습 프로그램 발굴 필요

■ 프랑스의 가드 프로그램

- 프랑스의 가드 프로그램 등 유럽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 및 단체 간 계약과 연계 협력에 의해 개발하여 여행,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추진방안

- 여행 캠프 활성화, 공동 연계 방학캠프 방식의 확대, 방학 캠프 활성화 분위기 조성, 기업 연계 캠프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 학습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
- 1일 일정의 체험교육 프로그램보다 숙박을 포함한 여행 캠프활성화
 - 방학캠프, 테마여행, 학습관광 등 단기 수학여행식의 단체 여행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 관광공사, 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계 방학캠프 방식 확대
 - 교과서속 역사문화, 농산어촌, 자연생태, 과학탐구, 산업관광, 공정여행, 볼런투 어리즘 등을 주제로 한 여행상품

- 특정기관 단독에 의한 캠프 행사로는 확장에 한계를 지니므로 기관 간 연계, 공동 행사진행 등으로 행사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방학 캠프가 활성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공헌 프로그램 차원에서 기업의 진로교육, 산업시찰, 상품체험 등을 위주로 하는 캠프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청소년 학습관광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급별, 지역별, 테마별로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 컨설팅 제공
- 방학캠프, 테마여행, 학습관광 등 단기 수학여행식의 단체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 [1-2-2] 청년 희망여행 패키지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층의 좌절과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9.8%), 구직 단념자를 포함하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예상됨
-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여행경험률은 85.0%, 여행횟수는 3.77회, 여행 일 수는 6.79일로 청년층의 여행 참여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일본 관광청의 연구 결과, 청년기에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여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여행 활성화가 중요 과제로 부상

추진방안

- 취약계층 가정 대상 성년의 날을 맞는 청년에게 여행바우처 지급
- 청년 희망여행(바우처)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을 맞는 청년에게 국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지급
 - * 소요예산: 433,261명×2.6%(기초생활수급률)×100,000원=11억2,647만원
- 문화누리카드 이용 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청년 희망여행 바우처는 교통, 숙박, 관광지 입장료 등 관광활동으로 한정
- 국내관광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여행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관광 향유 기회 확대



- (청년 희망여행 패키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내일로' 패스를 보유한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지,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혜택 제공
- (공공)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험관, 전시관 등 참여확대 추진
- (민간) 여행주간 할인혜택 참여기업 중 청년 희망여행 패키지 할인혜택 참여기업 모집을 통하여 이용 범위 확대
- 내일로 패스를 기반으로 교통, 숙박, 관광지 이용에 관한 할인혜택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여행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여행바우처

-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를 제공하여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행되는 제도. 숙박, 항공, 렌터카, 여행사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함
- 관광분야의 바우처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s)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다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후 2010년 재개되었으며, 2011년에 들어서 다시 기준이 재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인 관광소비 창출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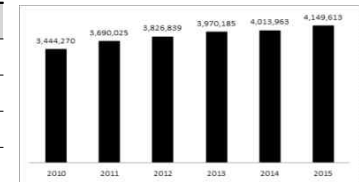
- 참여기업 대상 여행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개최

■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는 1982년부터 국내여행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
- 유럽 전반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15년 체크바캉스 발행량은 15.7억 유로로 최고지 갱신
- 프랑스 인구의 약6.2%가 수혜자, 가족단위 이용을 포함하면 15.0%로 추정

구분	내용	비고
수혜자	415만명	전년대비 3.4% 증가
발행금액	15.7억 유로	전년대비 2.4% 증가
가입단체	32,000개소	1993년 8,000개소
가맹점	170,000개소	1993년 130,000개소

[체크바캉스 주요 성과(2015)]



[체크바캉스 수혜자 증가 추이]

□ [1-2-3] 쉽표가 있는 삶 실현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높은 여행 수요에 반해 시간 및 심리적, 경제적 제약요인 작용
 - *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 1위 여행(38.3%), 2위 문화예술 관람(12.2%)
 - * 여행하지 않는 이유: 1위 시간 및 심리적(48.5%), 2위 경제적(20.1%) 제약요인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사용 제약요인은 1위 직장 내 분위기(44.8%), 2위 업무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3위 연차휴가 보상금(28.7%) 등으로 직장 내 분위기와 업무과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추진방안

-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경비의 일부 지원을 통한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 촉진
 - 기업체, 근로자, 정부의 여행경비 공동 부담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1-2-4] 노년층 대상 '실버여행학교'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행 및 평생교육의 욕구 증가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 고령층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 증가
 -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행 및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결합한 새로운 여행시스템의 도입 필요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2%로 고령사회 진입 단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추진방안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엘더호스텔 한국지부 설립
 - 실버여행학교) 고령층의 여행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여행시스템으로 '실버여행학교' 도입



<표 V-2> 실버여행학교 운영방향

구분	내용
운영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운영기관	대학(평생학습센터), 지역(문화센터)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고령층 여행' 교육과정 도입 시니어의 국내여행 교육과정 운영(1주일 프로그램) 국내여행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활용하여 노년층의 국내여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실버여행학교 운영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운영 비용 일부 지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에 혼자 도전할 수 있는 국내여행 손자와 함께하는 체험여행(손자와 상호학습과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 자원봉사 여행(학생들의 여행지도, 여행을 통한 봉사참여)

- 기존의 교육 및 복지전달 체계와 연동하여 대학의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효과성 제고
- 대학(평생학습센터), 지역(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적 확대
- (엘더호스텔 한국지부 설립) 고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테마 학습 프로그램인 '엘더호스텔(Elderhostel)' 한국지부 설립 추진
- 엘더호스텔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하여 고령층 여행교육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공유
 - *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은 세계 90개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중국 등 13개국이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미가입한 상태

■ 엘더호스텔과 로드스칼라(미국)

- 엘더호스텔은 고령층의 여가활동과 평생교육 욕구가 결합된 관광서비스 형태인 엘더호스텔(Elderhostel)을 운영, 평생교육으로서의 모험(Adventure in Lifelong Learning)'을 슬로건으로 전세계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
- 로드스칼라(Road Scholar)는 길에서 배우는 여행을 모토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패키지(숙박, 식사, 강의 등이 포함)

□ [1-2-5] 취약계층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세계관광기구(UNWTO)는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각국에 권고
 - * 65세 이상 인구: 657만 명, 장애인: 249만 명(2015년 기준)
- 관광에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서 고령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광 향유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방안

- 열린관광지 확대 및 열린관광도시 선정
 - (열린관광지)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를 2022년까지 70개 수준으로 확대
 - * 열린관광지 지정 현황(총19개) : 2015년(6개), 2016년(7개), 2017년(6개)
 - (열린관광도시) 도시내 관광지, 관광기간 연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 단위의 '열린관광도시' 선정
 - 도시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주요 관광기간 연계 체계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열린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 *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5개 내외의 도시 단위로 선정,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 확대
 -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서 주요 관광기간 연계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열린관광토론회, 17.7.26)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 *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하여 디자인하는 사고방식
 - 취약계층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교통, 숙박시설 등), 취약계층 관광 불편요소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 일본 유니버설 프로그램

- 일본은 전체 인구의 23%에 이르는 고령자들과 장애인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정보와 관광시설을 제공하고 직원의 교육을 강화
- 일본 미에현과 이세시마 지역에 고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인 'barrier-free center' 개설



[3] 국민체감형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 [1-3-1] 휴양소 시설 공유를 위한 나눔관광 플랫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국민들의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행에 참여하는 수요 증가
 - 기존의 자원봉사 여행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광복지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볼런투어 프로그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학생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의 농촌 일손 돕기 활동,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잔치 개최 등

추진방안

- 나눔관광 마일리지) 자원봉사 여행 참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공공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볼런투어 투어 프로그램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원봉사 여행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내관광 향유 기회 확대
 - (청소년) 1365 자원봉사포털과 나눔관광 마일리지 사업 연계
 - (청년) 취약계층 여행프로그램 봉사, 청소년 교육여행 안전지도 봉사 등에 참여 유도
 - (중장년층) 청소년 관광 안내 및 해설, 기타 취약계층 여행 프로그램 봉사
 - 나눔관광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참여 대상,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방법 등 구축 후, 광역권별 대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 * 나눔관광 마일리지는 봉사시간당 일정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카드 발급하여 공공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관광시설 입장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포인트 활용시 관광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활용
 - * 나눔관광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은 자원봉사센터, 1365 봉사포털 등 시스템과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 구체적인 시스템 도입방안은 향후 검토

□ [1-3-2] 국내관광 교통 환경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교통체계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
- 지방관광 교통서비스 체계는 관광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
 - 결정지에 교통수단이 배치되어 있으나, 배차정보를 알 수 없고 간격이 긴 편임
 - 목적지 정류장 위치파악, 버스노선 파악, 하차지점 파악 등이 어려우며, 연계 서비스 파악이 불가한 경우 발생
 - * 외지에서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정류장의 위치, 노선, 배차정보, 배차 간격 등을 파악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 수반
 - * 지역관광 교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필요
 - * 수도권 및 특정지역 중심의 관광패턴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시간 및 경제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으로 관광활동을 다닐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개발 필요

추진방안

1) 뚜벅이 관광 우수도시 선정

- 지역관광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뚜벅이 관광 우수도시' 선정 및 지원 확대
 - * 뚜벅이 관광 우수도시: 대중교통과 도보만으로 도시내에서 관광지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교통체계를 확충한 도시
 - (대상) 국내관광객의 선호도와 방문 수요가 높은 지역(2선 도시) 중심으로 선정
 - * 시범사업 단계: 연간 3개 도시 선정 → 2단계: 시범사업에서 선정한 뚜벅이 관광도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지역을 확대하여 지역간 연계교통체계 확충 → 3단계: 2~3개 인접지역을 연계하여 광역단위 관광교통체계 확충
 - (지원사항) 지역 내 관광교통체계에 대한 진단, 컨설팅을 통한 관광교통체계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 * 관광교통체계 개선 계획은 지역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계 교통까지 고려하여 수립(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
 - (사업내용) 지역의 주요 교통 결정점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관광활동에 필요한 교통체계 확충
 - 철도역, 터미널의 수하물 보관 및 배송 서비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관광교통체계, 관광객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1일 관광패스 도입, 뚜벅이 관광 전용 도로 관광안내체계 확충

2) 대한민국을 테마파크로_선불형 국내관광패스

- 주요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 교통(기차 및 고속버스 *지역내 교통은 추후 연계), 쇼핑 및 음식할인 등이 연계된 지역별 대표 관광패스 개발
 - 번거롭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기존의 충전식 패스가 아니라 선불형식의 패스로 구성되어 관광객들이 자신의 일정 및 관심사항별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선진국 패스 운영 사례

- 영국, 일본, 헝가리 등 주요 관광선진국에서는 선불형 관광패스를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이를 국내관광에 적용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시간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여주고 관광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함

3) 대한민국을 내집처럼_지역별 Train B&B 도입

- 대표적인 지역이동 수단인 기차와 지역의 저렴한 깨끗한 숙박시설(홈스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 아침식사 제공 필수서비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비용 때문에 여행을 꺼리는 서민들의 국내관광 접근성을 제고
 - (대상) 국내관광객의 선호도와 방문 수요가 높은 지역(2선 도시) 중심으로 선정
 - * 시범사업 단계: 코레일과 연계하여 연간 3개 도시 선정 → 2단계: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지역의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연계 효과 제고 → 3단계: 2~3개 인접지역을 연계하여 코레일+광역단위 관광교통체계 정비
 - (추진 방안) 각 지자체에서 코레일과 협력하고 지역내 저렴한 깨끗한 숙박시설(홈스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을 선정하여 Train B&B 상품을 구성,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내 숙박업소가 협력적으로 추진
 - * Train B&B라는 이름에 걸맞게 숙박시설에서 숙박서비스와 함께 간단한 셀프 조식 서비스(토스트, 죽, 음료수 등 비치) 제공
 - (차별화)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부가서비스 개발로 차별화 추진
 - * 할인쿠폰,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지역의 고유한 관광체험활동, 지역대표 특산물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 차별화로 지역관광의 부가가치를 창출
 - (지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Train B&B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별 상품이 쉽게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공사를 통해 홍보 추진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 [1-3-3] 가족 휴가마을 조성 등 숙박 환경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국내관광 동반 행태 중 가족단위 관광이 높은 비중을 차지
 - 가족단위 관광객 맞춤형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 필요
 - * 국내 가구여행 중 동거가족/친척 동반: 78.7%(‘13)→78.4%(‘14)→80.7%(‘15)
 - * 숙박시설: 1위 가족/친지집(48.8%), 2위 펜션(15.9%), 3위 콘도미니엄(8.3%)
- 새로운 숙박 패턴으로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캠핑관련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 증가
- 글램핑 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는 야영장업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등록 및 운영 중인 야영장업체는 총 1,671개소(‘17. 2월 기준)
 - *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는 화재, 질식, 감전, 산사태, 풍수해 등

추진방안

1) 근로자 휴가숙소 및 휴가마을 조성

- 공공·민간기업 매칭펀드 방식으로 가족 휴가숙소 및 휴가마을 조성
 - 가족 휴가숙소 및 휴가마을 조성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체류형 휴가를 위한 국민관광 휴양지 모델로 개발
 - * 가족관광객 대상 캠핑장 및 야영장 확충과 연계 추진
 - 지역 단위 유희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가족휴가 숙소 조성
 - 문화체험형, 농촌체험형, 휴양형 등 테마별 가족 휴가마을 조성
- 프랑스의 가족 휴가마을: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식음, 레저 등 종합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단체시설을 갖춘 체류형 휴양단지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휴가공간 마련, 지역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문화적 활동 추진
- 휴가마을: 1,066개소, 이용객: 270,311명
- VVF 개발시 토지의 무상매입과 국영은행의 50% 지원 및 기타 지원을 받으며, 완공 이후 자본금을 부담한 국가, 단체, 개인에 사용 우선권 부여



[프랑스의 가족휴가 마을(VVF: Vacances Villages Families)]

[프랑스 가족휴가 마을 분포도]



2) 글램핑 양성화 및 우수야영제도 인증제 도입

- 선진국형 글램핑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야영장업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 글램핑, 카라반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 현재 부대시설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에 미흡한 글램핑, 카라반 등의 시설에 대한 평가를 선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시설의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 공사를 통해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수 야영장업 육성

□ [1-3-4] 국민 관광 안전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지진, 관광교통 사고, 초미세먼지 등 국민 국내 관광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미흡
 -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는 대부분 타부처 소관이며, 관광 담당 부처의 역할 제한적

추진방안

- 국민의 안전한 국내관광을 위해서 관광지 연계 응급서비스 체계구축 및 성수기 관광지 진료소 운영 및 관광안전 체계 정비
 - 태풍·집중호우·지진·교통사고 등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비한 절차 및 대응 매뉴얼 수립·배포, 정기적 관광 안전 체계 점검 실시
 - * 관광지, 관광 교통수단, 관광 시설물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확립, 각종 관광 안전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사고 발생시 응급대응체계 확보를 위한 관광지 주변지역 의료 기관 연계한 응급서비스 체계 구축
 - 성수기 관광지에 의료기관 담당자 파견하여 비상설 진료소 운영
-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초미세먼지, 전염병, 지진, 화재 등과 관련한 관광안전 네트워크 구축
 - 관광 안전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관광 안전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유관 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고, 재난·재해·사고 등 발생 시 관광객 안전과 관련한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

- 안전 관련 관광시설인프라 점검, 공급주체 관리 감독(인적자원 안전교육, 사고예방 교육 등) 강화
 -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업 등 안전 모니터링, 안전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의 실시, 관광품질인증제 평가 항목 중 소방·안전 기준 강화
 - 관광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전담자 지정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초·중·고등학생의 단체 여행시 관광 안전 의식, 안전 여행 문화, 위기 시 대응 방안 등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1-3-5] 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보 서비스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국내관광 패턴이 특정 시기에 집중하면서 지역 편중, 교통 체증 등이 국내관광의 불편요소로 작용
 - 하계휴가 기간 중 실시하는 하계휴가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휴가패턴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정보 제공
 - * 직종별 하계휴가 집중 실시기간, 휴가 부여방식, 휴가비 지급 계획 등 조사
 - 단순 현상적 관광 수요 예보가 아닌 대응 중심의 관광 수요 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전달체계 확립 필요

추진방안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황금 연휴, 하계휴가 시즌 등 관광성수기 수요 예보 서비스 도입
 - 관광수요 예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보 제공 시스템 구축
 - * 관광 수요 예보 DB 관리시스템 및 관련 정보 생산·통보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광 수요 예보를 위한 관련 부처 협업 강화 등
 - 관광성수기 관광지별 검색 순위*, 지역별 방문수요**, 이용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 휴가계획 시 필요한 정보 제공
 - * 주요 대표 포털사이트의 트렌드 검색을 통해 휴가철 관광지 수요 발표
 - ** 성수기 관광객 분산을 목적으로 현재 교통혼잡 안내체계와 같은 주요 관광 목적지별 혼잡 상황도를 안내하는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는 관광지 혼잡 예보 제공
 - 관광 수요 예보 DB 구축 및 활성화와 융복합산업 창출을 위해서 시범사업 실시 (선도시범과제와 확산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국토교통부 통계 교통정보

- 통계 교통 정보는 '수 년 동안 매일 수집한 교통 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패턴(요일, 날짜, 명절 등)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교통 정보 안내 방법
- ① 데이터를 제공하는 샘플의 수가 많아 ② 전국 단위의 교통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시간 교통 정보에 비해 ③ 정확도가 높음, 또한 패턴화된 교통 통계 빅데이터로 특정 요일, 시간대에 막히는 경로 등 ④ 미래 상황을 예측하여 우회 도로로 안내 가능

□ [1-3-6]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공유경제 통합 모델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은 공공자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미관 및 주민 안전을 위협하여 관광객을 유도하는데 한계
 - 관광에서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관광객이 유휴자원 정보나 활용과 관련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공유경제 통합 모델 발굴 필요
- * 폐교 활용한 숙박시설, 폐공장 활용한 관광 상품, 철도 유휴부지 활용, (가칭)관광숙박진흥법 추진 등

추진방안

- 관광객들이 관광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유휴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통합형 플랫폼 구축
 - 관광유휴자원의 이용 관련 통계와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한 방안 수립
 - * (예시) 장기여행자를 위한 숙소, 유휴지 관광객 주차장 이용, 공공 및 민간 영역 휴양 시설 이용
 - *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유휴자원 정보를 DB화하여 공공 및 민간부분 제공 플랫폼 구축 지원, 지자체 참여를 위한 홍보 실시, 공공자원 이용 관련 부서 협업 추진
 - 유휴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관광 공유경제 통합형 플랫폼 구축
 - * 공유경제 플랫폼은 유휴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및 새로운 관광 매력물 확보를 지원
 - * 관광 유휴자원 공유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포털 운영(앱 포함), 관련 정보 및 예약 서비스 등 유휴자원 활용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관광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유휴자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 * 학교, 공공청사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시설의 개방을 점차적 확대하도록, 지자체 공모로 바로 활용 가능한 유휴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지속적으로 등록 유휴자원을 확대하고 제공 자원의 품질 관리 지원 추진



4

추진 일정(안)

검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핵심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1. 국민 관광 향유의 제도적 기반 마련		
1-1-1 관광기본권의 법제화를 통한 위상 제고	문체부	2018~2022
1-1-2 대체휴일제 등 합리적 휴가제도 개선	문체부, 행안부	2018~2022
1-1-3 '여행이 있는 주말' 등 단기휴가제 확산	문체부, 행안부	2018~2022
1-1-4 국내관광 세제 혜택 확대	문체부, 기재부	2018~2022
1-1-5 문화누리사업 지원 대상 정보제공 강화	문체부	2018~2022
1-2.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지원체계 구축		
1-2-1 체험기반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 발굴	문체부, 교육부	2018~2022
1-2-2 청년 희망여행 패키지 도입	문체부	2018~2022
1-2-3 검표가 있는 삶 실현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도입	문체부, 고용부	2018~2022
1-2-4 노년층 대상 '실버여행학교' 도입	문체부	2018~2022
1-2-5 취약계층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문체부	2018~2022
1-3. 국민체감형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1-3-1 휴양소 시설 공유를 위한 나눔관광 플랫폼 구축	문체부	2018~2020
1-3-2 국내관광 교통 환경 개선	문체부, 교통부	2018~2022
1-3-3 가족 휴가마을 조성 등 숙박 환경 개선	문체부	2018~2022
1-3-4 국민 관광 안전 체계 구축	문체부, 행안부	2018~2022
1-3-5 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보 서비스 도입	문체부	2018~2020
1-3-6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공유경제 통합 모델 도입	문체부	2018~2020

제2절

신성장 역량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1

관광산업정책의 필요성

가. 정책목적

- ☒ 관광산업 종합정책프레임 구축
 - 관광산업이 중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R&D 및 산업혁신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정책 마련
-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제4차 산업혁명 대응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정책의 인식개선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촉진 유도
- ☒ 관광산업 육성지원 대책 마련
 - 창의성과 상품성 등을 가진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대책 적극 추진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중장기 관광산업 종합정책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 산업영역의 확대, 관광산업 육성 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

나. 정책대상의 범위

- ☒ [관광사업체] 관광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역량의 강화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
- ☒ [예비관광사업체] 관광벤처와 지역중심의 창업을 지원하고, 향후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사업체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 ☒ [관광인력] 관광산업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현장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문제를 해결
- ☒ [관광산업투자자]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으로의 투자매력도 제고 및 투자수익확보와 관광산업 경쟁력확보를 동시에 유도
- ☒ [관광산업계 전반] 공정한 시장질서 아래 합리적 경쟁과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체계하에서 사업체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생태계 조성

다. 정책방향

- ☒ 국내관광진흥은 “관광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인식 전환을 토대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는 관광, 관광복지 실현”을 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
- ☒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관광향유, 생애주기, 품질, 전달체계”로 관광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행복을 실현함
- ☒ 국내관광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은 ①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관광 참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③ 국민들의 관광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④ 스마트 기술 기반의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설정함

2

관광산업 현황 및 진단

- ☒ 관광산업 정책의 종합적인 목표 부재
 - 지금까지의 관광정책은 관광자원개발과 내외국인 관광객의 시장확대에만 집중하여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
 - 지난 관광정책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왔으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은 낮은 관심을 보여왔음
- ☒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매출액 증가세는 둔화
 - 지난 5년간 관광사업체수는 연평균 10%씩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2.7%, 매출액은 1.7%로써 다소 둔화된 성장세를 나타냄



<표 V-3> 최근 5개년 관광사업체 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전체	18,926	18,441	20,769	23,874	27,696	10.0%
	여행업	12,438	11,722	12,854	14,607	16,605	7.5%
	관광숙박업	1,073	1,074	1,278	1,503	1,716	12.5%
	관광객이용시설업	353	385	336	1,213	3,168	73.1%
	국제회의업	485	508	677	619	700	9.6%
	카지노업	17	16	17	17	17	0.0%
	유원시설업	389	358	593	1,060	1,782	46.3%
	관광편의시설업	4,171	4,378	5,014	4,855	3,708	-2.9%
종사자수	전체	229,658	227,135	230,334	235,604	255,612	2.7%
	여행업	69,990	70,574	69,400	84,558	93,812	7.6%
	관광숙박업	70,803	63,899	67,465	70,305	73,226	0.8%
	관광객이용시설업	11,882	13,528	10,671	11,065	17,530	10.2%
	국제회의업	13,599	14,092	17,330	15,131	12,596	-1.9%
	카지노업	7,422	8,452	8,931	9,418	9,115	5.3%
	유원시설업	14,386	14,441	17,031	17,224	22,223	11.5%
	관광편의시설업	41,576	42,150	39,506	27,902	27,110	-10.1%
매출액	전체	23,555	23,289	22,567	22,358	25,211	1.7%
	여행업	5,909	5,799	5,322	6,473	6,948	4.1%
	관광숙박업	7,057	7,086	7,931	7,860	8,810	5.7%
	관광객이용시설업	1,902	2,167	814	789	969	-15.5%
	국제회의업	2,297	2,408	2,442	1,760	2,087	-2.4%
	카지노업	2,460	2,631	2,799	2,804	2,903	4.2%
	유원시설업	1,182	1,324	1,498	1,539	1,924	13.0%
	관광편의시설업	2,747	1,874	1,761	1,134	1,569	-13.1%

주: 1)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010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0.12.30)에 의해 2010년 기준 조사부터 대상 업종으로 추가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1.12.30)에 의해, 2012년 기준 조사부터 대상 업종으로 추가
 3)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4.7.16.)에 따라 2014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4) 일반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5.1.29.)에 의해 2015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
 5)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
 6) 관광연세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 추가

☑ 관광산업의 범위 확대와 신규업종 지원정책 미비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는 관광산업 시장규모와 관광사업체 매출액을 비교하였을 때 내외국인 관광객 활동에 50%에 머무는 수준

- 관광사업의 범위는 날로 확장되고 신규업종 출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부재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방한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리 수 감소를 보임
 - *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창조관광)기업 66개사는 제조, 출판, 도소매, 임대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나 관광사업체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
- 또한, 관광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광정보서비스업, 관광안내업, 온라인여행업, 유숙박업, 레저스포츠 체험업 등 다양한 업종이 출현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체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음

<표 V-4> 관광산업 시장규모와 관광사업체 매출액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국내관광(internal tourism) 시장규모(A)	39,139	43,869	41,291	45,590
관광사업체 매출액(B)	23,289	22,567	22,358	25,211
비율(B/A)	59.5	51.4	54.1	55.3

주: 국내관광(internal tourism)시장규모는 외국인국내관광지출액과 국민국내관광지출액의 합계를 의미함

☑ 관광사업체의 영세성으로 발전기반 구축 한계

- 관광사업체 개소당,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업종별 1인당 생산성과 효율성 기반의 경쟁력 정책 확대를 통해 영세업종 지원정책 시급
 - 관광사업체 개소당 매출액은 '15년 9.4억원 규모이며 관광사업체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015년 94.9백만원 수준
 - 관광사업체 개소당 매출액은 하락하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완하여야 함

<표 V-5> 관광사업체 개소당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0	2012	2014	2015	2016	연평균 성장률
개소당	전체(a)	1,251	1,245	1,087	937	910	-5.2
	여행업	345	475	414	443	418	3.3
	관광숙박업	6,185	6,577	6,205	5,229	5,134	-3.1
	관광객이용시설업	5,228	5,388	2,423	651	306	-37.7
	국제회의업	5,471	4,737	3,608	2,844	2,982	-9.6
	카지노업(b)	133,093	144,727	164,660	164,965	170,783	4.2

구분		2010	2012	2014	2015	2016	연평균 성장률
종사원 1인당	유원시설업	3,137	3,038	2,526	1,452	1,080	-16.3
	관광편의시설업	768	659	351	233	423	-9.5
	전체(a)	95.9	102.6	98.0	94.9	98.1	0.4
	여행업	64.1	84.4	76.7	76.5	120.6	11.1
	관광숙박업	91.8	99.7	117.6	111.8	132.4	6.3
	관광객이용시설업	160.2	160.1	76.3	71.3	25.7	-26.3
	국제회의업	180.3	168.9	140.9	116.3	249.3	5.5
	카지노업(b)	312.2	331.5	313.4	297.8	188.5	-8.1
	유원시설업	82.3	82.2	88.0	89.3	35.7	-13.0
	관광편의시설업	65.3	66.1	44.6	40.6	44.1	-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결과를 가공하였음.

☑ 외국기업의 국내지출확대에 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미흡

- 국내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광호텔 건립, 온라인여행사 및 중국 대형여행사 등의 국내진출은 활발하며 국내시장에 진입
- 2005년 이후 호텔부문 498건, 휴양콘도미니엄 175건, 일반국외여행업 293건,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에 78건 등이 신고됨
- 투자액으로는 호텔업이 18.2억불, 휴양콘도미니엄 3.1억불 등으로 나타남

<표 V-6>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현황

(단위: 건, 천 US\$)

구분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신고건수	투자액	신고건수	투자액	신고건수	투자액	신고건수	투자액
2005	10	18,725	11	10,900	34	12,290	4	150
2006	32	21,725	9	21,224	39	7,087	7	364
2007	90	84,895	25	27,617	15	9,834	15	2,123
2008	67	70,594	44	62,087	24	21,032	10	1,638
2009	38	43,064	18	11,152	24	2,118	4	162
2010	34	46,593	12	11,515	18	2,702	5	196
2011	53	110,014	9	77,856	18	3,834	3	250
2012	38	50,628	8	27,146	19	2,629	2	133
2013	26	64,367	13	44,429	12	1,753	5	413
2014	39	214,222	13	5,994	31	5,055	6	896
2015	39	611,297	6	8,906	23	2,563	5	520
2016	32	486,745	7	3,556	36	3,362	12	3,347
합계	498	1,822,869	175	312,381	293	74,259	78	10,19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접근과 지원의 부재로 관광사업체 해외 진출은 활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표 V-7> 국내기업의 해외관광사업 진출사례

업체명	지역	사업체 및 사업내용
금호아시아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범화컨트리클럽
	사이판	라우라우베이 골프리조트
금호건설	베트남 호치민	3개동 31층 규모의 최고급 대형 주상복합 건물건설(인터콘티넨탈 호텔과 경영계약)
	베트남 하노이	재개발을 통해 종합전시장 건설 및 잔여부지를 주거시설과 호텔 등으로 활용
한화리조트	사이판	사이판 월드리조트 (월드건설 인수)
	일본 나가사키	오션팰리스 골프리조트
GS건설	괌	라테라 타워콘도 (매각)
자유투어	마카오	카지노 사업진출 (매각)
HTC	중국 쓰촨성 청두	쓰촨금리인가주점관리유한공사
BXT리조트개발(주)	필리핀 세부	임피리얼 팰리스 세부 리조트
한화리조트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시	현지업체인 킹스밸리와 복합 리조트 단지 개발
남광토건	앙골라 르완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건설 및 지분참여
대한전선	필리핀 세부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리조트 재무적 투자자
호텔신라	중국 쑤저우	독자 브랜드 최초의 해외 첫 체인 호텔(2006년)
	베트남 하노이, 다낭	신라스테이(2018년)
신라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신라면세점(2014년)
	마카오	마카오공항점(2014년)
	태국	푸켓 시내점(2016년)
	일본	도쿄 시내점(2016년)
	홍콩	홍콩 첵락콕 공항 면세점 화장품·향수 사업권 획득(2017년 4월)
켄싱턴 호텔	사이판	호텔 리조트 3개 운영
롯데호텔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인근 호텔건립
	미국 뉴욕	뉴욕 더 팰리스 호텔(201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얀마 양곤, 일본 니가타현	호텔 및 리조트 오픈(2017년 하반기)
롯데면세점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면세점(2014년)
	일본 도쿄	긴자점(2016년)
	베트남	다낭공항점(2017년)
	태국	방콕 시내점(2017년)
현대호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1997년에 진출 4성급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일본 후쿠오카	임피리얼 팰리스 시티 호텔
	필리핀 팔라완	팔라완 호텔리조트(2019년 하반기)
엠코&미백산업	베트남 하이퐁시	복합리조트 공사(27홀 골프장과 콘도, 호텔, 빌라, 국제병원, 국제학교, 테마파크, 실버타운, 비즈니스타운 등)

자료: 국내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정리함



☑ 빅데이터, ICT 등 기술기반 R&D 기반 부족

- 제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위한 기반구축과 향후 활용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나,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원기반은 매우 미흡한 상황
 - 관광산업부문은 문체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2%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

<표 V-8>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2012	2013	2014	2015	2016(안)	성장율
문화기술연구개발	39,600	30,141	37,498	42,435	47,697	3.8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5,000	6,100	6,800	7,000	7,100	7.3
국내외연계융합형 창의인재양성	3,832	4,270	3,344	3,167	4,734	4.3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확산 및 관리	996	950	994	944	967	-0.6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	999	1,434	1,495	1,473	1,252	4.6
스포츠산업개발기반조성	7,200	7,200	8,400	13,000	14,071	14.3
문체부 합계	57,627	50,095	58,531	68,019	75,821	5.6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 비율	1.7	2.9	2.6	2.2	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서비스업종의 금융지원과 투자재원의 한계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융자지원을 제외한 지원규모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외 10%대를 유지하는 규모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타분야에 대해 부족한 상황
 - * 관광산업 육성지원 비율(산업지원액/운용규모, %) : ('13)15.4→('15)12.2→('16)11.6
- 관광산업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자금지원은 제한적임

<표 V-9> 연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1	2013	2015	2016계획	성장율
관광사업체육자지원(a)	213,081	312,000	613,193	500,000	18.6
관광진흥기반확충	65,652	97,014	99,862	119,170	12.7
관광산업육성(b)	88,479	91,399	98,299	90,487	0.4

구분	2011	2013	2015	2016계획	성장율
외래관광객유치	177,505	194,958	299,934	236,488	5.9
기금운영비	464	478	454	464	-
정부내부지출	20,000	51,500	2,019	58,899	24.1
여유자금운용	178,527	160,000	307,791	271,543	8.7
운용규모(c)	743,708	907,349	1,421,552	1,277,051	11.4
용자제의 운용규모(d=c-a)	530,627	595,349	808,359	777,051	7.9
관광사업육성지원 비율(b/d)	16.7	15.4	12.2	1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재정리함

☑ 관광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미흡

- 전국적으로 연간 8.9천명의 정규교육기관을 통한 관광인력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관광부문 취업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표 V-10>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교수	정원	입학생수	재적학생 수		졸업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전문대학(3년제)	31	3,220	3,550	7,028	3,239	2,912
전문대학(2년제)	34	3,388	3,830	7,335	3,166	2,612
대학교	43	2,987	3,310	11,098	3,047	2,073
방송통신대학	1	2,000	560	3,390	2,045	523
산업대학	2	100	115	300	70	12
사업대학(대학)	1	-	57	528	96	108
전공대학	1	650	659	1,302	547	665
계	113	12,345	12,081	30,981	12,210	8,9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관광자격제도를 제외한 관광인력 교육·훈련 정책(산학연 등)은 현재 부채한 상황 지속되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미흡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표 V-11> 관광종사원 교육실적

(단위: 명, 회당시간, 회)

교육기관별	교육과정명	교육실적	교육기간	교육횟수
한국관광공사	- 문화관광해설사테마아카데미	233	16시간	6
	- 전문프리미엄가이드양성교육	91	70시간	2
	- 관광통역안내사기본역량강화교육	362	30시간	7
	- 관광통역안내사역사문화재교육	451	25시간	6
	- 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	108	80시간	1
	- 관광대학생취업역량강화교육	82	3일	1
	- 관광고교교사및학생대상교육	155	8-22시간	8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관광안내소안내원역량강화교육(기초)	77	2일	2
	- 관광안내소안내원역량강화교육(심화)	250	2일	5
	- 관광안내자원봉사자기본교육	66	1일	3
	- 국내여행안내사역량강화교육	20	1일	1
한국관광통역 안내사협회	- 관광통역안내사관광안내실무교육	1,257	9일	13
기타 교육	-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3회)	75	21일	2
	- 유원시설안전교육(5개과정)	245	1-5일	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추진전략

신성장 역량 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핵심과제 1 관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 [2-1-1]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
- [2-1-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가칭) 관광산업 4.0센터' 설립
- [2-1-3]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
- [2-1-4]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 관광R&D 지원

핵심과제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2-1] 관광사업체 성장단계별 특화지원체계 구축
- [2-2-2] 업종개편 및 유연한 진입으로 관광사업 범위 확대
- [2-2-3]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관광사업체 발전유도
- [2-2-4] 관광산업 글로벌 혁신비즈니스 멘토링 지원
- [2-2-5] 관광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체계 구축

핵심과제 3 핵심인력 양성·창업확대로 관광 일자리 창출

- [2-3-1] 관광인력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 [2-3-2]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 수급분석체계 구축
- [2-3-3] 산학협력 인력 양성체계 구축
- [2-3-4] 관광산업분야 신규직종 및 관광업종 발굴
- [2-3-5] 지역중심의 관광창업 지원체계 구축

핵심과제 4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으로 관광산업 활력 제고

- [2-4-1]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체계의 다양화 추진
- [2-4-2] 관광진흥개발기금 투자기능 강화
- [2-4-3] 관광산업 상시규제 발굴 및 원스톱 규제개혁 체계 구축
- [2-4-4] 관광산업 분쟁조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1) 관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 [2-1-1]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전반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융합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광산업 산업 부문의 대응체계는 미흡
 -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장 기반의 구축하고, 연계협력을 위한 산업데이터 기반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
- 공공부문의 다양한 데이터와 산업·소비자유통 등 산업부문의 빅데이터 간의 협력은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지역관광체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임
 -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터, 5G 등 다양한 미래 기술 발전을 활용한 관광비즈니스 확장과 신산업 발굴 필요
- 관광상품 판매·홍보망, 항공·철도·숙박·렌트카 예약망, 관광안내 및 교통체계 연계망 등 공공부문의 산업·소비자유통 빅데이터 서비스 발굴·육성하고, 융합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 현행은 항공사, 철도청 코레일서비스, 렌트카 사업체, 호텔숙박업 등 별도 서비스 운영 중이나 기술협력은 부재한 실정
 - 해외는 프라이스라인, 스카이스캐너, 카약 등 원스톱 글로벌 관광 예약서비스 및 신규 통합관광 예약 비즈니스 증가

추진방안

- 빅데이터에 기반한 관광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관광산업4.0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과 다양한 모델개발을 통해 대응체계 마련
 - 국내관광·인바운드관광 GDS·빅데이터 모델 개발
 - 빅데이터 기반 국내관광 및 지역기반 지역관광 빅데이터 모델 개발 지원(빅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동향 분기별 발표)
 - 지역관광 교통·숙박 기반 빅데이터 공유·신관광비즈니스 육성 체계 기반 조성 (철도청, 종합·국내여행업, 관광호텔·일반숙박·펜션·민박업, 렌트카, 문화관광시설, 시티투어 등 비즈니스 빅데이터 공유를 위한 관광빅데이터 마트 구축 운영)
 - 외래관광객 빅데이터 수집·공유·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인바운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 [2-1-2]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가칭) 관광산업 4.0센터’ 설립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광산업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타산업과의 융합 지원은 어려운 실정
 - 자치체 관광자원과 기술, 관광서비스, 관광자원, 유통체계 등 민간 부문간의 협력을 통한 관광혁신 지원체계 기능 설정 필요
 -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기능 설정 필요
- 관광부문의 산학연과 기술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확대 필요
 - 관광서비스 부문의 관광혁신 비즈니스 창출과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체계 기반 조성 시급
- 글로벌 관광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관광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인식도 제고와 교육을 위한 조직 체계 마련
 - 관광산업의 혁신성장 인식 제고를 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이해단체 및 시민참여형 정책 기반 마련

추진방안

- 첨단기술에 기반한 관광 및 연관산업 부문의 장치서비스 기술 개발사업화 지원정책과 관광산업 4.0 서비스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내 관광산업 4.0센터 설립
 -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관광포럼 및 글로벌 관광산업4.0 등 국제회의 개최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열린 관광 4.0 정책 포럼 운영
 - 관광산업 4.0 서비스 발굴 관산학연 사업단 구축
 - 미래 관광산업4.0 선도하는 관광사업체 첨단기술 매칭 지원
 - 학계와 산업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관광전공 학생들의 관광산업 취업통로로 활용(청년 관광서비스 혁신 성장 프로그램 운영)
 - 관광산업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관광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창구 운영, 시민참여형 정책 개발 및 규제와 장애 개선 발굴 포럼 개최)

□ [2-1-3]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관광산업을 국가의 신성장산업군*에 관광산업이 제외되어 정책금융 등의 성장지원정책 대상에 불포함
 - 2017년 WEF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우선순위는 63위로 여전히 타국가에 비해 낮은 순위
 - 해외 주요국에서는 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범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유도
 - * 신성장산업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금융위, 2016.12)

추진방안

- 성장성·융합·고용창출 등의 부문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성장사업군에 관광산업을 포함하고, 정책금융 지원으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
 - 관광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신성장산업군* 관광산업부문을 추가
 - 관광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내 민관이 함께하는 관광신성장위원회 구성
 - * 경제산업·관광부문 정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관광산업 신성장방안 마련
 - 관광산업부문 정책지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개발 및 여신·투자심사시우대 유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신성장 정책금융기관과의 관광산업부문 지원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1-4]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 관광R&D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광서비스 R&D는 핵심적 기술기반형 산업혁신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액('18년 1,250백만원) 한계와 지원체계가 미흡(전담인력 부재)한 실정
 - 관광서비스 R&D 재정지원 규모 한계, 2년이하 단기 개발 방식, 미약한 추진 체계 미약, 관광사업체 낮은 참여도, 질 좋은 관광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관광기업에 대한 R&D사업 부재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부족
 - 관광서비스 R&D 사업은 시스템통합 기반의 지원체계 수준에 머물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기반 지원도 부족한 상황

추진방안

- 체계적인 관광서비스 R&D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 지원범위확대 및 신시장 창출형 지원사업 발굴 등을 통해 대응준비 강화
 - 관광서비스 R&D 지원 전담인력 확충 (전담인력 '18년 0명 → '20년 3명)
 - 비즈니스기반형 및 관광신시장 창출형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 확대(업종/기술 지원대상 확대)
 - 관광R&D사업의 청년관광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R&D지원 제도 도입(40세 이하 청년기업 1개 이상 지원)
 - 첨단기술기반 관광자원발굴기술협력포럼 개최(연2회)
 - 관광산업 특성을 고려한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체계 구축(기술특허, 상표권 등 성과관리)
 - * 지적재산권 보호, 벤처기업 기술 인증제도 구축 등
 - 대규모 장기산업 관광R&D 참여 확대(호텔, 테마파크,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등 관광레저분야의 대규모 장기산업 대상 R&D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관광기업과 타업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융합관광 R&D서비스 지원 체계 확대 (연간 1개 이상)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2-1] 관광사업체 성장단계별 특화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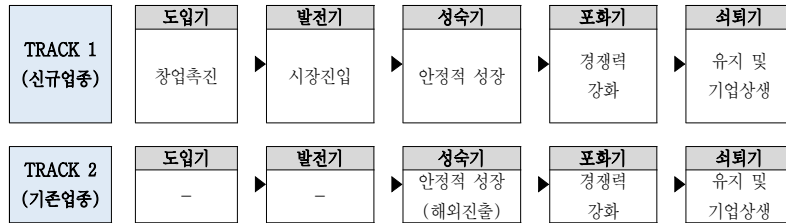
- 관광사업체는 사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 특성상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쉽게 사라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영세한 여행업체의 경우 연간 소멸율이 약 13% 수준
- 사업체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 사업체의 경우 신규업종과 기존업종을 구분한 전략 수립을 통해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광부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은 자금유자지원과 관광벤처 중심의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
 - 기술기반 산업 및 신성장산업분야의 벤처사업체에게는 창업이후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체의 경우 창업이후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미비한 상황

추진방안

- 신규관광 사업체가 시장진입단계(인큐베이팅)부터 성숙 및 쇠퇴단계까지의 단계별 특화지원을 위한 (가칭)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존업종의 경우 시장진입후 성숙기부터의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 (초창기) 스타트업지원 및 클라우드 펀딩 등 창업초기 자금조달 지원
- (성장기) 사업확장인수합병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전략적 제휴 지원
- (성숙기) 사업구조조정 지원

- 관광산업부문의 아이디어 발굴대회 개최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우수 아이디어 기반 관광벤처 창업지원 확대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사업체로의 성장 지원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기존 기업의 사업별 혁신 및 신시장 개척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사업확장에 따른 M&A 지원, 사업쇠퇴기의 매각, 구조조정의 지원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내부의 활력 제고



□ [2-2-2] 업종개편 및 유연한 진입으로 관광사업 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의 특성과 산업정책과의 연계체계가 부족하여 관광산업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인 한계와 신규 관광산업영역에 대한 지원 미흡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을 7대 업종, 34개 세부업종으로 구분하였으나, 관광산업 전반에 포괄하고 있지 못함
 - 또한, 관광사업 업종은 핵심 서비스 등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UNWTO, 통계청 등의 산업분류와 상이, 관광사업 육성정책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등 어려움

<표 V-12> UNWTO의 관광산업분류와 관광사업업종 비교

UNWTO의 관광산업 분류(활동기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세부업종
Accommodation for visitors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Food and beverage serving activities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음,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Railway passenger transport	
Road passenger transport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케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Water passenger transport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Air passenger transport	-
Transport equipment rental	-
Travel agencies and other reservation services activities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Cultural activities	카지노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Sport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Retail trade of country-specific tourism characteristic goods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면세점업
Country-specific tourism characteristic activities	관광사진업

자료: UNWTO(2008),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추진방안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기초한 관광사업 업종체계 전면개편으로 유연한 진입 유도하며 관광관련 제조업, IT기업 등의 편입기반을 마련함
 - 일부업종과 관광사업인허가 유형으로 구분된 관광사업업종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으로 업종 재편
 - * 관광운송업, 관광음식점업, (가칭)관광지원서비스업 등 신설
 - 관광벤처 및 관광관련 신규혁신서비스 사업체등 관광관련 새로운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관광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업종체계 마련
 - (가칭)관광지원서비스업 등의 업종신설을 통해 기존 관광사업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업체를 관광사업으로 편입하여 지원
 - 기존 업종분류에서 세부업종으로의 구분실익이 없는 업종을 통합폐지하여 업종구분의 실효성 강화
 - * (예시)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등의 경우 관광호텔업으로, 제1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을 종합휴양업으로 통합
 - 관광산업과 관련한 제화의 제조와 관련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제조업 등의 신설 검토

<표 V-13> 관광사업 업종개편(안)

구분	세부업종(예시포함)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관광휴양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음식점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음,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운송서비스업	•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케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카지노업	•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쇼핑업	• 관광면세점업
관광제조업*	• 관광용품제조업*, 관광기념품제조업*, 관광특산품제조업*
기타 관광서비스업	• 관광사진업, 관광안내서비스제공업*,

주: *는 신설가능업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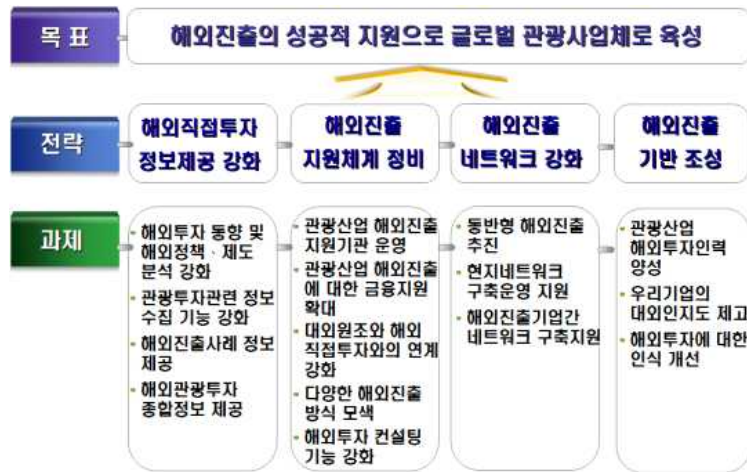
□ [2-2-3]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관광사업체로 발전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 OTA의 국내진출, 중국여행사 국내 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국내 관광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미진한 상황
 -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장려하고 있으나 관광산업부문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을 유지

추진방안

- 해외진출 정보수집, 제도분석, 인력양성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기관 설치
 -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 해외지사망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관광산업부문을 포함시켜 관광사업체 해외진출 재원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지원 및 M&A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추진
 - 관광사업체간 연계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여 동반성장 유도
 - 해외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사업체 동반진출 촉진으로 해외진출 원활화 유도
 -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관광사업 해외진출 추진으로 신규시장에 안정적 사업정착 지원



[그림 V-8] 관광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 [2-2-4] 관광산업 글로벌 혁신비즈니스 멘토링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낮은 혁신역량은 적극적인 개선의 대상으로 선정
 - 관광벤처 등 기술혁신형 사업을 중심의 정부지원만으로는 관광산업 전반으로 혁신을 전파하는데 한계

추진방안

- 4차산업혁명 대비와 관광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지원 확대 및 컨설팅 사업
 - 관광사업의 범위 확대를 통해 융복합 관광사업의 창출 및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ICT기반 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융합서비스 개발 추진
 - 관광혁신 관련 종합적인 정보제공, 혁신사례 전파, 혁신관련 교육 및 세미나, 혁신 지원사업 연계, 표준 회계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혁신 지원활동 수행
 - 중소기업간 또는 연계가능한 기업과 자원공유 및 제휴, 사업 네트워크 활용 사업 등에 대한 연계서비스 제공
 - 혁신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경영멘토링 연계, 비즈니스모델 개발, 경영진단 등의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창출 지원정책 추진

<표 V-14> 외국의 혁신바우처 사례

혁신 바우처의 원조 네덜란드 “Knowledge Voucher”

- 네덜란드 림부르그(Province of Limburg) 지역기술정책으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발전위원회)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큰 효과를 낸. 지원기업마다 7,500유로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SME(중소, 중견기업)를 위한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지식 이전 연계망 구축, 컨설팅 또는 리서치기관, 대학 및 대형 연구기관(기업, 리서치, 교육기관)과의 연결을 주선.

유럽의 ICT 혁신 바우처 “ICT Innovation Voucher”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IC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소형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ICT 혁신 바우처(Innovation Voucher)를 도입, 혁신 바우처의 대상은 초소형 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이를 통해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의 ICT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전문가와 협의를 할 수 있음. 최대 10,000유로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이나 ICT 서비스 제공자는 바우처 운영위원회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자료: 특허청(2015), 한국형 특허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2-2-5] 관광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분야의 산업구조상 일부 대형사업체와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사업체의 영향력이 큰 특성으로 인해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존재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 불공정거래' 신고(연합인포맥스, 2017.11.06.)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운영에서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행사에 주던 항공권 판매 수수료 폐지는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헤럴드경제, 2017.10.28.)

-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담당하는 여행사에 7~9%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2010년대 들어 폐지하고 항공사 주도의 '변형적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횡포에 목졸린 중소여행사들... (미디어1, 2015.10.7.)

-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히 한국여행산업의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몇년간 상생을 외치던 굴지의 여행그룹 하나투어는 덤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로 중소여행사들로부터 비난의 물매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14일 중소여행사연합체인 GA(골프 여행사 연합)의 김홍무 회장은 *****에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덤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추진방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 발굴하여 협업형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관광분야 선도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참여 유도
 - * (예시) 예약 네트워크 참여-공유, 경영노하우 지원, 사업관련 자원공유-지원 등과 같은 동반성장 협력사업 추진 유도
 - 관광분야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정책자금의 지원 범위 확대 및 동반성장 우수기업 인증
 - * (예시) 대중소 관광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지원,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 지원, 관광부문대기업과 관광사업부문 타업종의 중소기업의 연계한 상품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관광산업분야 동반성장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정책지원 인센티브 부여
 - '공정경쟁 협약',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

<표 V-15> 동반성장우수사례

LG생활건강의 <협력회사 기술 제안전시회>

- 협력회사의 실무자가 직접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물량보장 및 추가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00여개 중소기업이 900여개 품목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협력회사와 LG생활건강의 매출 향상에 기여

현대기아차의 다양한 채용지원 프로그램

- 2012년부터 국내최초로 실시된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국내 주요 취업포털과 연계하여 우수인재를 상시채용 할 수 있는 협력사 채용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4,400여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인재의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인턴ships을 통해 협력사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

포스코의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 벤처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스코가 직접 투자하거나 외부투자자와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22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포스코가 직접 투자한 53개 기업은 투자이전 대비 69%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458명의 신규 채용도 이루어지는 성과

CE제일제당 <지역 유망식품업체 지원>

- 지역의 유망한 영세 식품업체를 선정하여, 품질관리 부터 포장, 판매까지 지원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2014년 식품안전 관련 비영리 법인인 <식품안전상생협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식품안전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비용의 직접지원부터 판로개척 및 신제품 홍보활동까지 지원

네이버의 중소기업 제품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중국 및 동남아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한류콘텐츠 시청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예기획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

자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보도자료(2016.8.1.)



[3] 핵심인력 양성 및 창업확대로 관광일자리 창출

□ [2-3-1] 관광인력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분야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관광 관련 학과 졸업생의 전공과 낮은 취업연계가 발생하는 한 요인
 - 관광관련 전문대학과 대학교를 졸업한 전공자들의 관광분야 취업률('15년 기준)은 50%미만으로 나타남
 -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생의 47.8%, 대학교의 경우 49.1%가 관광분야 취업
- 우수 인력의 확보와 전공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규모와 질, 향후 발전전망까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아직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 존재

추진방안

- 관광분야 취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채용정보, 교육훈련정보, 기업정보) 및 세부적인 관련정보(직종·직무별 노동조건, 임금, 자격요건)를 제공하는 취업 관련 통합정보망 기능강화
 -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인)' 기능 강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결
 - 관광분야 일자리관련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일자리 전망을 같이 제공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선택을 지원
 - 다양한 취업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관광분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광전문인력포털과의 연계 강화
- * (예시) 워크넷, 청소년·고령자 취업포털(고용노동부), indeed.com(미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일자리 포털

<표 V-16>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사례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털 연계해 일자리 정보 공유(머니투데이, 2017.12.27.)

- 일자리 포털을 새로 만들어 언제나 정책 제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털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구직정보도 표준이력서로 만들어 한번만 작성해도 다양한 구직활동에 활용하도록 돕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일자리 포털(머니투데이, 2017.12.22.)

- 일자리 포털은 협력사 등 흩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 'One-Stop'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 포털은 일자리 전략, 일자리 정보, 아이디어 제안, 일자리 지표, 좋은 일자리 추진단으로 구성됐다. 공단과 협력사의

채용정보를 비롯해 중소기업 희망의 사다리, 워크넷, 정책 브리핑 등과도 연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 '중소기업 희망의 사다리'는 철도공단에서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업 정보 공유, 발주기관과의 면담 주선, 해외 철도학교, 해외 인턴십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2-3-2]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적 수급분석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의 성장과 이에 수반하는 인력수급 등에 분석에 기초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나,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일자리 수급분석이 부족하여 관련 정책추진에 한계 발생
- 관광사업체의 경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관련학과 졸업생들은 취업할 곳에 대한 어려움 토로

추진방안

- 관광산업 인력 수급전망체계를 구축하여 공급 및 수요영역에서 인력수급을 심층적으로 전망함으로써 합리적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 관광일자리 수급분석은 업종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분석 실시
 - 관광산업분야 미래전망과 이에 기초한 관광산업부문별 일자리 수요 분석 실시
 - 정기적 일자리 공급규모의 파악 및 수요전망과 연계한 수급분석 실시
 - 수급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관광산업 부문별 일자리 전망을 '관광인력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민간에 제공
- * (예시) '국가 인력수급전망 추진체계 구축방안'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을 통하여 일자리 수급분석을 통한 국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함
- 수급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교육과정 확대 및 축소 등을 교육부와 연계하여 추진
- * 교육과정 확대시 기자재 구매 등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관련예산을 관광부문 재원으로 일부 지원 추진

<표 V-17> 인력수급분석을 통한 인력수급전망 사례

고용노동부,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

- 인력공급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가 공급인력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서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179만명)할 전망이다. 제조업도 취업자가 증가(22만명)하나, 해외생산 확대,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점점 둔화될 전망이다. ...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21만명), 숙박·음식점업(+17만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내수시장 확대에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 신규인력 수급자 전망 측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신규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 신규인력 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대한 초과수요(-113만명)가 가장 크고, 대졸자도 소폭의 초과수요(-10만명)가 나타난 반면, 전문대(+55만명), 대학원(+30만명)은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대학은 청년인구가 줄어들어 졸업생은 감소하는 반면, 구인인력 수요는 공학계열(-19만명)을 중심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반면, 전문대는 기술발전 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여 인문·사회,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 초과공급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12.19.)

<표 V-1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급분석체계 구축 추진사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시스템 개념도 (The Science Times, 2018.01.05.)

-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의 SW분야 구인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패터 기반 바텀업 방식의 분석기법을 적용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9개 직종, 15개 직무를 재구성하여 일자리 변화상 연구모델을 정확히 함으로써 일자리 수급분석 및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3] 산학협력 인력양성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 관광유관협회, 교육기관 등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취업까지 연계되지 않다보니 관광분야 인력양성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산·학의 실습중심 교육과정 등이 개설되어 실습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습이 질이 너무 낮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비한 실정임



추진방안

-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현장 요구도를 반영한 필수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으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양성체계를 마련
 - 산·학 인력양성체계 및 취업 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교육관련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
 -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산학연 NCS 공동개발을 토대로 융·복합 관광분야 대학 육성
 - 산업현장의 인력과 학생의 1:1 매칭을 통한 실습 및 사업체내 포지션별 실습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

<표 V-19> NCS기반 관광분야 취업지원 사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관심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수요 중심(NCS기반)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한 '2016 관광산업 취업캠프'

- 1단계(관광인 기본다지기) : 관광산업 비전 특강, 동기부여 및 텃밭딩, NCS 입사지원서 작성컨설팅
- 2단계(관광인 직무알기) : 관광 직무·경력개발 전략, 관광 직무서비스 상황 실습 및 NCS 직무기술서 작성실습
- 3단계(관광인 실전준비) : 면접대처 전략·폴폴레이, 현업 인사담당자 모의면접
- 4단계(관광인 취업하기) : 사전 취업처 매칭 및 사후 취업지원(3개월)

<표 V-20> 인력양성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구축 사례

산업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과 대학원이 공동 선발한 학생연구원들을 중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양성하고, 졸업 후 채용과도 연계해 나가는 인력양성 중심의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
-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논문부담 없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학위(산업 석사 등)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친화적인 인재를 배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7개 내외 중소중견기업(부설 연구소)-대학원(학과)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5년 범위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와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4.5.26.)

□ [2-3-4] 관광산업분야 신규직종 및 관광업종 발굴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관광산업분야 전통적인 직업은 관광트레드의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 및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
 - * 일본의 경우 장애인 여행 돕는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업 등장 (Travel Helper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여행도우미)
- 1차산업, 제조업 및 인쇄·출판,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관련 창업이 관광벤처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관광산업 내부로 유인하는데 제도적 한계

<표 V-21>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사례

고용노동부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4년, 2015년에 발표하여 육성 추진 중인 제1, 2차 신직업(61개)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 새로운 제도도입, 교육·훈련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 * (법령 제·개정) 녹색건축전문가, 주거복지사, 산림치유사 등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전문가, 연구기획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등
(자격제도 신설) 온실가스컨설턴트, 기업재난관리사 등
-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 행정서비스 선진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직종 관련 분야에서 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곤충컨설턴트 등 5개 신직업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직업들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직업들로 법령 제·개정, 신규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 할랄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사물인터넷전문가, 핀테크전문가, 증강현실 전문가 등 5개 신직업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직업들은 민간에서의 자발적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직업들로 직업정보제공, 학생·청소년 진로지도에 활용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우선 개설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직종에 포함하는 등 민간시장 수요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12.23.)

추진방안

- 기존 직무의 세분화/전문화하며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신규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직업 창출 방안 마련
 -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한 안내인력 양성방안 마련(예시: 전통시장해설가, 반려동물동반여행전문가, 상품/공간 스토리텔러, 관광커뮤니케이터 등)
 - 관광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한 창직개발사업 추진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이의 타영역에 기반하여 관광산업부문으로 진출하는 업종을 관광사업으로 편입 확대

- 현 관광편의시설업을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업종명을 변경·개편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여 관광사업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1차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관광과 융합한 비즈니스모델을 사업에 접목한 경우 관광사업으로 편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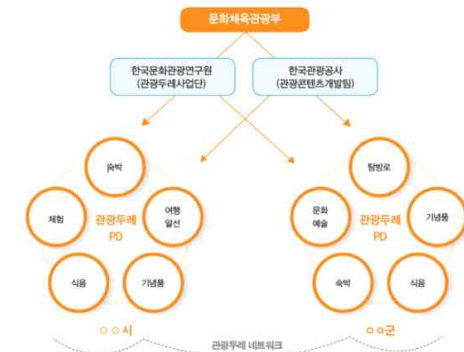
□ [2-3-5] 지역중심의 관광창업 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관광트레드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상황 지속
 - 정보통신 및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는 창조경제센터 등을 중심으로한 지원이 이루어지나 관광사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채한 상황

<표 V-22> 관광트레드 사업

- 관광트레드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운송, 오락과 휴양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관광트레드프로듀서, 관광트레드 주민공동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로 사업을 추진
- 2016년 말 기준, 전국 34개 지역에서 관광트레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54개 주민공동체 12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관광트레드사업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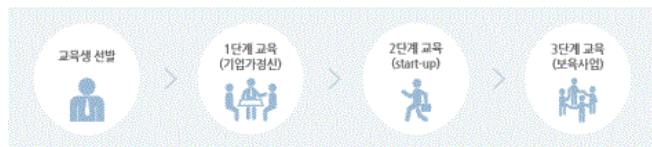
추진방안

- 지역인재와 지역주민 대상 창업지원으로 관광창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지역관광 창업지원센터” 운영
 - 중앙단위의 ‘관광두레’사업을 지역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중앙본부와 지역 센터로 역할분담 및 사업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관광창업 확대
 - 지역내 주요 관광관련 학과 운영 및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관광사업 창업 지원체계 구축하고 여기에 “(가칭)지역관광 창업지원센터”지정 및 창업지원사업 추진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기 특화 투자지원
 - 지역 관광창업기업 대상 금융·재정 장기적인 지원체제로 개선
 - 클라우드 펀딩(지분취득형, 대출형, 후원형)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 및 시장개척 지원

〈표 V-2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산업 창업지원

- 스포츠산업창업지원(Sports Industry Start-up Support) 사업은 스포츠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시장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스포츠 융합기업, 스포츠 협동조합, 스포츠 사회적 기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총괄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센터(총괄센터)를 두고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할 지역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지역센터)를 선정·운영
- 지역센터: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지역) 경희대학교, 제2권역(대전, 충청남북도, 광주, 전라남북도지역) 조선대학교, 제3권역(부산, 대구, 경상남북도, 제주도지역) 부경대학교
- 지역센터에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융합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보육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등의 스포츠산업 창업 보육을 지원

<창업교육 절차>



<보육지원사업 내용>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홈페이지(<http://spois.kspo.or.kr/start/front/index.do>)

[4]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으로 관광산업 활력 제고

□ [2-4-1]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조달체계의 다양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부문에 관광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재원의 원천과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관광부문에서의 정책자금의 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의 용도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국내 기업대상 정책자금의 지원도 기술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기반 산업인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자금조달은 한계가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까지 총 1,200억원의 벤처기업 육성 펀드 조성을 추진중
 - 2015년 220억 원 규모의 창조관광펀드를 결성한바 있으며, 2016년에는 200억 원 규모의 관광벤처기업육성 제2호 펀드를 결성

〈표 V-24〉 관광벤처기업 육성 제1호 펀드 실적

단위: 백만원, 건

투자연도	총투자금액	인정투자	관광	관광벤처	투자건수
2015	4,305	4,305	4,305	3,305	3
2016	6,000	6,000	4,500	4,000	9
합계	10,306	10,306	8,806	7,306	12
투자비율	46.8%	46.8%	40.0%	33.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11.29.일자 보도자료, “관광벤처기업 육성 제2호 펀드 200억 원 결성”

추진방안

- 창업 초기의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 높은 관광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벤처기업 육성 펀드조성 규모 확대 지속
- 관광산업분야에 투자재원의 다양성,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 확대 방안 마련
 - * (예시) 정부산하 공공투자은행의 BPI France를 통해 관광산업 스타트업과 클라우드 펀딩 지원(프랑스), 주식 클라우드 펀딩과 P2P대출 활용을 위해 증권법 개정(뉴질랜드)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관광사업체 재원조달의 원활화 지원
 - 관광사업체 혁신경영 지원, 관광사업체간 인수합병지원, 관광창업 및 성장지원, 관광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범위 확대

□ [2-4-2] 관광진흥 개발기금 투자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대부분 광역 및 시군구 지자체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의 유사중복과 전문운영인력 부족 등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기존의 제한적이며, 비유동적인 관광개발의 틀을 탈피하고, 노후화된 관광지의 재생과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광진흥개발사업 추진 필요
 - 민관협력 및 주민주도형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의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지자체 중심의 관 주도 관광자원개발사업 한계 봉착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역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는 한계가 있음
 - 지자체의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계획에 대한 실현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투자유치 전담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필요

추진방안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하여 토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콘텐츠 투자를 유도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민간투자형 관광자원개발기금, 민간·공공협력형 관광자원개발기금 사업 등 민간주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우선 융자 지원
 - 관광자원재생사업 기금 융자 지원 제도 도입
 - * 관광자원재생사업 지원제도 도입 이후 재생지역 내 민간부문 지역사업자 대상 지원
 - 민간과 공공 협력사업의 융자 지원 제도 도입
 -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민관협력형 특색있는 관광자원개발 및 운영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 민간부문(관광사업체)과 지역관광공사를 통한 투자 참여 및 융자 제도 도입
 - 관광개발기금투자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관광개발기금투자 전담기구 지정 제도 도입
 - 특색있는 지역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관광기금 설명회, 투자컨설팅 및 지자체 민간자본 유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연 2회)

□ [2-4-3] 관광산업 상시규제 발굴 및 원스탑 규제개혁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부문에서도 관광사업 영위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세제·부담금, 개발사업 관련 규제 등에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요구 지속
- 현행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업체제로 인한 진입장벽의 완화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수요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의 발굴 및 개선 필요성 제기

추진방안

- 관광산업과 관련한 상시 규제개혁과제 발굴체계 구축 및 원스탑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민간부문의 관광산업의 진출, 사업영역 확대, 관광산업 투자 확대 유도
 - 문화체육관광부내 관광산업규제발굴 조직 지정 또는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가칭)관광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규제발굴 체계 마련
 - 민간전문가, 관광관련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관광부문 규제 검토기구 운영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관광산업 원스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2-4-4] 관광산업 분쟁조정 및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의 영위 및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타부처는 물론 기업간 분쟁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 관광산업 내부적으로는 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기반이 부족하며, 사업체간 거래, 기업과 소비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분쟁해결 장치는 부재한 상황

항공연휴 미치는 여행사 갑질 급증...“별공정 약관은 무효”(뉴스1, 2017.10.1.)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한 9·10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전인 등 분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89건으로 전년인 2015년 1348건에 비해 25.3%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과 설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한다"며 "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 불공정거래 신고(연합인포믹스, 2017.11.06.)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제3기 면세점 사업운영에서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커 모집 수수료 50% 올려라" 롯데 높아진 중국(조선일보, 2017.11.20.)

1인당 모객(募客) 수수료를 이전 400위안(약 6만7000원)에서 600위안(약 10만원)으로 50% 올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현지에서 직접 모을 수 없다. 이 점을 노려 중국 여행사가 과도한 모객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배보다 큰 배짱'...제주도여행권 덩터기 경품에 소비자 분통(종합(연합뉴스, 2017.10.20.)

무료라더니 공항세 등 추가비용 요구...여행대행사 '앙터리 경품' 기습 단골손님에 제공하려 여행권 구매한 제주도 빗발친 항의에 골머리

추진방안

- (가칭) 관광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B2B, B2C간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제00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 부문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환경의 분석 및 평가
2. 관광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관광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분쟁 조정 기능 및 윤리강령 제정
- 불공정 거래관계 발생 영역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개발·적용
- 관광산업분야 분쟁 관례집 발간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광산업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관례집을 발간하여 분쟁조정 기능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관광산업 소비자 보호 및 보상기준 개발 및 현장 적용 추진



4

추진 일정(안)

신성장 역량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핵심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2-1. 관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2-1-1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	문광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9
2-1-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가칭)관광산업 4.0센터' 설립	한국관광공사	2019-2022
2-1-3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2019
2-1-4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 관광R&D 지원	문광연	2019-2022
2-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2-1 관광사업체 성장단계별 특화지원체계 구축	문체부	2018
2-2-2 업종개편 및 유연한 진입으로 관광사업 범위 확대	문체부	2018-2022
2-2-3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관광사업체로 발전 유도	문체부	2018-2022
2-2-4 관광산업 글로벌 혁신비즈니스 멘토링 지원	문체부	2018-2022
2-2-5 관광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체계 구축	문체부	2018
2-3. 핵심인력 양성 및 창업확대로 관광 일자리 창출		
2-3-1 관광인력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한국관광공사, 관광유관기관	2018
2-3-2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적 수급분석체계 구축	문광연	2018-2022
2-3-3 산학협력 인력양성체계 구축	문체부	2018
2-3-5 관광산업분야 신규직종 및 관광업종 발굴	문체부, 지자체, 민간	2018-2022
2-3-6 지역중심의 관광창업 지원체계 구축	문체부, 문광연, 한국관광공사	2018-2022
2-4.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으로 관광산업 활력제고		
2-4-1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체계의 다양화 추진	문체부	2018-2022
2-4-2 관광진흥개발기금 투자기능 강화	문체부	2020
2-4-3 관광산업 상시규제 발굴 및 원스탑 규제개혁 체계 구축	문체부	2020
2-4-4 관광산업 분쟁조정 및 소비자 보호 대책강화	문체부	2018

제3절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

1 지역관광개발 전략의 필요성

가. 정책목적

- ☑ 지역 관광매력성 제고
 - 지역이 지닌 무궁한 잠재자원을 기초로 하여 지역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특성 있는 관광 시설·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관광매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으로의 관광객 방문을 유도
- ☑ 지역주민의 관광참여 확대
 - 장소를 내주는 구경꾼으로서의 지역주민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가꾸어가면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자, 삶의 터전인 지역관광을 가꾸어가는 주인으로서의 관광참여 추진
- ☑ 지속가능한 관광
 -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조직 및 주민의 역량 강화 선행 필요

나. 정책대상의 범위

- ☑ (지역) 지역은 단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 역동적인 장소로서 지역의 자원, 시설, 서비스의 개발 및 평가, 관리 및 운영 등이 정책대상
- ☑ (지역주민) 지금까지 지역관광개발에서 주민은 배제되어 왔지만 앞으로의 지역관광에 있어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관광



다. 정책방향

- ☑ 지역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관광 실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1) 지역관광 매력 및 서비스 고도화, 2) 지역관광개발 정책 수단의 선진화, 3) 관광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4) 지역관광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표를 설정
- ☑ 지역관광접근성 제공 및 지역만의 특화콘텐츠를 강화, 지역관광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지역의 방문을 촉진
- ☑ 기존 관광자원의 재활용 및 신규 특화관광명소의 육성, 장소중심형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매력성을 강화
- ☑ 이러한 정책추진은 지역관광개발이 지닌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관광두레 사업의 확대 및 공공형 민간 관광지원 제도의 개선 추진
- ☑ 지역관광개발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2 지역관광 현황 및 진단

- ☑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발 및 정책 수단의 법적인 틀 미흡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 수단의 제도적 기반 미흡
 -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1인 경제, 가족중심문화, 다문화가구 증가 등 대응 미흡
 - 관광 여건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 반영에 한계
 -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기존의 지원체계 내에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발생
 - 예를 들어, 레포츠 관광활성화사업, 태종대 관광자원 개발, 옥천장계 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 등이 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특회계에 있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차별성 부족



☑ 관광진흥법만으로는 관광자원 개발 관련 정책 추진 취약

-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자원 개발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로써 미약
 - 지역관광개발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의하여 추진
 - 관광진흥법 제48조는 특정 정책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새로운 지역관광 개발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만, 정책 필요에 의하여 소규모 다양한 사업으로 산발성과 비연속성 야기
- 관광영역 확대를 위한 법제도 규정 마련 필요
 - 관광(단)지, 관광특구 중심의 단순 정책수단에서 탈피하고, 단위 시설(공간)사업 중심에서 장소지향형 사업, 네트워크형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

☑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지정은 2000년대 들어 감소,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집행율(투자비)은 41%, 49%로 저조

- (관광지 지정 현황) 2016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관광지 현황은 총 226개소이며 이 중 4개소는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었으며, 2001년 이후로 관광지 지정 추이가 감소
- (관광지 투자계획 규모) 2015년 기준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상 투자계획 규모는 약 24조원에 달하며 관광지 실집행 사업비의 규모는 약 10 조원으로 관광지 집행실적률은 약 41.0%(박경열, 2016)
 - * 공공재원 집행실적률은 68.0%이며, 민간부문은 33.5%
 - * 공공재원의 국비, 지방비, 공기업의 집행실적률은 각각 67.3%, 70.6%, 25.0%
- (관광단지 현황) 관광단지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2016년 1개가 추가 지정되어 총 39개가 지정되었으며, 연도별 관광단지 지정개소 추이는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는 감소
 - * 공공재원 집행실적률은 89.5%이며, 민간부문은 44.1%
 - * 공공재원의 국비, 지방비, 공기업의 집행실적률은 각각 77.3%, 71.0%, 95.9%

<표 V-25> 연도별 관광단지 지정개소 추이(최초 지정)

구분	1969 ~1975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6	계
지정개소	2	1	0	0	3	2	6	15	10	39
누적수	2	3	3	3	6	8	14	29	39	39
비율(%)	5.1	2.6	0.0	0.0	7.7	5.1	15.4	38.5	25.6	100.0

자료: 이원희(2016),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6).

- (관광특구 지정 현황) 2016년 3월 기준으로 관광특구는 1개 시·도에 31개소가 존재하며, 1996년~2000년 큰 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1년 이후 감소 경향
 - * 서울(6개소), 경기(4개소), 경북(3개소), 부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2개소), 인천·대전·제주(1개소)

<표 V-26> 연도별 관광특구 지정개소 추이(최초 지정)

구분	1994~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6	계
지정개소	5	15	3	4	4	31
누적수	5	20	23	27	31	31
비율(%)	16.1	48.4	9.7	12.9	12.9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 지역 관광객의 일부 지역 집중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은 수도권과 제주에 편중

<표 V-27> 외래관광객의 방문 시·도 비율

(중복응답,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82.5	80.9	80.4	78.7	78.0
제주	12.0	16.7	18.0	18.3	20.2
경기	21.3	17.9	13.0	13.3	13.1
부산	12.2	11.7	8.0	10.3	10.4
강원	9.7	9.2	7.1	6.4	6.4
인천	7.7	7.8	5.0	6.8	6.2
경북	4.2	4.0	2.4	2.5	2.0
경남	2.4	1.7	3.6	3.2	1.9
전북	1.6	1.5	1.2	1.7	1.3
대구	3.1	2.9	1.2	1.6	1.2
대전	2.2	2.1	1.1	1.2	1.0
충남	1.5	1.7	0.9	1.3	1.0
전남	2.2	2.1	1.6	1.8	0.9
울산	1.8	1.8	1.4	1.0	0.6
광주	1.2	1.3	0.4	0.8	0.5
충북	0.9	0.6	0.5	0.6	0.4
세종	-	-	0.1	0.2	0.2
기타	0.3	0.6	0.2	0.1	0.1

자료: 국민여행실태조사



- 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시 방문지는 서울(78.0%), 제주(20.2%), 경기(13.1%), 부산(10.4%), 강원(6.4%), 인천(6.2%), 이외 지역은 평균 2%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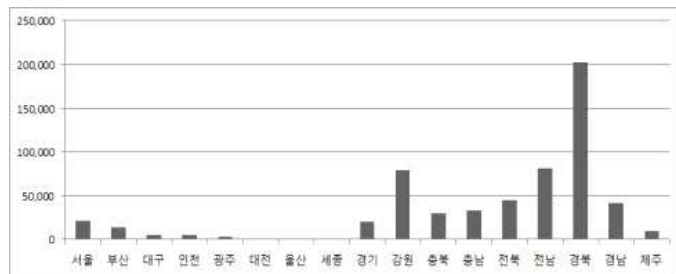
- 국내를 여행하는 국민들의 여행목적지를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으로 구분하여 보면(2016년), 숙박여행의 경우는 1위는 경기도가 15.0%, 2위는 강원도가 13.0%, 3위는 충남으로 9.0%. 반면, 당일여행의 경우는 경기도가 20.7%, 서울이 14.6%, 충남이 10.2%

<표 V-28> 국내여행 방문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내여행	2016	경기(18.3)	서울(11.1)	충남(9.7)	전남(7.7), 경남(7.7)	
	2015	경기(18.3)	서울(11.4)	충남(11.4)	경남(7.7)	강원(7.6)
	2014	경기(15.6)	서울(11.5)	충남(10.3)	경남(9.2)	강원(8.8)
숙박여행	2016	경기(15.0)	강원(13.0)	충남(9.0)	경남(8.7)	전남(8.5)
	2015	경기(14.2)	강원(13.1)	충남(10.3)	경남(8.5)	전남(8.3)
	2014	경기(14.3)	경기(12.1)	경남(10.1)	충남(10.0)	경북(9.5)
당일여행	2016	경기(20.7)	서울(14.6)	충남(10.2)	전남(7.1)	경남(7.0)
	2015	경기(21.4)	서울(14.7)	충남(12.2)	경북(7.3)	경남(7.1)
	2014	경기(18.4)	서울(14.9)	충남(10.6)	경남(8.5)	경남(7.3)

☑ 관광개발 지원 예산의 지역 편중

- 관광개발 지원 예산의 지역편중이 나타나고 있어,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 2017년 관광부문 지자체 예산 및 기금 지원계획에서 경북이 전체 예산의 1/3 이상을 차지



* 미정 금액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그림 V-9] 관광부문 예산·기금 지자체 지원계획(2017)

☑ 지역관광개발 예산은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예산은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관광관련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약 4,912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의 지역관광관련 사업 예산은 약 2,276억 원

<표 V-29> 관광부문 예산편성(2013년~201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광부문 총 예산	1,096,392	1,231,572	1,371,877	1,408,085	1,550,948
관광 예산	405,338	376,566	464,447	461,940	493,035
일반회계	6,871	5,436	26,019	3,977	1,789
지역발전특별회계	398,467	371,130	438,428	457,963	491,246
① 생활기반계정 (관광자원개발)	207,195	228,725	222,978	215,026	239,678
② 경제발전계정	185,757	119,944	203,990	230,722	241,753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892	13,715	11,460	11,650	9,650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	-	-	-	565	165
관광기금	691,054	855,006	907,430	946,145	1,057,913
지역관광관련 사업	184,451	140,164	177,718	162,771	227,566

- 지역관광관련 사업 예산은 2013년 5,830억 원에서 2017년 7,18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약 70%의 비중을 차지
- 또한, 기존 경제발전계정(구, 광역발전계정)에 포함되었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 추세
 - 2014년 경제발전계정에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이관, 2016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생태녹색탐방로안내체계구축 사업' 등 이관

<표 V-30> 지역관광관련 사업 예산(2013년~2017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관광관련 예산 총액		582,918	511,294	616,146	620,734	718,812
지역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생활)	207,195	228,725	222,978	215,026	239,678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109,700	100,929	147,500	174,346	169,611



구분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광진흥 개발기금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2,000	8,500	12,035	15,093	11,724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5,500	10,515	14,535	14,736	14,692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1,500	4,900	10,000	15,000	26,000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지원	—	3,000	19,920	11,547	11,076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950	846	—	—	—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15,943	—	—	—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12,525	—	—	—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조성	22,829	—	—	—	—
	지리산권 관광개발	14,425	—	—	—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	—	—	8,650
	관광자원개발(제주)	5,900	3,715	1,460	1,650	7,650
	제주관광진흥지원	—	10,000	10,000	10,000	2,000
	관광자원개발(세종)	—	—	—	565	165
	합계	398,467 (68.4%)	371,130 (72.6%)	438,428 (71.2%)	457,963 (73.8%)	491,246 (68.3%)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1,000	0	3,200	13,923	18,879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1,100	7,710	10,230	8,320	7,231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4,080	3,230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400	1,920			
	남해안 관광활성화	2,000	0	—	—	—
	관광레저 기반구축	22,829	7,219	7,463	13,840	37,240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0	0	7,000	18,800	20,492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000	3,600	2,880	2,880	2,736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7,203	6,586	6,286	2,403	6,492
	문화관광해설사육성	4,600	4,094	3,622	4,022	5,117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7,122	7,639	7,688	6,441	6,691
	국민여가캠핑장조성	12,000	13,500	14,700	7,040	6,688
	전통문화체험 지원	25,241	27,581	38,441	40,801	33,309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9,600	4,200	2,700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234	1,098	2,000	1,800	1,800
	문화관광축제지원	7,799	6,994	9,194	7,196	6,146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12,237	13,520	20,545	24,020	36,419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11,640	8,995	5,780	5,210	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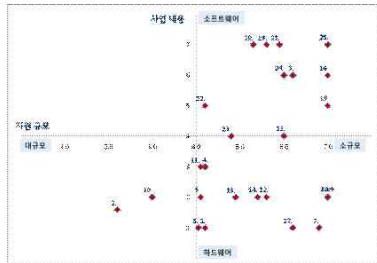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방문의 해 지원		7,500	—	—	—	—
	지역관광 활성화 및 조사연구	테마관광거점	—	—	1,685	1,685	5,080
		지자체시티투 어지원	1,000	890	700	500	500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9,008	2,558	3,890	3,890	3,696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750	660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9,948	18,028	29,572	—	—
	국악관광자원화		160	142	142	—	—
	핵심관광지 육성		—	—	—	—	24,000
	합계		184,451 (31.6%)	140,164 (27.4%)	177,718 (28.8%)	162,771 (26.2%)	227,566 (3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각연도별)

-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은 포괄보조금으로 시·도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어 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지속성과 방향성 미흡
 - 생활기반계정은 사업 제안과 추진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자체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 추진 가능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성 낮은 사업을 정치적으로 추진

☒ 소액다건식 단년 지원 사업의 추진

-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운영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총 558개('16년)로 이중 신규 사업은 59%로 절반 이상의 비중 차지
 - * 신규 사업: 331개, 계속 추진 사업: 227개
-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이외에는 대부분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단년도, 소액지원으로 집행
 - 매년 단위 사업당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보면, 평균 3억 5천 이하의 소규모 지원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드웨어(시설) 사업인 관광지의 경우에서부터 문화관광 축제와 같이 전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 사업까지 유형이 다양



1. 관광지 개발
2.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시설사업)
3.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진흥사업)
4. 문화관광자원 개발
5.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6.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7.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8. 관광안내체계구축
9. 생태녹색탐방로안내체계구축
10.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11.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2. 생태녹색관광자원화
13. 노후관광시설 재생

자료: 김향자(2016), 지역관광자원개발 방향 연구 I

주: 사업별 총 예산액 기준 30억 이상: 1점, 20억~30억 미만: 2점, 10억~20억 미만: 3점, 5억~10억 미만: 4점, 3억~5억 미만: 5점, 1억~3억 미만: 6점, 5천만~1억 미만: 7점

[그림 V-10] 지역관광자원 개발 지원규모와 사업내용

☑ 타부처 유사 사업의 증가

- 새로운 정책의 대안으로 관광이 부상하면서 타부처의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관광자원개발이 포함되고 있어 유사사업이 증가
 - 국토교통부의 자전거도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 육성, 환경부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등 타 부처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
- 타부처의 유사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각 부처별 다기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미흡

<표 V-31> 타부처 관광 관련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해당부처	분류	사업명(2017년 기준)	2016	2017
국토교통부	도로관리	자전거도로 구축	7,720	7,720
	항공·공항	항공박물관 건립	3,000	23,906
	지역개발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지원	300	250
	"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핵심관광지 육성 연계)	-	5,000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5,184	1,298
	도시정책	용산공원조성사업지원	2,342	87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 및 동농교류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6차 산업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25,472	31,196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중 농촌체험관광지원	30,642	35,766

해당부처	분류	사업명(2017년 기준)	2016	2017
해양수산부	농산물수출촉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732	10,539
	축산업 경쟁력제고	말산업육성지원	30,920	31,211
	해운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950	2,450
	항만운영 및 관리	여객터미널 운영	7,655	7,932
	"	마리나 항만 개발	10,014	8,915
	"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6,200	13,266
	물류 등 기타	해양관광 육성	19,054	14,897
	"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지원	5,200	2,900
	"	어촌어항관광기반 조성 등(농특)	7,157	8,109
환경부	"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27,449	44,974
	자연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DMZ생태조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8,965	16,065
	"	국립공원 사업 중 탐방서비스 선진화(탐방문화개선)	57,244	2,000
	"	국립공원 사업 중 상생협력(명품마을 등)	13,253	6,300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1,100	16,420
	"	전시관 기획 및 운영	1,175	1,337
행정안전부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25	0
	지역발전	지역발전활성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온천산업 활성화, 자전거인프라 구축 등)	2,694	2,348
	"	접경권 발전 지원 (평화누리길 조성 등)	27,438	28,886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14,323	15,343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20,680	30,740
	"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	6,000	4,746
	"	등산문화개선(구.국립산악박물관 조성 운영)	4,269	5,852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152,348	154,836
	"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조성	6,395	- (완료)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	12,724	16,022
	"	국립수목원운영	4,734	3,532
	"	국립중앙수목원조성	28,831	11,96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각연도별)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지역관광발전 위한 사업 추진 주체 부족

- 지역관광 개발 관련 권한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추세이나 지역관광 정책을 추진할 기관이나 조직이 거의 부재
 -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
 - 문화예술분야는 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있는 반면 관광분야에는 관광공사에 불과
 - * 관광부문 전국 비영리민간조직 비율 : 0.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관광개발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의 공무원이 담당하다보니 사업의 공정율과 예산 집행율을 우선시하여 추진
 - 특정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단기적 성과를 내는 과업을 선호하고, 복잡한 문제의 경우 다음 인사까지 미룬다는 문제 제기

☑ 지역관광발전 위한 사업 추진 인력의 역량 미흡

- 지역관광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을 주도하는 전문인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문역량 부족
 -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실무자의 잦은 교체가 발생하여 정책의 지속성이 단절
 - 문화관광해설사 외에 전문인력 사업 부재로 전문적인 관광인력 육성 제도가 미흡
- 관광부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하드웨어 시설 위주의 개발에 치중되고 있어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
 -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사업(17년)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으로 전체 관광부문 예산의 약 0.2%를 차지(약 32억 원)

추진전략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

핵심과제 1 지역관광 매력 및 서비스 고도화

- [3-1-1] 지역 매력 콘텐츠 개발 지원
- [3-1-2] 지역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3-1-3]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
- [3-1-4]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체험성 강화

핵심과제 2 지역관광 개발 정책수단의 선진화

- [3-2-1]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조성 및 육성
- [3-2-2] 광역관광권 등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 [3-2-3] 장소중심형 관광활성화 추진
- [3-2-4] 관광재생뉴딜: 노후 관광자원·유희시설의 재활용
- [3-2-5] 관광지 지정 제도 개선

핵심과제 3 지역관광 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 [3-3-1] 주민공동체 관광사업 육성 등 관광두레 사업 확대
- [3-3-2] 국민관광자원 육성 지원
- [3-3-3] 지역관광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 [3-3-4]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제도화

핵심과제 4 지역관광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3-4-1] 농·산·어촌 관광활성화 지원
- [3-4-2] 문화공간의 관광자원화 지원
- [3-4-3] 공공형 민간 관광지원제도 개선
- [3-4-4]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및 네트워크화

(1) 지역관광 매력 및 서비스 고도화

□ [3-1-1] 지역 매력 콘텐츠 개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에서 일정 공간에 대한 제도적 개발 수단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한정. 지역발전특별회계 이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나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규격화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함으로 인하여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한계
 - 지역의 강점을 살린 콘텐츠 개발 수요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문체부 예산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의견 다수
 - 문체부는 2017년부터 지역 특색이 반영된 콘텐츠 육성 지원을 위해 3개의 통합 사업(시티투어, 지역축제, 노후관광시설 재생)을 통해 '콘텐츠 통합 지원사업'의 시범 추진. 하지만 2017년 사업은 기존 사업의 내용과 틀을 유지한 채 하나의 테마로 각 사업 추진을 연계한 형태에 불과

추진방안

- 전통문화, 생태자원 등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토대로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해 기존 사업의 내용 및 추진체계, 방식 등을 개선
 - (세계적 문화관광축제 육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선별, 집중 지원(인력양성, 관광자원 개발 등)하여 '세계적 축제'로 육성('18~'22)
 - 빅데이터 기반 정량평가제를 도입, 관광매력도가 높은 축제 발굴
 - 등급·평가제를 개선하여 지역축제 다양성 확산
 - * 예비유망(가칭) 축제를 신설, 지역축제에 대한 컨설팅·홍보 지원
 - * 지원기간 한도설정(일몰제) 개선, 우수 축제의 지속 발전 도모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관광자원화)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문화재야행, 향교·서원 활용프로그램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문화재청, '18~'22). 외국인 전문 및 지역별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사찰 확대('18~'22)
 - * '세종즉위 600주년 즉위식 제현',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 (지역특화 콘텐츠 융합사업 확대) 관광객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지역 주도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추진 사업을 통합



하여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공모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특화 콘텐츠 융합사업 지원 확대('18~'22)

- 문체부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시너지 가능·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통폐합 원칙 설정
 - 지역 창의성 유도를 위해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사업 특성(공간 규모, 개발 내용 등)에 따라 예산 한도(예: 10억, 20억, 30억 등)를 제한
 - 지역의 특수성(DMZ, 섬, 산악, 원도심 등)을 반영하고 지역 고유 또는 관련된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개발 사업으로 지원
 - 지역 창의성 제고와 실행계획의 수준향상을 위해 지자체별 1차 사업 평가 통과 대상 지자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매칭
- * ('18) 연구용역(기금사업 검토 및 통폐합 원칙 설정, 신규사업 설계) → ('19) 시범사업 추진 및 컨설팅 → ('20~'22) 연차별 사업 확대

■ 태양의 서커스 활용사례	■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투어리즘 사례	
<p>○라스베가스 카지노호텔과 태양의 서커스는 협약을 통해 상설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및 제작비 분담 - 양질의 콘텐츠제공 <p>※ 8개 호텔 상설공연 중</p>	<p>'너의 이름은' 포스터</p> 	<p>애니메이션 실제 대상지</p> 

□ [3-1-2] 지역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의 관광객이 지방의 소도시, 농촌지역을 방문해서 제공받는 관광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빈번.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광력 유지를 위해서는 관광 경험 과정과 관련된 관광접점에서 지역관광 서비스의 국가적 기준(national standard)을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
-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종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체에 대한 등급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 국한
- 대도시 및 주요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대상 안내 서비스 등이 잘 안 되어 언어 소통에 한계

추진방안

-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안내, 환대, 음식의 질, 숙소의 청결 등)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내·외국인, 장애인, 노약자 등 여행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18년~'19년 시범사업)
 - * 1개 지자체 선정(공모) 후 2년('18~'19년) 집중 지원하여 지자체 선진모델 제시
 - 전국망을 갖고 있는 상업시설(커피숍, 편의점, 레스토랑 등)을 활용, '카페·편의점 간이 관광안내소' 설치('18년) * 지역 관광안내지도, 교통정보, 관광명소 소개 자료 비치
 - (문화관광 해설의 질 제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정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관리 효율화 및 해설서비스 질 제고('18년)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 신규교육과정 인증제 폐지(법 개정) 및 직무중심의 교과목 개편(시행규칙 개정)
-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설사 예약 및 배치, 일정관리, 일지등록, 만족도조사, 실적 관리 기능 탑재
- (지역관광 품질관리 체계화) 지역관광의 접점인 출입국, 숙박, 음식, 관광지, 안내 정보, 관광교통, 쇼핑 및 기념품, 여행상품 등 8개 분야의 관광서비스 품질 프로세스화하고 상시적인 품질 점검 추진
- 관광품질점검단은 각 지역 내 관광시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 지역관광품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 수행
- * 홍콩: QTS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제품의 질과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과 필요. QTS 인증마크를 받은 상점들은 가격의 정확한 표기, 상품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표기, 최고의 고객 서비스 제공.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추진
- (자체적인 지역관광 품질 관리 유도) 지자체의 지원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고 지역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소통하도록 품질 인증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적인 지역관광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및 사업체의 관리자·경영자에 대한 인식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지역관광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 확대
- 숙박, 음식, 숙박, 교통, 쇼핑 등 지역 관광 접점을 중심으로 종사원에 대한 친절 교육 강화 * 업종별 친절교육 및 친절·청결 캠페인 전개(분기별)
- (통합관광 품질 인증제 확대) 현재 운영 중인 통합관광인증을 지역관광 시설 및 서비스(숙박, 음식, 기념품,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 관리로 확대 추진('18~'22)
- 관광분야 통합인증 브랜드인 '관광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숙박, 쇼핑 등 관광 서비스품질 체계화 * 법적근거 마련('17년下) 및 인증대상 확대('17년 숙박·쇼핑 → 야영장 등)
- 관광품질인증제 연계, 지역별 관광 서비스 수준 평가 공표
 - * 관광공사 등 주관, 지역별, 업종별 관광 서비스 수준을 매년 평가 공표

□ [3-1-3]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역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애로는 주요 도시에서 인근 관광지까지의 접근이 어려운 것과 지역 내에서 관광기간 연계교통이 안 되는 경우가 해당.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발지 및 결정지에서 목적지간 이동뿐만 아니라 목적지 내 관광요소와의 접근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기차버스로 지역까지 이동 후에도 기차역(버스터미널)과 관광지, 관광지-관광지간 연계 교통편이 없어 주변지역 관광에 한계
 - 또한 외국인의 경우 대중교통 예매·이용 시 외국어 안내가 부족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방안

- 수도권 및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지역관광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의 관광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18~'22년)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지역 방문 관광객의 교통이용 편의성 증대와 이용 만족도를 제고시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관광객이 짐으로 부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차역·터미널 등에 짐 보관 운송서비스 확산 유도
 - 외국어 대중교통 예매 시스템 및 열차승차권, 렌터카, 숙박, 주요관광 입장권을 통합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원티켓 올패스(가칭) 구축(국토교통부)
 - 지역 주요 관광지 접근성 및 교통이용 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출시
 - * ('18년) 강원 지역 관광 관련 할인혜택 제공 / ('19년) 남해안 지역 에디션 개발 예정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지역을 소개하는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한영일중)제작
 - * 주요 교통거점(인천공항, 서울역) 내 동선(개찰구, 버스 타는 곳, 지하철 타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안내지도 제작(문체부, '18년~)
 - *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시설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
 - (관광교통 허브 기능 도입) 기차역·터미널 등 관광객 이용 주요 교통거점을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도보관광지 중심 관광상품 개발
 - 기존 역사 혹은 노후 버스터미널 등에 지역관광 교통 안내 편의 제공(안내표지판, 노선안내도, 자동번역 서비스 등) 및 편의시설(대합실·매포소·화장실 등) 개선
 - 관광콘텐츠(체험, 쇼핑, 관람 등)와 편의시설(안내소, 짐보관소, 쉼터 등) 구축

■ 교통거점에 관광콘텐츠와 편의시설 연계 사례



- (도보관광 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차역·터미널을 중심으로 도보관광이 가능한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이야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도보관광 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 지역관광 관문 시설을 중심으로 도보관광이 가능한 존(Zone)을 설정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이야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안내정보를 개발
- 지역 경관에 어울리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식을 설치하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기존에 개발한 걷는 길과 연계

* (해외) 레저블 런던(Legible London) : 도시전체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으로 해당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디자인 사인을 설치하여 근접거리로 이동을 안내해주는 시스템

※ (예시) 목포역 연계 도보관광 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 ① (도보관광 코스 설정) 1일 코스/ 목포역-원도심(일본식 가옥 등)-유달산 노적봉-목포근대역사관 소요시간별, 지역 테마 및 주요 타겟별 코스 추가 가능
- ② (스토리텔링 개발) 목포 근대역사 이야기
- ③ (스토리 연계 프로그램) 스토리텔러, 문화공연 등
- ④ (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 길 찾기 안내 표식, 쉼터 등
- ⑤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고) 도보관광지도

- (지역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 지역 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성수기 혹은 주말에 인근의 유명 관광지까지의 노선 확대 및 정차 확충을 통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일정 구간을 순환 혹은 왕복 운행하는 관광형 시내버스 도입 등)
- (무동력 관광접근성 제고) 주요 결정지역에서 인근 관광지까지, 관광지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선(루트)을 개발하고 무동력 네트워크 연결(두루누비) 활성화, 관광취약계층을 고려한 무장애 시설 설치 확대

■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Mobility)

- 국가적 조직으로 2008년에 설립하여 여가와 관광활동을 위한 무동력 교통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국가·지역·지방 루트 개발
 - 2014년에는 스위스 전체적으로 23개 국가 루트, 150개 지역 루트, 그리고 500여개 이상 지방 루트를 포함. 이는 "Best of Switzerland" 영예를 얻음

■ 일본 신베리어프리

- 2006년 '신 베리어프리법률'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거나 재건되는 공공교통시설에 고령자와 장애인 관광편의를 증진시키는 '접근성 표준(Accessibility Standards)'을 권고
 - 예) 철도역은 플랫폼 접근 계단을 폐지. 버스는 반드시 램프 설치



□ [3-1-4]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체험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AI, 빅데이터, AR/VR 등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관광 환경변화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 필요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편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추진방안

- 4차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관광객 행태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객의 체험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의 스마트관광 기반마련 사업 추진('19~'22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예,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스마트 관광도시 환경 구축 사업(무로 와이파이존 확대 및 이용객 정보(방문목적, 출발지역 등) 수집 및 활용 강화) 추진
 - VR, AR, AI, 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안내 서비스와 관광객의 체험성을 강화시키는 사업 추진
- * 관광지에서의 4차 산업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4차 산업기술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후 일정기간 지원하는 '스마트관광지역 인증제도' 도입
- 스마트관광지역 인증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여건 정비 마련 및 평가 담당 조직을 지정하여 운영, 선정된 우수 스마트관광지역에 대한 홍보, 마케팅, 교육 등 간접 지원 추진

■ (사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인증제

- 스마트시티 인증지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기술 및 인프라 부문(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망, 친환경 기술-인프라), 거버넌스 부문(부문별 참여, 네트워킹, 지원체계, 정보 접근성, 규범 준수, 공동 모니터링), 혁신성(공무원 역량강화, 시민 역량강화, 민간기업 역량강화) 부문으로 추진

- 기존 관광지역, 관광시설에서 VR, AR, AI, IOT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제공 및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

- * (AI활용 로봇종업원 활용 예시) 일본 나가사키현 헨나호텔(체크인 등), 중국 저장성 해안도시 닝보 식당(주문 및 웨이터)

[2] 지역관광 개발 정책수단 선진화

□ [3-2-1]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조성 및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역에서는 일부 선두모델 따라 하기 식의 유사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서울,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관광객 편중
 - * 벽화마을, 근대골목 등 유형처럼 지역별로 유사한 관광명소화 추진
- 우리나라는 전국 각 지역별로 특성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특성있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이 미흡

추진방안

- 지역마다 강점을 가진 자원과 기반이 다르므로, 문화·생태·의료·MICE 등 주요 지역별 특화 관광명소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 추진('18 ~ '22년)
 - (지역관광명소 발굴 및 육성) 명소화 잠재력을 갖추었으나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유적지, 공공시설 등의 숨은 관광지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국내 특화관광명소로 발굴 및 육성
 - * (창덕궁 인정전) 정전 밖→안에서 관람, (파주 장릉) 비공개 능 개방
 - * '16년 가을 여행주간 시 전국 26지역, 41곳의 숨은 관광지 특별 개방
(홍천 은행나무숲: 전년 대비 관광객 628% 증가, '15년 1,613명→'16년 11,753명)
 - (국가관광명소 지정 및 육성)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의 별', '추천 가볼만한 곳' 등을 토대로 일원화된 '국가관광명소'를 지정 및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 만한 관광지 홍보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지역 간 연계형 관광상품 발굴에 초점인 반면 동 사업은 지역의 특화 장소성(landmark)에 중점 차별화
-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조성 및 육성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보유한 자원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추진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20개 지역을 목표로 지역 당 20억 원~30억 원*씩 지원

* 한국 테마여행 10선은 10개 권역 대상 240억 원 규모로 5개년 사업(2017~2021)으로 추진되고 있음

- (1단계) 대상가능 잠재지역 선정을 위한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절차 및 가이드라인, 경성 및 자본보조 예산지원기준 등을 마련
 - * 기존 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화 필요지역, 기존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새로운 콘텐츠 잠재력 보유 지역 등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들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준거마련이 필요
- (2단계) 국가관광명소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형태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테마 유형별 5개 지역을 선정. 대상지 선정, 운영 주체 선정, 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 운영 및 관리단계까지 전 분야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특화관광명소 자문단 운영
 - * 기존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새로운 콘텐츠 잠재력 보유 지역 등 개발 가능한 테마 유형에 대한 연구 용역 진행 필요
- (3단계) 지역별 특화관광명소의 사업 확대를 위해 국가 관광명소는 매년 5개, 지역 관광명소는 매년 15개씩 5개년 동안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관광명소의 특성화 유지 및 통합브랜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지정 갯수를 100선으로 한정하여 유지 관리
 - * 사업지정 및 준비기간(2년)이후 자체 특화 관광명소로서의 브랜드 형성을 위해 사업 운영 및 관리 기간(3년)동안 지원
 - * 지정된 지역특화 관광명소의 서비스 전 부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브랜드 질적 관리 유도

<표 V-32> 지역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육성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지역별 차별성·특화성 부여를 통해 지역관광의 경쟁력 및 매력성 제고
사업대상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화 필요 지역 기존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새로운 콘텐츠 잠재력 보유 지역
사업추진방향	(브랜드 중심형) 지역의 우수한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융합하여 명소로 육성 (랜드마크화) 점, 선 단위의 장소성 중심
사업유형	‘(가칭)국가관광명소’ 육성
사업 관리	계획수립 단계부터 인프라, 콘텐츠, 관광서비스 전 분야 정비 및 컨설팅 지원 특화관광명소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구축 (‘18년) 연구용역→(‘19) 시범사업 추진 →(‘20~’22) 연차별 사업 확대

-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프로젝트(특화관광명소화) 예시
 - 노르웨이는 수려한 경관을 갖춘 피오르드 지역 18개 주요 경관도로를 국립관광도로로 지정(총연장: 1,800km)하고 복합 체험공간 조성.
 - 콘셉트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지형 그대로’이며 전문가의 창의력과 자연이 만나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드라이브 경험 제공



□ [3-2-2] 광역관광권 등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관광개발의 주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은 2017년 말 현재 동해권, 3대문화권, 중부내륙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서부내륙권 등 5개 사업이 추진 중. 이외에 테마관광10선 등 지역연계관광 사업이 추진

추진방안

- 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관광 횡수와 체류일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관광명소 개발이 중요.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인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
 - (광역권 개발) 기 추진 중인 5개 권역의 차질 없는 개발 추진

사업명	권역	사업기간	총사업비(국비)	기지원액(국비)	'18 예산(사업수)
동해안권	부산 울산 강원 경북	'09- '18	2,551억원 (781억)	497억원	39억원 (3개)
3대문화권	대구 경북	'10- '21	2조 1,518억원 (1조 2,674억)	8,623억원	1,197억원 (28개)
중부내륙권	강원 충북 경북	'13- '22	3,970억원 (1,594억)	599억원	93.6억원 (9개)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인천 경기 강원	'13- '22	2,466억원 (1,120억)	488억원	101.3억 (8개)
서부내륙권	세종 충남 전북	'17- '26	6,167억원 (2,626억)	86.5억원	86억원 (13개)

- (지역연계관광 사업 활성화) 3~4개 지자체를 연계한 핵심관광지(테마여행 10선)의 권역 연계상품개발(광역 시티투어 등) 및 관광기반 조성(통합 안내·홍보 등) 지원
 - * 지역별 시범 콘텐츠 육성을 위한 'PM 기획사업' 추진, 안내체계 통합정비 등
- (남해안 광역관광루트) 남해안의 리아스식 자연경관에 건축 및 예술적 아름다움을 가미, 다양한 체험이 결합된 융·복합 관광 제공
 - * 테마성 투어상품 개발, 오션뷰 명소화 사업, 이순신 통합상품 개발 등



- 남해안 지역 단일브랜드 개발('17.11월~), 램투어 등 홍보 추진('18년 상)
-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섬진강 양안의 시군에 산재한 자연·역사·문화·예술 자원을 묶어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방안 마련
- * 하동 녹차밭, 순천만 국가정원, 정병옥 가옥(윤동주 유고보존), 박경리문학관 등
- 도로 단절구간 연계, 동서통합대교 조성 등 인프라 확충 병행

□ [3-2-3] 장소중심형 지역관광활성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관광 관련 개발사업의 실현 공간은 장소 또는 지역, 도시가 해당. 관광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갖는 여러 부처 사업들이 집중되는 구조이나 문체부 주도로 타 부처 사업을 연계·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 부재

추진방안

- 직·간접적으로 관광과 관련해서 이용되고 있는 비도시 지역(해변, 해수욕장, 마리나, 어촌마을, 농촌마을 등)과 생활 활동권 범위에 해당하는 역세권을 포함한 도심 지역 내 적극적인 관광진흥이 가능하도록 (가칭)관광발전 진흥구역을 선정하고 장소중심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19~'22년)
 - 장소중심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문체부 중심으로 통합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 구조의 변경 추진
 - * 동일지역 관광 프로그램(문체부), 상하수도(환경부), 주요 기반시설 및 도로(국토부)에서 동시 추진
 - 비도시지역의 생활밀착형 공공형 공간,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관광 활용'이 가능하도록 장소중심으로 지원
 - * (예시)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국토부), 수혜자 중심 융합예산(기재부)
- 장소중심으로 다부처간 협업 및 융합적인 지원 프로세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계정 편성 후 사업을 추진. 추진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5개 지역을 목표로 해당 사업 당 50억 원 씩 지원
 - '(가칭)장소중심형 지역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가칭)관광발전 진흥구역' 또한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 타 부처사업 예산으로 기추진인 사업 중 해당 사업구역 내 관광안내소, 콘텐츠, 프로그램 등 문체부 예산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 시범적으로 (가칭)장소중심형 지역관광개발모델사업을 추진('19~'22년)

■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추진 예시

- 성장촉진지역 사업 중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H/W-S/W융복합 사업(타부처 사업 연계 가능사업 선정)을 '15년부터 20억 원씩 지원
- 현재 지자체에서 공모하여 60개 중 평가하여 20개 지원 확정
 -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중 모(母) 추진 사업이 있고 다른 타 부처 사업과 연계사업에 보조율 100% 지원
 - (대상사업)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 S/W(타 부처 사업 연계 가능)·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사업유형)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등
 - (공모절차) 공모신청접수(5월)→서면평가(6월)→현장확인(7월)→별표평가(8월)→선정(8월)

■ 기재부 수혜자 중심 융합예산 지원 추진 예시

- 부처 간 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예산심 의관별 1개 사업 추진)하고, 주관부처 및 협력 부처로 나누어 사업 추진(대학창업, ODA 등)
- 부처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협의(예산심 의관별 1개 사업 추진)하고, 주관부처 및 협력 부처로 나누어 사업 추진
 -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단계별 지원, 전체 융합예산 편성, 부처별 예산 집행의 프로세스로 진행
- ※(예시) 대학창업 융합예산, 지역관광 융합예산, ODA융합예산 추진

□ [3-2-4] 관광재생 뉴딜: 노후 관광자원 및 유흥시설의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 도심·농어촌 지역에 있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광기반시설도 점차 노후화되어 관광공간으로서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과 자원의 낭비 발생
 -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신규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간 관광자원 개발사업 투자효과가 감소
 - 현재 문체부에서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예술인들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17년 예산 : 10,116백만원)' 실시 중

추진방안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노후화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관광자원으로 재생 모델 개발 및 사업 추진('18~'22년)
 - (노후 시설의 문화적 재생) 노후화된 유흥시설 혹은 지정 관광자원 중 매력성·지속가능성·지역 역량 등 기준에 기초하여 침체된 관광자원에 문화적·물리적 재생전략 추진



* 노후 관광시설 등에 문화예술·디자인·최신 IT기술 등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새롭게 재생('17년 3개→'22년 10개)

* 지정·개발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광(단)지 시설 및 콘텐츠 정비

－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과 연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을 선정·지원(문체부 지역문화과)

* (사례) 원주 그림책 도시, 남원 소리 기반 전통예술도시, 군산 근대시간여행

－ (문화유산관광 추진) 근현대 문화유산을 원천자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유산관광 기반시설 확충(고택 공개 매입·활용, 지역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역사마을 지정 등)

■ (해외사례) 독일 근대유산 활용 사례

- 독일 에센 '줄페라인'
- － 독일 폐광산업시설 →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지역 내 유희시설인 폐교, 빈집, 폐산업시설 등을 역사성과 스토리를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재개발(문체부, 국토부)

* 폐조선소 활용 등 유희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영폐조선소 시범사업(마스터플랜 수립, '18.1월~)등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 (공모 사업 추진) 지자체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재생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규모와 재생 성격에 따라 사업비 규모 유형화

* 폐교·폐조선소 등 유희시설의 관광인프라 전환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경영개발 사업구조를 마련

■ (사례) 노후시설의 관광자원화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은 폐교 및 폐조선소 등 다양한 노후 시설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를 추진
- － (해양수산부) 어촌의 폐교를 활용한 관광 및 체험교실 운영하며,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음
- － (국토교통부) 폐조선소를 문화·관광형 조성사업 추진해 국제적 관광거점 육성 추진
- * (토지매입) LH 토지매입 기능을 활용하여 폐조선소 부지를 우선 매입
- * (관광인프라 전환) 지자체+LH+민간사업자 등이 공동출자한 개발회사를 설립(SPC)하여, 해당부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

■ (사례) 스웨덴 말피의 조선소 재활용

- 조선산업 쇠퇴로 도시가 쇠락한 말피에서 폐조선소 부지매입. 산업, 교육, 주거 복합지구로 재개발 시행
- － 폐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 건축된 수상복합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수요를 창출

<말피의 코코스 조선소>



<재개발 시행 후>



－ 관광재생공간 선정 후 일정기간 홍보·관광 마케팅, 컨설팅, 교육 등 간접적 지원 추진

* 관광재생 공간과 관련 홍보·마케팅, 관광재생 공간 관련 시·군 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아카데미 개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 추진

□ [3-2-5] 관광지 지정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말 지정 관광지 집행 실적율은 약 48.3%이고, 현재 추진 완료된 관광지는 11.6%이며, 이용객수는 전년대비 약 26.3% 감소 추세

* 1963년 도입된 이래로 2016년 말 기준 225개이며, 그 중 공공+민간협력형이 약 78%이며, 8년간 관광지 이용객수의 연평균 증감율은 약 0.1%의 감소 추세, 타 지역·지구·구역 등과 중복 지정은 78개(34.7%)

추진방안

○ 지정 관광지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로 개선함과 동시에 관광지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조성 방식 적용('19년)

－ 개선은 조성 실태 및 현안 분석, 정책방향 등을 토대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초기 1단계에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타당성 검토를 강화, 2단계에서는 점차 공공 또는 민간 주도로 지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이원화 추진

* 기존 관광지중 자연자원의 매력도가 높은 지역을 국민에게 공유(예: 산림청의 휴양림)

－ 1단계에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 계획관리 강화. 지정 전·후 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하여 관광지의 지정, 조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문제 해소 추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17.3.29, 전체수 의원): 도지사는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1단계가 정착되고 나면 2단계 관광지 제도개선을 추진. 공익적 성격이 강한 관광지의 경우 '공공주도형 관광지'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 하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국민관광 복지 차원의 국민휴양 관광지로 조성·관리 추진. '민간주도형 관광지'는 수익모델이 가능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에 민간 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

* 공공주도형 관광지 중심으로 지원, 민간주도형 관광지는 관광단지에 준하는 지원(국고보조금)

* 공공주도형 관광지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관광시설로 활용하며, 저소득층, 고령층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복지 시설로 활용 추진



[3] 지역관광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 [3-3-1] 주민공동체 관광사업 육성 등 관광두레 사업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시설 조성을 통해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로 인한 혜택을 입기에 부족.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관광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한 형태의 관광사업 외연 확대와 지역관광 신성장 생태계 육성이 필요
 - 2013년부터 추진한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 등 소기의 사업 성과가 확인되는 바,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전환점 필요
 - 주민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관광부문의 공동체 학습 기간 중요. 또한 현행 관광두레 사업은 소프트웨어 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창업 단계에 이르는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구축 기반 지원 필요

추진방안

-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제주해안레저체험파크 등),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 등 지역 주민사업체의 창업 활성화(문체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현행 관광두레 육성 기간(기본 3년+추가2년)에서 육성 전후 기간을 추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으로 사업 영역 확대 추진. 사전 학습단계와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관광비즈니스를 지역주민의 관광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단위 허브구축까지 관광두레사업 영역 확대('18~'22년)
 - 예비단계로서 관광두레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지역별 예비PD 및 주민공동체 사전 학습 모임 육성. 사업 대상지 선정이전 단계에 주민공동체 관광사업 학습 모임 지원
 - * 예비단계에 지역 고유의 자원과 지역관광의 문제 등을 조사하는 '(가칭) 지역진단반' 운영
 - 지원기간 이후 단계로서 지자체 및 타부처와 연계하여 유희 공간(공공청사, 문화 공간, 지역상점가 등)이나 노후 시설(공장, 창고 등)을 활용한 소규모 관광비즈니스 창업허브를 운영. 지자체별 PD를 중심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확장 가능
 -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 발굴부터 관광상품 개발 및 생산, 유통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육성.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인력 양성, 공간 임대, 기술컨설팅 및 자금조달 지원

- 지원기간 후, 관광두레 협의체(PD, 주민사업체 등) 중심의 자발적인 인증 시스템 마련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두레 운영 지원조직 체계화) 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사업체 창업 및 지속 발전을 위하여 지원조직의 체계화 및 안정화 추진('19~'22년)
- 현행 기초 지자체별 1인의 중간지원자(관광두레 프로듀서)를 조직으로 확대 및 체계화. 중앙 및 지자체 단위 관광두레 운영 지원 조직을 체계화하여, 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 확대로 주민사업체의 지속 발전 유도

□ [3-3-2] 국민관광자원 육성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원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 유희시설(공점포, 창고, 빈집 등)이 산재. 지역 내 유희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후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 지역 공간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 야기
 - 지역 내 산재하여 있는 유희시설과 노후시설 등을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유지·보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 추세
 - 최근 "00에서 한 달 살기"등 농촌 및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육성, 이로써 국내 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분산 필요

추진방안

- 국민들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되, 전국의 유희시설과 노후시설의 관광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민관광자원 육성 지원('19~'22년)
 - (유희시설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개최) 유희자원 활용, 재생, 공유에 방점을 두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 조성' 사업 추진하고 페스티벌 개최
 - 마을의 공폐가, 공터, 창고 등 유희시설을 대상으로 예술 작품 설치 및 지역특화 거점(숙박, 음식, 전시·홍보관 등)으로 개발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며 '지역 자원 조사 → 콘셉트 설정 → 예술 작품 설치 및 거점 공간 조성 → 페스티벌 개최' 등의 순으로 사업 추진
 - * 문체부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연계 가능, 농림부 협업 사업 고려
 - 사업의 추진주체는 시·군, 마을운영위원회 등이 될 수 있으며, 국민관광자원의 형태는 숙박시설, 예술작품 전시관, 여행자카페, 마을레스토랑 등 지역요구에 따라 구상
 - * 페스티벌 개최는 일본 대지의 예술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등을 참고



- 규모가 큰 지자체 소유 유휴(노후)시설 등은 부실자산의 정리축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 검토
- (국민휴양촌 조성) 지역 내 폐교, 공장, 창고 등 유휴공간을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되, 점 단위의 소규모 숙박공간 조성이 아니라 국민휴양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변 연계 관광자원 여건 고려

□ [3-3-3] 지역관광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관광 개발과 관련된 권한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앞으로 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견인할 기관이나 조직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 직면

추진방안

- 중앙 및 초광역 단위 또는 생활권 기반의 기초 단위의 한국형 DMO 조직설립 및 역할 부여를 통해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발굴 지원
 - (유형) 중앙단위와 초광역 단위는 공설공영형, 기초 단위는 공설민영형
 - (역할) 초광역 단위는 조정, 관리 및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관광사업의 지속 관리, 기초단위는 역량구축, 코디네이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집행

<표 V-33> 지역관광 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특징, 역할

기능	중앙 단위	광역 단위	기초 단위	특징	역할
정보 수·발신	●	①		지역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취합	각 중앙부처 관광정책 수집 및 전달 시군단위의 의견을 모아 중앙에 반영 요구
현지 조사·연구	●	○	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진행	지역특화관광사업 발굴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정책계획 수립	●	○		행정의 자원을 지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	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광역시도별 사업모델 발굴
네트워크	①	●	○	시군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마련(네트워크의 연계)	동종 혹은 이종 관광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촉진, 민간·정부·주민 연계된 교류모임이나 세미나, 지역포럼 개최, 정보교류 장소 제공

인재육성	①	○	●	시군에 제공할 수 있는 공통매뉴얼 마련, 각 대학과 연결할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마련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관광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재무, 세무, 컴퓨터, 경영, 창업, 강좌 등), 담당공무원 훈련 및 교육, 관련분야 활동 전문가 육성, 관광사업 관련 지역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상담 및 컨설팅	①	○	○	지역형의 관광조직과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컨설팅 제공	경영일반/마케팅 등 분야별 상담 및 컨설팅, 사업지원 컨설팅, 사업지원 설명 및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자료 : 김형자·최자은(2017)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II

- 유형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 추진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 (재원) 보조금, 교부금 정부지원비, 소속 사업체 분담금, 수익사업, 펀드 등 자주
채원비용을 유형에 따라 재원 구성
※(수익사업 예시) 트래블 패스카드, 관광가이드 및 지도 유료화 등
 - (재원확보 예시) 관광활성화 펀드 및 숙박시설 관광세 도입 검토 등
 - (주요사업) 지역데이터 수집·분석·제공, 주요 업적 평가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설정, 지역 관광 상품 개발 등 사업추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공동 홍보 등 추진

■ 일본형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 일본형 DMO는 지역의 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연계된 여러 부처, 민간 기
관, 지역주민이 함께 마케팅, 관광지 관리 등을 정부주도로 추진
- (재원)현재 국가 보조금에 의존, 숙박세 도입으로 자주채원 확보 예정
- 관광지역진흥 추진체제 비교: 1) 미국: 민간(DMO) 주도, 2) 유럽: 지역
DMO, 지방정부, 3) 일본형: 정부주도, 4) 한국: 민간+정부





□ [3-3-4]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제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근거한 지역발전사업 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권 사업 중심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 부문 단위사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의 통계평가센터에서 일부 사업군에 대해 평가를 시행 중이나, 평가 시행 및 평가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 취약
 - 법제도적 근거 미비로 평가 예산 확보 애로, 예산 부족으로 지역관광개발사업 전반을 포괄하여 진행하기 역부족
- *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평가 시행

추진방안

-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 집행, 완료, 사회·문화적 영향 등 각 단계별 체계적이고 정기적 평가를 추진,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 성과 측정 및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를 제도화('18년)
 -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등 제도적 여건 정비 계속
 - 정부의 관광개발관련 정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에 미치는 제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
- * 중앙/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 관광사업 추진과 관광재정 투입을 위하여 정기/수시 단위(예, 5년 단위 정기, 1,000억 원 이상 수시) 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범위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광영향권(인접 시·군 포함)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중앙단위의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를 설립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지역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지정하여 운영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을 추구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 우수한 사업 성과를 도출한 사업 및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지역 관광개발사업 선정 및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지역발전사업 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례) 문화영향평가제도

-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 지원,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국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예: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산업,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사업 등)을 대상
-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기부를 통해 자연환경자산 등을 매입, 확보하여 보전 관리하며, 낙동강 둔치도, 월파 서민호 정원 등의 문화자원을 추진



(4) 지역관광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 [3-4-1]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농산어촌관광은 시장의 확대와 공동체 결속 강화 등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시설·인프라 조성에 집중된 지원, 차별화된 콘텐츠와 관광자원 간 연계성의 미흡, 운영의 전문성 부족 등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에 한계를 가짐

추진방안

- 농산어촌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을 유도하고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을 추진('18~'22년)
 - (농촌관광) 농촌 특화 숙박·체험·음식 등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홍보 지원 및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 지원
 - * 농촌관광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고,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을 통해 우수등급 사업을 우대 지원함. 지역관광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함
 - (산림관광) 산림청과 연계하여 산림관광 생태계 조성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산림관광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산림관광 전문인력(예,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산림관광 법제화 추진 등 지원
 - * 산림청 산촌관광 관련 사업 예산('17년): 산촌 6차 산업화 및 운영매니저 지원(18억원), 인제 자작나무 숲 활용 산촌관광 시범사업(10억원)
 - (어촌 및 해양관광) 어촌마을 중 특색 있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어촌테마마을'로 지정 및 육성하고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장기 체류형 관광 육성 및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추진, 여행주간 연계한 해양관광 주간 신설, 어촌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예, 관광 복합시설) 조성 등 해양수산부와 연계 지원
 - * 어촌테마마을 : 자연환경·역사·문화 등 특색있는 유형의 관광 어촌마을을 지정하여 어촌테마마을 조성(10개소, 20억원)
 - * 해양관광 주간 : 현재 시행중인 여행주간('17년 예산: 120억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 및 바다의 날 등 중 기간 지정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 * 해양수산부 어촌 및 해양관광 관련 사업 예산('17년): 어촌어항관광기반 조성(398억원), 해양관광육성(142억원)

□ [3-4-2] 문화공간의 관광자원화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과 내·외국인들의 일상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지, 관광시설 방문 중심에서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의 관람 및 체험 활동을 하는 방문수요가 증가

추진방안

- 지역 내 국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이 가능한 도서관, 미술관, 동주민센터, 공연장 등 생활밀착형 공공형 자원을 이용하여 융복합 기능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관광편의 기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표적인 해당지역 랜드마크화('19~'22년)
 - 관광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도심내 생활밀착형 공공형 자원으로는 도서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동 주민센터, 공연장, 은행 등이 가능
 - 기존시설 기능+관광편의 기능(관광정보제공, 관광안내, 프로그램 체험, 전시 관람, 만남의 장소 등)을 융·복합하여 지역 랜드마크 역할 부여
 - 운영주체는 지역공동체+전문가 그룹, 대상시설은 공공형 자원, 이용주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제공
 - *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일본의 규슈 사가현 다케오 시립도서관 등

<표 V-34> 문화공간의 관광자원화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문화공간 시설운영자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 공유재산(개인소유자가 5인 이상인 부지)에 복합관광으로 활용가능 할 수 있는 유형
추진방식	공모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선정하여 약 20억원 이내로 매년 10개씩 지원 해당부처의 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심의
선결요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협력적 지자체 활용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다분야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실패 최소화 소유와 운영은 민간이 지원과 관리는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제도 필요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공모를 위해 예산신청, 사후 정산 등 전담 지원 조직 필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인구 30만명 도시인 빌바오에 매년 120여만명 방문, 4천억원 관광수입으로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창출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



뉴욕 브로드웨이 연 티켓매출 1.6조원, 관람객 총 13백만명 중 66%가 외래 관광객



□ [3-4-3] 공공형 민간 관광지원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하여 국가재정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거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경장보조에 국한되어 자산취득용도로써 사용 불가
 - 문제부 내 대표적인 민간보조금 사업들은 대중문화산업 관련 예산으로 일부 사업들의 미정산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문제
 - * 현재 문제부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훈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추진방안

- 기존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재정 지원 대상이 민간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 트랙 확대('19~'22년)
 - 관광사업의 지원이 기업 단위가 아닌 관광자원 유형의 프로젝트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화
 - 영화, 공연, 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처럼 일회성이면서 자금 투입, 경영수익이 기존 사업과 구분 가능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 지원
 - 모든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후 정산 관리 시스템(사업정산, 수익 배부, 자금회수 장치)도 동시에 구축 추진
 - * 향교, 분재원, 식물원, 소규모 박물관, 마을회관 등 다양한 민간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공간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민간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며, 시설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개인 사유화가 아닌 입장료를 받는 것을 통해 대중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전제
 - * 예: 홍천 은행나무 숲은 개인이 30년 동안 가꾼 숲이나 2010년부터 매년 10월 1달 동안 무료로 개방 중. 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 검토 가능

■ 서울시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사업

- 사회적 임팩트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성, 사업성, 그리고 재무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저금리로 융자하는 지원사업
 - 민간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협력(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한 지원목적성 확인)
 - 주요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 뉴튼퍼터, 공무점, 정동국밥, 에이컴퍼니, 웹와치, 드림아카이브, 쓰카,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등

□ [3-4-4] 관광전략 거점 도시 육성 및 네트워크화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방문은 수도권과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집중. 향후 외래관광객 2,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관광객 분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연계 네트워크화 필요

추진방안

- 수도권 중심의 관광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제주 이외에 주요 도시 등을 지역관광 전략거점으로 육성하되 주변 지역과의 연계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 및 상품 개발 추진('19~'22년)
-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제도를 개선하여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인프라 + 고유의 지역성을 갖춘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 수도권을 대체하는 '관광전략 거점도시'로서 위상 강화 기반 마련
 -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콘텐츠 뿐만 아니라 관광서비스인프라 등 모든 분야 정비 지원
 - 관광도시가 보유한 자원(산업, 문화, 생태 등)을 활용하여 부처협력형 관광도시 육성
- (전략 거점 도시간 네트워크) 전략거점 관광도시와 주변의 관광매력자원을 연계하여 루트화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형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지원
 - 경성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거점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소도시 및 관광마을, 관광명소 등과의 연계 네트워크화
 - 관광객에게 소구력있는 1박2일, 2박3일 코스 등 주변 관광지역 및 관광명소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 육성
- (1단계) 지역관광 목적지의 다변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3대 추진목표(도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분산, 부처 간 협력 증대)를 설정
 - * (도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지방 관광거점 도시 육성을 통하여 도시 지역경제 기여
 - * (지역관광 분산) 수도권, 부산, 제주 등 지역관광 다극화를 통해 한국관광의 매력성 제고
 - * (부처 간 협력 증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 (2단계) 관광전략 거점도시를 권역별로 대표되는 1개 도시를 선정하여 수도권을 대체하는 '관광전략 거점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기반 정비 및 융복합형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추진사업을 지원
 - * 8개 권역 대표 도시당 연간 50억씩(50%매칭) 5년 동안 지원, 자본보조 및 경장보조 지원비율은 선정도시 특성에 따라 지원을 조정(올해의 관광도시, 테마여행10선 등)

4

추진 일정(안)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3-1. 지역관광 매력 및 서비스 고도화		
3-1-1 지역 매력 콘텐츠 개발 지원	문체부	2018-2022
3-1-2 지역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문체부	2018-2022
3-1-3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	문체부, 국토부	2018-2022
3-1-4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채험성 강화	문체부	2019-2022
3-2. 지역관광 개발 정책수단의 선진화		
3-2-1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조성 및 육성	문체부	2018-2022
3-2-2 광역관광권 등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문체부	2018-2022
3-2-3 장소중심형 관광활성화 지원	문체부, 국토부	2019-2022
3-2-4 관광재생 뉴딜: 노후 관광자원 및 유휴시설의 재활용	문체부, 기재부	2018-2022
3-2-5 관광지 지정 제도 개선	문체부	2019
3-3. 지역관광 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3-3-1 주민공동체 관광사업 육성 등 관광두레 사업 확대	문체부	2018-2022
3-3-2 국민관광자원 육성 지원	문체부	2019-2022
3-3-3 지역관광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문체부	2019
3-3-4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 제도화	문체부	2018
3-4. 지역관광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3-4-1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문체부,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2018-2022
3-4-2 문화공간의 관광자원화 지원	문체부	2019-2022
3-4-3 공공형 민간 관광지원 제도 개선	문체부	2019-2022
3-4-4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및 네트워크화	문체부	2019-2022

제 4 절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고도화

1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의 필요성

가. 정책목적

- ☒ 인바운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관광산업 발전
 - 외래관광객 유치 다변화로 안정적인 인바운드 시장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 기여
- ☒ 외화획득 규모 확대
 - 외화획득 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 기여
- ☒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인바운드 시장의 질적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및 관광목적지 이미지 제고
- ☒ 지역발전 및 활성화
 - 지역주도형 외래관광객 지방 분산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균형 발전 도모

나. 정책대상의 범위

- ☒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 ☒ 잠재적 외국인 관광객(해외 거주)

다. 정책방향

- ☒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은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고도화”를 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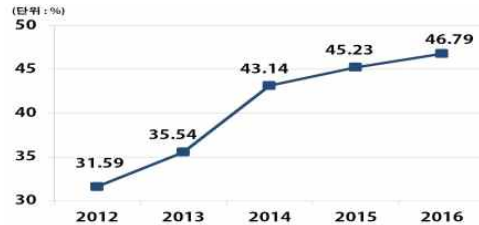


- ☑ 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인바운드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 여행편의 제고, 지방관광 활성화, 국제적 교류·협력 강화로,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 도모
-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은 1) 방한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강화, 2) 외래관광객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3) 외래관광객 지역 방문 촉진, 4) 국제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로 설정

2

외래관광객 유치의 현황 및 진단

- ☑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일본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 우리나라의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서 줄곧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3년부터는 중국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짐
 - 1위 단일시장 집중도 : 31.6%(2012년) → 46.8%(2016년)
 -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국제관광의 특성상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른 외부충격 발생 시 큰 타격을 받게 됨



[그림 V-11] 1위 단일시장 집중도

<표 V-35> 한국과 일본의 Top 1~3위 시장 집중도 비교(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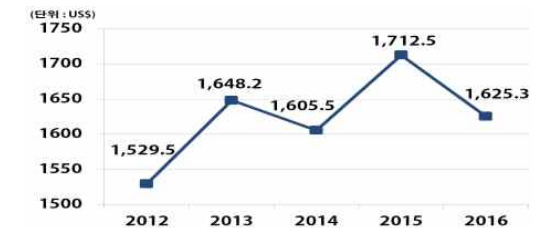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CR1	31.59	24.44	35.54	23.69	43.14	21.10	45.23	25.30	46.79	26.51
CR2	57.06	41.97	58.11	45.03	59.20	41.63	59.12	45.57	60.12	47.69
CR3	63.32	59.02	64.04	57.71	64.62	59.59	64.92	64.21	65.14	65.02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일본정부관광국 자료 토대로 작성(단위 : %)

* CR : Concentrate Ratio

- ☑ 2016년 1인 평균 지출 경비 감소

- 2016년 방한 외래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 경비가 1,625.3달러로, 2015년 대비 87.2달러 감소
- 방한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등의 국가에서 1인 평균 지출 경비 감소
- 그중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특히 쇼핑비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자료 : 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그림 V-12] 방한 외래관광객 1인 평균 지출 경비(2012~2016)

<표 V-36> 주요 방한국가별 1인 평균 지출 경비(2014~2016)

구분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2014	999.1	2,094.5	1,249.2	1,462.0	1,066.9
2015	826.9 (▽172.2)	2,319.0 (+224.5)	1,313.6 (+64.4)	1,104.5 (▽357.5)	1,177.0 (+110.1)
2016	813.9 (▽13.0)	2,059.5 (▽259.5)	1,244.3 (▽69.3)	1,032.6 (▽71.9)	1,149.9 (▽27.1)

자료 : 2014~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단위 : US\$)

<표 V-37> 중국관광객 여행형태별 1인 평균 지출 경비(2014~2016)

구분	중국 개별관광객		중국 단체관광객	
	총지출경비	쇼핑비	총지출경비	쇼핑비
2014	2,267.6	1,550.2	1,791.4	1,271.3
2015	2,483.4(+215.8)	1,687.7(+137.5)	2,080.3(+288.9)	1,551.5(+280.2)
2016	2,208.0(▽275.4)	1,420.3(▽267.4)	1,830.8(▽249.5)	1,293.0(▽258.5)

자료 : 2014~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단위 : US\$)



☑ 2017년 주요 국가 중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외래관광객 감소

- 2017년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48.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하게 감소
 - 관광목적으로 방한한 중국관광객은 전년대비 55.1% 감소
-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방한객 수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둔화하는 양상
 - 베트남은 전년대비 2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방한객 수가 전년대비 두 자리 수 감소율을 보임
 - 방한 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목적으로 방한한 관광객 수는 증가한 반면 기타 또는 상용 목적의 방한객 수가 크게 감소함

<표 V-38> 주요 국가별 입국 동향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2016	8,067,722	2,297,893	866,186	833,465	650,676
2017	4,169,353	2,311,447	868,881	925,616	658,031
증감률	-48.3	0.6	0.3	11.1	1.1
구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6	556,745	470,107	311,254	295,461	251,402
2017	448,702	498,511	307,641	230,837	324,740
증감률	-19.4	6.0	-1.2	-21.9	29.2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단위 : 명, %)

- 크루즈 외래객의 경우 최대 시장인 중국은 승객 및 선원 수 모두 급감하였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선원 수가 크게 감소함

<표 V-39> 크루즈 외래객 입국통계(2016-2017)

구분	2016		2017	
	승객	선원	승객	선원
중국	1,516,500	128,753	206,838	25,937
필리핀	2,760	187,528	1,220	59,641
태국	906	2,983	783	1,070
말레이시아	1,137	4,551	776	1,140
인도네시아	1,109	84,825	317	24,840
베트남	507	4,032	16	787

자료 : 한국관광공사 크루즈외래객 입국통계(단위 : 명)

☑ 방한 외래관광객의 서울, 제주 편중 방문

- 외국인의 한국여행 시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다음으로 제주, 경기, 경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 중심의 방문지역 편중으로 인해 인바운드 시장의 성장이 우리나라의 지역관광 활성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정 한계를 나타냄

<표 V-40> 한국여행 중 방문권역(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권	82.5	80.9	80.4	78.7	78.0
제주권	12.0	16.7	18.0	18.3	20.2
경기권	21.3	17.9	13.0	13.3	13.1
경상권	16.1	15.6	10.8	13.0	12.5
강원권	9.7	9.2	7.1	6.4	6.4
인천권	7.7	7.8	5.0	6.8	6.2
충청권	4.1	4.0	2.4	3.0	2.5
전라권	4.1	3.8	2.8	3.4	2.2
기타	0.3	0.6	0.2	0.1	0.1

자료 : 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단위 : %, 중복응답)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권에 포함시킴

☑ 인바운드 시장을 둘러싼 경쟁 심화에 따른 질적 제고의 한계

- 최근 중국이 인바운드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견인하며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함
-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초저가 덤핑 단체관광 상품판매로 인한 관광 시장 질서의 혼란과 관광객 만족도 저하라는 문제점이 발생함
- 또한 2017년에는 중국 시장의 급감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동남아 시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동남아 관광시장 유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 시장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동남아 시장에 업체들이 몰려들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초저가 덤핑 단체관광 상품들이 증가하는 부작용 발생

☑ 관광수용태세의 지속적 개선 필요

- 최근 인바운드 시장의 성장으로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 한국어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2012-2016)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만족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언어소통, 관광안내서비스 등의 항목은 만족 비율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FIT의 빠른 증가세에 대비하고 외래객 방문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수용태세의 체계적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V-41> 한국어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입국절차	77.7	82.4	87.7	87.7	87.2
대중교통	78.9	82.3	86.9	87.5	87.3
숙박	81.6	83.1	88.6	90.1	89.8
음식	82.0	81.1	85.5	85.8	86.6
쇼핑	81.0	81.8	86.6	87.0	88.2
관광지매력도	73.4	75.9	82.1	84.0	85.7
관광안내서비스	69.0	69.3	75.9	79.2	80.8
언어소통	57.7	55.4	62.4	65.8	68.1
여행경비	72.0	70.8	73.9	71.7	77.2
치안(안전성)	86.2	87.2	90.0	90.9	92.5
전반적 만족도	90.2	91.4	94.0	93.5	95.0

자료 : 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단위 : %)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효과성 제고노력 지속 필요

- WEF 관광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의 효과성 부문 순위가 69위(2013) → 73위(2015) → 59위(2017)를 기록함
- 국가 브랜드 전략 평가 부문 순위는 60위(2015) → 52위(2017)로 상승함
-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관광마케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표 V-42> 관광마케팅 관련 한중일 관광경쟁력 지수순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중국		
	2013	2015	2017	2013	2015	2017	2013	2015	201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의 효과성	69	73	59	60	57	27	42	53	36
국가 브랜드 전략 평가	-	60	52	-	2	42	-	55	26

자료 : WEF(2013,2015,2017), 관광경쟁력 보고서



3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고도화를 통한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

핵심과제 1 방한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강화

- 인바운드 시장 세분화 및 유치 전략
- 체류형 환승관광 시장 활성화
- 프리미엄 시장 유치 활성화
- 교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 관광브랜드의 체계적 활용 및 관리

핵심과제 2 외래관광객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 관광안내서비스의 고도화
- 관광-항공 분야 협력체계 강화
- 크루즈 주요 기항지 관광수용태세 강화
- 무슬림 친화적 관광수용태세 구축
- 동남아 관광시장 비자발급 요건 완화

핵심과제 3 외래관광객 지역 방문 촉진

- 지역주도형 외래객 유치거점 육성
- 지역관광지 교통연결성 향상
-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 지역 쇼핑관광 브랜드 육성 및 지원
- 지역관광 해외 홍보체계 및 데이터 구축

핵심과제 4 국제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 한·중·일 동북아 관광협력 강화
- 한-아세안 관광협력 강화
- 관광 ODA 사업 추진 확대

(1) 방한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강화

□ [4-1-1] 인바운드 시장 세분화 및 유치 전략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3년 이후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1위 시장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16년 기준 전체 방한시장 중에서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약 46.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또한 아시아 지역이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전체 방한시장의 80% 내외 비중을 차지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인바운드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일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인바운드 시장다변화 정책 필요

추진방안

- 방한 관광시장 구성의 재편을 위해 (1단계) 단기적으로는 중국 단일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2단계)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역외시장의 유치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 2016년 기준 방한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TOP 20 국가들을 우선 선별하고, 최근 5년간('12~'16) 평균 성장률, 관광객 1인당 지출액('16),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유형을 세분화
 - 첫째 '기초시장'은 동북아 역내 인접국가 및 한국과 긴밀한 관계의 국가로서 방한 관광시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장을 의미함(중국, 일본, 미국 등)
 - 둘째 '전략시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성장시장'과 '고부가시장'임
 - 고성장시장의 경우 대만, 홍콩 등 비(非)중국 중화권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이 포함됨
 - 고부가시장은 현재 방한 관광객 수는 많지 않으나 평균 지출 경비가 높아 관광수입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시장을 의미하며 러시아(극동), 인도, 중동 등이 고려 대상임
 - 셋째 '잠재시장'은 방한 접근성이 낮은 원거리 시장으로서 현재 정책적 관심도는 낮으나 국제관광 지출 규모 면에서 향후 유치 확대 노력이 요구되는 구미주 지역 시장이 포함될 수 있음

<표 V-43> 주요 방한시장 세분화 및 유치 마케팅 전략

시장 구분	국가 예시	시장 특성	유치 방향
기초 시장	중국, 일본, 미국	• 동북아 역내에 위치한 인접국가 및 한국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서 방한 관광시장의 기초를 형성하는 핵심 시장을 의미함	• 단순히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을 위한 관광마케팅 전략의 전환 필요 • 아웃바운드 시장의 성숙에 따라 재방문 수요 창출 및 지역 방문 활성화
전략 시장	고성장	• 비(非)중국 중화권으로 지리적 근접성이 높고 중국 본토시장과 차별성을 가짐 •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발전과 한류인기로 인해 최근 급성장 추세를 보임	• 중국본토와 달리 성숙시장으로 단체 여행보다는 FIT 중심 유치정책 강화 •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신(新)중산층 소비시장을 주목하고 젊은 연령층 공략
	고부가	• 현재 방한 관광객 수는 많지 않으나 관광객 1인당 지출경비가 높아 부가가치 제고 및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시장	• 의료 및 웰니스, 뷰티, MICE,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가족단위, 무슬림 관광시장 유치 강화
잠재 시장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 원거리 시장으로 현재 정책적 관심도는 낮으나 국제관광 지출규모가 큰 송출시장으로 향후 유치 가치가 높은 시장	• 구미주의 프리미엄 럭셔리 시장 유치를 위한 체험콘텐츠 발굴 및 홍보 • 한·중·일 3국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구미주 시장 대상 공동마케팅 추진

- '기초시장'은 지속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되, 기존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며 재방문 수요 창출 및 지역 방문 촉진을 위해 마케팅 강화
- '고성장 전략시장'은 지리적 근접성, 한류 콘텐츠 인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비자제도 완화, 무슬림 친화환경 조성 등 정책을 통해 젊은 연령대의 신(新) 중산층 소비시장을 공략
- '고부가 전략시장'은 유치 관광객 수보다 1인당 관광 지출액을 늘이는데 초점을 두고 의료 및 웰니스, 뷰티, MICE,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
- 구미주 지역의 '잠재시장'유치를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와 공동 마케팅 협력 강화, 프리미엄 럭셔리 시장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집중할 필요

□ [4-1-2] 체류형 환승관광 시장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환승관광을 중요한 인바운드 정책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통과·경유·환승여객이 연간 약 9백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환승관광객 유치 노력 및 프로그램은 미비
 - 관광분야에서는 인바운드 확대를 위해 스톱오버(Stop-Over)가 중요하지만, 항공 분야는 공항이용객 증대에만 중점, Transit·Transfer에 집중하는 등 입장차 존재
 - * 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 증대를 중요시하므로 통과 및 경유 여객만 증대되어도 무방하지만, 관광측면에서는 항공여객이 공항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국내여행을 실시해야만 인바운드 및 관광수입이 증대하게 되므로 스톱오버 관광이 중요
 - * transit 혹은 transfer 등 통과와 경유 등도 통상 환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항공여객이 특정 목적지로 이동과정에서 중간 기착지 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는 형태이며, 스톱오버는 환승하는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 국가에 입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 *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환승관광 프로그램은 무료로 인천공항 주변을 2~3시간 둘러보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관광공사의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시행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상황

추진방안

-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여객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시장 확대를 위해 스톱오버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홍보 마케팅 확대
 - 우리나라 인바운드 및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환승여객을 대상으로 한 실효적인 환승관광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공항공사·항공사 등 관광업계 및 항공업계의 협력 하에 환승관광 프로그램 외에도 환승관광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충
 - 또한 우리나라 국제공항에서 통과 혹은 경유하는 외국인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 여행 실태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스톱오버 프로그램을 개발

■ 싱가포르 창이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정책

- 싱가포르는 창이공항 허브화의 유지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 항공여객이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에서 환승할 경우 호텔 숙박비를 50% 할인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체류시간이 5.5시간 이상인 경우 무료 헤리티지 투어(heritage tour), 체류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시티 라이트 투어(city lights tours) 서비스를 제공

□ [4-1-3] 프리미엄 시장 유치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국 시장의 급속한 성장 등에 힘입어 인바운드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초저가 덩핑 단체관광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
-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광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부유층, 여가동호회 시장 등 프리미엄 시장 유치를 활성화하여 관광시장의 저변확대 필요

추진방안

-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는 주요 타깃시장을 전략적으로 설정
 - (예시) 미식체험시장, 고품격 전통문화 체험시장, 고부가 뷰티체험시장, 자녀동반 가족 시장, 고부가 실버층 휴양관광 시장
- 타깃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 홍보 위해 부유층 전문 여행업체, 호텔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실시 등 체험형 홍보마케팅 추진
- 고품격 한국체험 동영상 제작 및 해외 주요 미디어를 통해 홍보
- 럭셔리 여행시장을 타깃으로 한 ILTM* Korea 개최 추진('17.11)
 - * ILTM(International Luxury Travel Market) :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자, 고급 호텔, 관광업체 등이 참석하는 럭셔리 트래블 마트

■ 일본 럭셔리 트래블 마트 사례

- JNTO를 중심으로 구미주 부유층 유치를 위해 주요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특별한 일본체험 제공 및 관련영상을 해외 주요미디어를 통해 VIP 대상 홍보사업을 실시
 - 부유층 대상 미디어 및 여행회사를 일본각지에 연간 100명 정도 초청하여 스토리 있는 일본전통 및 문화를 알리는 관광상품 제공

구분	내용	개최지
제1차(2013)	- 2,500건 비즈니스 미팅 - 100명 이상의 바이어와 전시업체 1:1 매칭	교토
제2차(2014)	- 1,000건 비즈니스 미팅 -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 네덜란드,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럭셔리 관광 바이어 참석	교토
제3차(2015)	- 일본의 인·아웃바운드 럭셔리 여행시장 관계 구축 설계	교토
제4차(2016)	- 방일 럭셔리 관광객은 전년대비 35% 증가 - 럭셔리 관광 목적지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호주, 중국,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그리스에 이어 일본은 6위 기록	도쿄
제5차(2017)	- 호주, 캐나다, UAE, 영국 및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측 참가자와 호스팅 바이어 모두 24% 증가 - 1:1 비즈니스 매칭 건수는 3,650건으로 전년대비 16% 증가	도쿄
2018	2월 26~28일 개최 예정	도쿄

* 자료: 観光立国推進基本計画(案), <http://www.iltm.com>, 원대 내부자료



□ [4-1-4]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방한 목적이 다양해지고 관광수요가 세분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 유치의 중요성 증대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 의료/웰니스 관광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활성화 필요
 - * 방한 외래객 1인 평균 지출액 대비, 의료관광은 6배, MICE는 1.8배 지출
 - MICE 산업의 경우 회의참가 이외 숙박, 쇼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관련시설의 연계나 집적화가 중요

추진방안

- 지역 중심의 MICE 산업 육성 및 분야별·시장별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제회의복합지구 등 지정) 숙박·쇼핑·공연 등 연관 산업 시설 집적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신규 지정 추진('18.上)을 통한 특례 제공
 - * 관광특구로 간주, 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재정지원 등 혜택 제공, 부담금 감면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확대 및 유치 지원 센터 설치
 - 주요 타깃시장 대상 의료관광업계 및 지자체의 의료관광객 유치 채널 확대
 - 한국의료 인지도 강화 및 관광활동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유치 지원 센터 설치
-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에 웰빙, 휴양, 건강관리, 스파, 뷰티 등이 결합된 한국형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 특색 있는 웰니스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지·숙박·음식 등과 연계한 지역 체류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육성

□ [4-1-5] 관광브랜드의 체계적 활용 및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관광브랜드를 3번 교체하는 등 빈번한 교체로 인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한국관광 이미지 확립 미흡
 - Korea Sparkling(2007~2009) → Korea Be Inspired(2010~2013) → Imagine Your Korea(2014~)

- 한국관광의 이미지 홍보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있어 관광브랜드의 일관성 유지 및 지속적 홍보 활용 필요

추진방안

- 관광브랜드의 일관성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 한국관광의 다양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연도별 핵심테마를 지정하고 관광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홍보마케팅 추진
 - 핵심테마별 브랜드상품 개발 및 여행업계·언론인·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캠퍼서 실시
- 주요 인바운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깃시장별 차별화된 관광브랜드의 활용을 통한 마케팅 추진
- 관광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지자체, RTO, 민간업계 등과 협력 강화 및 브랜드 활용 확산
- 한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산업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시 관광브랜드의 연계 활용

(2) 외래관광객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 [4-2-1] 관광안내서비스의 고도화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의 이용과 방문이 높은 공항, 지하철 등 교통안내와 주요 관광지 정보는 대부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소수언어권에 대한 다국어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필요
- 방한 인바운드 시장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FIT의 증가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관광정보 서비스 수요 급증



추진방안

- 동남아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지원 확대
 - 기존의 영·중·일어 등 3개국 언어를 중심으로 한 기초 관광안내서비스의 범위를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러시아, 아랍어 등으로 확대(1330 관광통역안내전화, 관광불편 신고센터 응대 언어, Visit Korea 언어 등 대표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
 - 5개년에 걸쳐 지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범위 확대
- 공급자 중심의 관광안내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개별관광객의 주요 여행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교통 및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를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shop in shop(편의점 또는 커피숍 등에 기념품과 함께 관광안내브로셔 제공) 사업 지원
-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이 언어문제를 극복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국어 관광 모바일앱 개발 등 스마트 기반 다국어 관광안내,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확대
 -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하는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관광 스타트업 지원 확대

□ [4-2-2] 관광-항공 분야 협력체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인바운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항공좌석 수급 및 항공노선 확충이 핵심 관건이나, 관광 및 항공부문 간 유기적 협력 미비로 관광-항공 분야의 정책적 격차 발생
 - 관광 및 항공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지만, 명확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발전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필요

<표 V-44> 관광 및 항공부문 입장 격차

구 분	관광부문	항공부문
항공노선정책	지방공항 균형 배분	인천공항 허브화
지방공항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 우선	지방공항 항공 증대 우선
항공사	국적사 및 외항사 비차별	국적항공사 우선
환승	Stop-Over에 중점	Transit 및 Transfer도 무방
항공협정	방한 외래객 증대 중점	국적항공사 및 공항 보호 우선
환승관광	한국관광공사 주도	인천공항공사 주도

추진방안

- 관광 및 항공은 공동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양 부문 간 현안 해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가칭) 관광-항공 상시 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
 - 문체부·국토부, 관광·공항공사, 관광·항공협회 및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광-항공분야 상시 협의기구를 설치 및 운영
- 상시 협의기구에서는 ① 관광 및 항공부문 이해관계 조율, ② 주요 목표시장 분석 및 노선개발 방향 수립, ③ 관광-항공여객 수요예측, ④ 각종 동향 및 실태조사 분석, ⑤ 관광공사 해외지사-항공사 해외지점 해외홍보 마케팅 및 상품개발 협력, ⑥ 인바운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항공협정 및 항공 자유화 추진 협의, ⑦ 기타 당면과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수행

□ [4-2-3] 크루즈 주요 기항지 관광수용태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방한 크루즈 기항지관광은 중국인 대상 저품질 단체패키지상품이 대부분이어서 방한 크루즈 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필요
- 개별 크루즈 관광시장을 확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기항지의 관광수용태세 강화 필요
 - 최근 정부는 중국관광객의 개별관광 증가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도 단체가 아닌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를 시범 운영
 - * 2016년 10월 10일부터 법무부는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 3척에 대하여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 시범 운영
- 방한 크루즈 관광상품의 질적 제고와 방한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만,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ACC)를 중심으로 동남아 크루즈 시장 유치 확대 필요

추진방안

- 방한 크루즈 관광의 질적 성장 및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항지 수용태세 강화
 -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개별관광 시장 육성을 위해 2016년 시범적으로 운영된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중국인 크루즈 승객의 개별 비자 발급 간소화 등 단계별 개별관광 전환 추진(법무부와 지속적 협의)



- 개별 크루즈 관광상품 판매 경험이 있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여행사 Ctrip 및 상하이시, 한국관광공사, 국내 주요 기항지(부산, 인천, 속초 등) 등과 공동으로 개별 크루즈 상품개발 지원
 - * 2016년 4월 후쿠오카 항만국과 Ctrip, 상하이시가 공동으로 후쿠오카를 시범적으로 '크루즈 개별관광 상품'을 출시하여 이 상품을 구매한 승객들에게 셔틀버스, 관광 안내 팸플렛, 백화점 할인카드, 긴급연락정보 등 제공
- 주요 기항지별로 개별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 관광 가이드맵(크루즈 항만을 중심으로 관광코스 및 주요 정보 제공) 제작 지원 및 온라인 관광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크루즈 관광정보에서 개별 관광객 정보(교통, 쇼핑, 음식점 등) 별도 제작 지원
- Flying Cruise 유치 등 방한 크루즈 관광 시장 다변화 추진
 - 인바운드 크루즈 시장 다변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해 Flying Cruise 유치 및 상품 개발로 동남아시아 크루즈 시장 적극 발굴
 - 부산, 인천, 속초 등 항구와 공항을 모두 갖춘 기항지를 대상으로 LCC 항공과 연계한 Flying Cruise 상품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품격 기항지 관광상품 발굴 지원
 - 국내 기항지 크루즈 상품을 한류문화와 접목한 테마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동북아시아 크루즈와의 차별화 도모 및 고품격 테마 크루즈 상품 개발

□ [4-2-4] 무슬림 친화적 관광수용태세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잠재 관광시장인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편의시설 부족
 -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는 기도실과 할랄 음식서비스임
 - 타 종교집단의 반대 등 종교적 갈등과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공공시설 내 기도실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무슬림 관광객 1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무슬림 친화식당을 135개에서 170개로 확대 계획

추진방안

- 무슬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동 국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확대를 위해 대국민 및 주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무슬림 프렌들리' 홍보 사업 추진

-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무슬림 친화식당, 기도실, 할랄식품 판매장 등 무슬림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조기 확장 추진
 - 환경친화적 무슬림 식당과 무슬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식당과 기도실 등을 갖춘 숙박업체 육성 지원(기도실 확충 등)
 - 무슬림 친화식당의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무슬림 친화식당 가이드북(주요 관광지별) 및 무슬림 친화적 웹서비스 제작 지원 및 홍보
 - * 일본은 늘어나는 무슬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무슬림 친화적 여행정보 제공 웹서비스(www.halaljapan.com) 시작, 무슬림 일본 여행가이드북 제작
- 무슬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Halal Tourism 전문 여행사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해 'Halal Travel market' 개최
- 한국의 화장품과 국내 패션업계에서도 무슬림 여성 고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세계 할랄 관광 박람회 등에 화장품과 의류관련 업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4-2-5] 동남아 관광시장 비자발급 요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관광비자 제도 개선정책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에 집중되어 왔으며, 현재 인바운드 시장 다변화 정책대상인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비자 완화는 미흡한 실정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인에 대한 제주관광 환승무비자 및 전자비자 제도가 시행('17.12)되나 단체관광객에 국한, 개별관광객 비자 기준은 변동 없이 기존과 같이 유지

추진방안

- 동남아 시장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지속 추진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아웃바운드 규모 및 성장 가능성, 불체자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비자면제 및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
 - *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과 같이 영토가 광범위한 국가의 경우 비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높은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요되어 개별관광객 비자발급센터 설치를 통해 비자발급 편의성 향상 필요
 - * 대만은 'ASEAN 국가 대상 비자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추진



[3] 외래관광객 지역 방문 촉진

□ [4-3-1] 지역주도형 외래객 유치거점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방한 외래관광객들의 지역 방문 패턴을 보면 서울 중심의 방문이 압도적으로 높음
-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의 관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매력적인 관광지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
-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관광거점 육성 지원 필요

추진방안

- 외래객 유치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칭 ‘지역 국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
 - 관광자원/콘텐츠 발굴 및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해외 홍보, 지역주체의 역량 향상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수립
-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을 검토하여 유치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지역들을 대상으로 다각적 지원 추진
 - 지역별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가 컨설팅, 해외 홍보채널, 예산 등을 지원
 - 지역들이 당면한 현장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지원팀을 구성하여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 지원을 강화

<표 V-45> 일본 쇼케이시 도시 지정 사례

구 분	세부내용
일본 쇼케이시 도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지방으로의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쇼케이시 도시를 선정하고 프로모션 추진 • 모델 케이스로 쿠시로 등 3개 도시 선정 • 각 시 및 일본관 DMO 법인이 관광자원 및 스트레스 프리환경 정비, 해외정보 제공 등 실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지원팀을 형성하여 의견 교환, 전문가 파견 등 지원

□ [4-3-2] 지역관광지 교통연결성 향상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하철 및 버스교통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여행이 어려운 상황
 - 공항·항구·기차역 등 교통허브와 지역관광지의 교통연결성 및 안내체계 미흡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연결성 향상을 위해 시티투어 혹은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나 투입예산 대비 외국인 이용객 수가 저조하여 정책적 실효성이 낮은 상황

추진방안

- 개별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 및 항구, 기차역 등 교통허브와 숙박지 및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연결성 향상 및 안내체계 정비를 추진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관광지에 대한 원활한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광교통체계 개선 지원 및 관련제도 정비
 - 국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체계가 미흡하므로 행선지 안내를 비롯하여 예약·발권시스템의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 [4-3-3]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한류는 한국 이미지에 문화와 스타일을 더하며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방한 의도를 증가시키는데 큰 기여
- 최근에 한류는 K-pop, 드라마, 영화, 예능 등 기존의 장르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
- 방한 한류관광시장은 주로 아시아의 젊은 여성들로 재방문 비율과 지방여행 참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외래관광객 지역 분산 노력이 부족한 상황

추진방안

- 해외 한류 동향 및 소비자 시장 특성, 국내 지역이 보유한 한류콘텐츠 현황 및 관광자원화 활용 실태, 한류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추진



- 한류 영상콘텐츠의 사후 활용 제고를 위하여 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촬영 세트장, 의상 및 소품 보존, 저작권 및 초상권 이용허락 등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 인천, 부산, 제주 등 해외 교통 연결성이 우수한 지방도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한류 페스티벌, k-pop 콘서트, 국제영화제 등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상품 개발 및 홍보 강화
- 한류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방문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지자체, 관광공사, 인바운드 여행사, 연예기획사, 주요 방송사 등 관련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 [4-3-4] 지역 쇼핑관광 브랜드 육성 및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관광객의 대표적인 활동은 쇼핑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의 쇼핑관광 목적지 및 브랜드는 부재한 상황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활동은 서울·시내면세점·화장품 등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위해 지역의 대표 쇼핑관광 장소 및 품목 다양화 필요
 - 쇼핑목적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쇼핑장소 또한 글로벌 브랜드 및 대형매장이 아닌, 지역의 소형 쇼핑점과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상점 중심으로 활성화 필요
 - 쇼핑품목 또한 문화·관광 상품 등으로 확대 추진 필요

추진방안

- 지역 쇼핑관광을 글로벌 쇼핑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 대표 관광상품 발굴
 - 지역의 쇼핑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 기념품 공모전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대표 쇼핑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가칭 ‘라이징스타 문화관광상품 선정대회’ 추진
 - 지역브랜드로 발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개발 및 홍보, 마케팅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Made in Korea를 넘어 Made in Korea(Local**)로 육성
- 지역의 대표 쇼핑지역의 쇼핑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 인프라(가격정찰제, 사후면세점 확장, 언어서비스 등) 지원
 - 사후면세점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홍보(사후면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역에 사후면세점 특화 쇼핑거리 지원(사후면세점의 환급 단말기 보조금 지원 등)

* 춘천시 2017년 5월 중심 상권인 춘천 명동을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조성(추경예산에 1억 원을 편성, 희망 상가에 환급단말기 설치 지원)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 쇼핑관광 명소에 대한 홍보 및 연계 이벤트 개최 지원

□ [4-3-5] 지역관광 해외 홍보체계 및 데이터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관광의 홍보마케팅 추진주체로서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홍보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
- 또한 지자체, RTO 등 지역관광 주체들도 외래관광객의 지방 방문 활성화를 위해 해외 홍보업무 추진
-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마케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홍보마케팅 추진의 체계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
-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관광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홍보마케팅 정책 추진이 요구되나 관련 데이터가 매우 부족
- 이에 외래관광객 지방 유치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정보 생산체계 구축 필요

추진방안

- 지역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해외에 효율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홍보 협력체계 구축
 - 한국관광공사 - RTO -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조정기능 강화
 - 한국관광공사의 RTO 및 지자체 관광홍보 지원 강화
- 지역관광의 효율적 홍보 및 시의적절한 지역관광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역관광 데이터 생산 확충
 - 지역별 외래관광객 이동 및 행태 조사자료 구축
 - 지역별 숙박통계 생산시스템 구축
 - 민관 협업 강화 통해 시의성 있는 빅데이터 생산·분석체계 구축



[4] 국제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 [4-4-1]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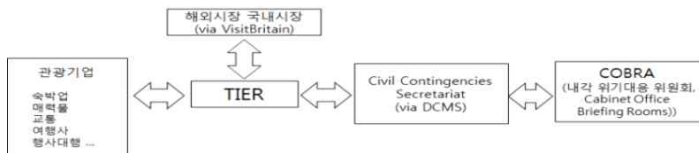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테러와 각종 사고로 인한 사회적 재난 및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
-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리스크 관리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필요

추진방안

-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상시적 관광 위기관리 협력시스템 구축
 - 관광위기 발생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업계 간 대응방법 논의 및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
 - 인바운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상시적 관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관광안전관리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ICT기술 활용 1:1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 * 관광 위기관리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관광 위기상황 유형별, 상황별 대응방식을 고려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업데이트 체계 구축
 - * 상시 모니터링 → 위기감지 → 위기수습 → 사후대책마련 → 예방교육 실시
 -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 대상 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국어 안내판 운영 및 숙박시설 등 접점을 중심으로 관광객 대상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등 통합적 관광안전관리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 영국의 관광위기관리 조직 >

- 관광위기 관리조직 TIER(Tourism Industry Emergency Response) 운영
- (구성) 영국의 주요 관광관련 정부와 업계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
 - 관광청(Visit Britain), 업계 대표(영국여행협회, 영국호텔협회, KTO, 항공사, 주요 관광지 협회 등)
- (역할) 위기사나리오 계획 수립, 특정 위기에 대한 관광업계 대응 관리



□ [4-4-2] 한·중·일 동북아 관광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한·중·일 역내관광의 규모는 6,942만 명('16년 기준/14년 대비 28% 증가)으로, 3국 간 인바운드 시장의 1-2위를 차지
-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3국 간 인·아웃바운드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한·중·일 역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 관광시장에 '동북아 관광권'에 대한 한중일 연계상품 개발 및 공동 홍보 필요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추진방안

- 방한 중국관광객 대상 비자제도 추가 완화, 한시적 비자발급수수료 감면, 비자발급센터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3국간 경계 없는(Free Travel Zone) 관광 실현
 - 재방문객 대상 10년 복수비자 발급, 특정상품 구매자 대상 무비자 추진, 방한 개별 복수비자 발급 간소화 지역 확대, 기존 한국방문 경험자 대상 복수비자 발급 등
 - (동북아 역내관광 연계상품 개발) 한·중·일 문화의 공통성·차별성을 토대로 3국 연계 관광상품 개발
 - (동북아 항공자유화 확대) 한·중·일 국가 간 항공자유화 체결 후, 민간항공사 간 자유로운 노선 확대 및 항공노선 확충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 * 현재 '한국-일본(하네다 제외)', '중국-일본(베이징, 상하이, 도쿄 제외)' 간 항공 자유화
 - (한중일 교통패스 '(가칭) East Asia T-Pass' 도입) 한중일 항공·기차·버스 지불체계를 통합한 교통패스·카드 판매

□ [4-4-3] 한-아세안 관광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동남아 지역의 방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관광협력의 중요성 증대
- 아세안 국가들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추진방안

-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관광협력의 기반 구축
- 한-아세안 관광장관회의 개최로 정부 간 협력체계 기틀 마련
- 아세안 국가들과 한-아세안 관광교류의 해를 추진하여 양국 관광 교류 활성화
- 한-아세안 민간업계 간 관광교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

□ [4-4-4] 관광 ODA 사업 추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분야 ODA는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0.1%의 매우 작은 비중 차지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주요 사업 분야에 관광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관광 ODA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 ODA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에 관광산업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필요

추진방안

- 국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원국 정부의 니즈를 조사 및 반영하여 관광 ODA 추진
- 수원국 정부의 니즈에 따라 관광개발계획 및 관광전략 수립 컨설팅 사업, 관광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컨텐츠형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 커뮤니티기반관광(CBT) 모델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ODA 사업 추진
- 국내 관광 ODA 전문인력의 참여기회 확대 및 관광 ODA 인력 청년세대 육성
- 관광 ODA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관광 ODA 포럼 개최 등 홍보의 장을 지속 마련

4

추진 일정(안)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고도화를 통한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4-1. 방한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강화		
4-1-1 인바운드 시장 세분화 및 유치 전략	문체부	2018-2022
4-1-2 체류형 환승관광 시장 활성화	문체부	2018-2022
4-1-3 프리미엄 시장 유치 활성화	문체부	2018-2022
4-1-4 고부가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문체부	2018-2022
4-1-5 관광브랜드의 체계적 활용 및 관리	문체부	2018-2022
4-2. 외래관광객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4-2-1 관광안내서비스의 고도화	문체부, 지자체	2018-2022
4-2-2 관광-항공 분야 협력체계 강화	문체부, 국토부	2018-2022
4-2-3 크루즈 주요 기항지 관광수용태세 강화	문체부, 지자체	2018-2022
4-2-4 무슬림 친화적 관광수용태세 구축	문체부, 산자부	2018-2022
4-2-5 동남아 관광시장 비자발급 요건 완화	문체부, 법무부	2018-2022
4-3. 외래관광객 지역 방문 촉진		
4-3-1 지역주도형 외래객 유치거점 육성	문체부, 관계부처, 지자체	2018-2022
4-3-2 지역관광지 교통연결성 향상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2018-2022
4-3-3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2018-2022
4-3-4 지역 쇼핑관광 브랜드 육성 및 지원	문체부, 중기부, 지자체	2018-2022
4-3-5 지역관광 해의 홍보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2018-2022
4-4. 국제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4-4-1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문체부	2018-2022
4-4-2 한·중·일 동북아 관광협력 강화	문체부	2018-2022
4-4-3 한-아세안 관광협력 강화	문체부	2018-2022
4-4-4 관광 ODA 사업 추진 확대	문체부, 외교부	2018-2022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VI

법·제도 추진기반 조성

제1절 관광 법·제도 정비

제2절 관광정책 협력체계 구축



제 1 절

관광 법·제도 정비

□ [5-1-1] 관광법제 개편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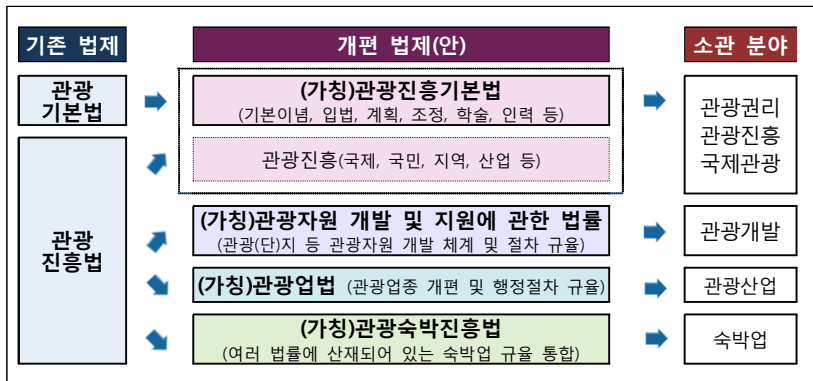
- 관광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관광법제의 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아 과잉규범화와 하위법령 위임과다, 규제와 진흥 그리고 사업과 개발이 혼재된 문제점 발생
 - * 관광법제의 기원은 1961년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이며, 1975년에 들어 관광진흥법 제정으로 관광법제의 틀이 형성
- 관광사업 측면에서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 업종의 분류가 과다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신규업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발생
-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 관련 법은 『관광진흥법』 내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개발의 추진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현행 관광기본법에서는 R&D진흥, 인력양성, 시장질서 확립 등 최근 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이 미포함

추진방안

- 관광기본법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광사업의 관리, 시설설치, 개발 등 이질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광진흥법 법령체계를 개편함
 - 관광기본법은 진흥조항을 강화하여 (가칭)관광진흥기본법으로 확대하며 하위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 총괄적 시책을 위한 조문 확대, 국민의 관광참여, 국제관광 진흥 등 구체적 진흥 조문 신설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체들에 대해 관광사업 업종분류체계를 단순화하여 공급서비스 유형에 따라 규정함과 동시에 업종별 등록, 지정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규정함
- 관광개발 체계 및 절차 규율 등을 포함한 (가칭)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성하되 개발절차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며 하위 내용으로 시·도 심의기구 및 지원 중간조직 신설, 관광(단)지 조성·지침 마련,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기능을 강화함
- 타 부처 법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종들에 대해서 숙박산업 진흥 및 공유민박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관광숙박진흥법을 제정하며 관계부처 협력체계인 관광숙박정책협의회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전체 숙박업 대상 통계조사 실시, 숙박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유민박업 등을 도입함

<표 VI-1> 관광법제 개편(안)



제2절

관광정책 협력체계 구축

□ [5-2-1]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산업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외연확대 및 융복합화 되어가는 추세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필요
- 산업 특성상 부처의 연계성도 높아져 한 부처가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부처간·분야간 협력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추진방안

-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련 부처와 민간분야간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며 부처간 정책조정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협력적 관계 유지
- 본 회의체는 국무총리를 좌장으로 하고 문체부,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당연직 위원),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위촉직)를 대상으로 구성·추진 함
- 상기 회의체에서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진흥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관련 부처간 쟁점사항 조정 등을 담당하며 개최주기를 정기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
-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후속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며 관련 사항들을 점검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제고함



□ [5-2-2] 지자체 협력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관광사업은 규모와 종류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의 수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4년부터는 일부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생활(지역)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역이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더욱 증가될 전망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직접적인 참여와 중앙정부간 의견조율을 통해 중앙·지방간 정책추진의 기반마련이 필요한 상황

추진방안

-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 및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및 부단체장의 정례회의를 추진함
- 실효성있는 지역관광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간 합의된 이해와 소통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회의체의 기능을 부여함

□ [5-2-3] 민관 상시소통채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급격한 사회·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안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체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메르스, 사드 등 우리나라 관광사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에 대해 정부정책을 시의성있게 반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안

-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주재하며 관광관련 협·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체를 마련하여 유사시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중앙정부와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시적인 채널을 마련하여 애로 및 협력사항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및 외래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소 관광기업(벤처포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자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통채널의 관리를 문체부 부서별로 할당하여 실효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연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책임	김 상 태	선임연구위원
	김 향 자	선임연구위원
	류 광 훈	선임연구위원
	김 영 준	연구위원
	김 현 주	연구위원
	이 원 희	연구위원
	최 경 은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 희 수	연구위원
	박 주 영	연구위원
	유 지 윤	연구위원
	전 효 개	연구위원
	권 태 일	부연구위원
	김 단 야	부연구위원
	박 상 곤	부연구위원
	윤 주	부연구위원
	이 성 태	부연구위원
	최 자 은	부연구위원
	김 성 윤	연구원
	오 유 라	연구원
	정 광 민	연구원
	한 회 정	연구원

연구 보조	빈 정 하	위촉연구원
	송 수 엽	위촉연구원

(직급별 : 가나다 순)